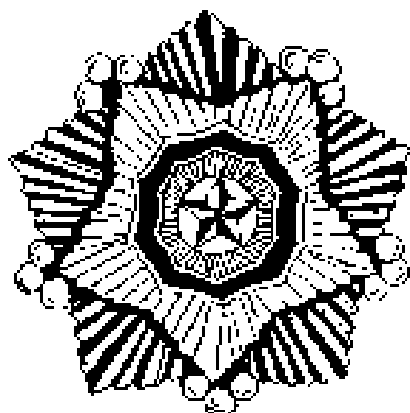




3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3호

(루계 제 737 호)

◇◇◇◇◇◇◇◇◇◇

차 례

◇◇◇◇◇◇◇◇◇◇

작가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온성돌배나무》	5
뽕죽봉은 치솟아	6
표식비가 아니라 대기념비를!	7
장군님마음속 첫자리에	7
어머님의 미소	7
태평양을 잠재우다	8
주체문학의 대강	10
조선여성해방운동사에 대한 불멸의 화폭	11
행복.....	16
나의 추억과 현실	17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18
단편소설의 구성과 세부묘사의 기교.....	19
만대에 빛나리 선군의 전통.....	21
눈빛의 대화 외 1 편	22
문학에서 민족성을 살려 주체성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23

후방이 아니다	28
근본(본성)	28
가시오갈피	29
내가 잘 아는 사람	39
앞치마	40
나에게는 스승이 많다	41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	42
봉화가 타오른다 쇠물이 쏟아진다	43
작가 천세봉의 현실체험과 흙냄새나는 그의 작품의 대하여	44
아름다운 밤이여	48
나의 땅, 우리의 땅	48
처녀시절과 이야기한다	49
영웅의 수첩 나의 수첩	50
눈오는 날 농장처녀들 서정	51
얼굴	53
병사생활의 나날에	61
비방자에 대한 공격	62
세대의 룰리	63
우리 나라 《동반자》 문학에 대한 리해	72
내 나라 끝점에 한 공민이 있다	73
젊어진 고향벌에서	74
명령	75
팍말약과 그의 창작	76
의종을 질겁케 한 풍자시	77
지도작성과 지리지편찬	78
주체 97(2008)년 《조선문학》 축전상 당선결과	78
세연지의 유래	79
칼날같은 비평가	79
해학적인 강연	80

작가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주체98(2009)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전투적호소와 새해공동사설을 뜨거운 심장에 받아안고 우리 작가들도 지금 누구나 다 새로운 흥분에 넘쳐 올해 더 좋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해낼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창건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레성강청년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녕원발전소와 같은 중요대상들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대홍단과 미곡협동농장은 우리 농촌의 휘황한 전망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평양시가 더 잘 꾸러지고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져 조국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는데 특히 가요 《강선의 노을》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음악예술작품들과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를 비롯한 국보적인 걸작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된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새해 주체98(2009)년은 당의 부름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력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이다. 뿐만아니라 주체101(2012)년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공격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새해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명백하며 우리에게 새 기적, 새 진군속도창조를 위한 비약의 통마가 마련되어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투쟁방식에 의거하고 우리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의 력사를 창조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작가들도 온 나라 군대와 인민과 함께 발맞추어 선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혁명적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자기들의 작품창작으로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상의 위력, 우리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리는데 힘있게 이바지해야 한다.

여기서 작가들은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힘있게 맥박치게 할뿐아니라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정을 더 높이 발휘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선군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잔재와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철저히 배격하는 작품창작에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은 우리의 고유한 혁명방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지난 시기에도 작가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과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해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우리는 올해에도 공동사설의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여기에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작가들은 새해에도 우리의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선군시대의 총진군속도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금속공업, 전력, 석탄, 철도운수뿐아니라 채취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작품창작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금속공업은 우리의 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24일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을 찾으시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지금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리마운동의 위대한 발단을 열어놓으신 주체45(1956)년 12월의 그때와 같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우리의 금속공업을 더 높이 발전시키는데 참답게 기여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은 올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작가들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는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관철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학작품,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전군중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산, 경공업, 살림집건설 그리고 산림조성사업을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고 우리의 주체적인 경제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근로자들과 일군들을 형상한 문학작품들도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창작해내야 한다.

올해공동농사에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사회주의생활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반영한 명작들을 많이 내놓을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작가들은 새해공동농사의 이 정신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누구나 선군시대를 빛내이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명작창작에 모든 창작적열정을 다바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보건, 체육 등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들도 성과적으로 창작해내야 한다.

작가들은 다음으로 선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도 그 어느때보다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창작하는 모든 문학작품들에서는 우리의 인민군대는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력한 주력군이라는 사상,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사상이 형상으로 힘있게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작품들이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 로동계급과 청년들이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기도록 하는데 복무하는 문학작품들도 활발히 창작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들은 다음으로 조국통일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이라는 주제의 작품창작에도 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작가들은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

자!》는 구호를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우리 민족끼리》의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을 관철하는데 기여하는 작품,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창조해야 한다.

작가들은 새해에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는 작품창작에도 웅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필가들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한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작가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고계신다.

새해에도 우리 작가들은 붓대칠학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선군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한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뛰어난 문학적천품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작가들이 있는 한 올해 우리들의 명작창작전투의 성과는 확정적이다.

올해 작가들이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그 언제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 튼튼히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들은 누구보다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갈뿐아니라 언제나 인간과 그 생활을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볼줄 알고 온갖 넓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잘해나가야 한다.

작가들이 명작을 많이 창작해내기 위해서는 창작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실력이 없으면 당에 도움을 줄수 없고 당의 문예로선도 제대로 관철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누구보다 시간을 아껴가며 학습을 많이 하고 자기들의 창작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들끓는 현실에서 생활체험을 잘하는것도 작가들이 명작을 창작해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작가들은 늘 현실에 몸을 잠그고 생활체험을 진지하게 잘함으로써 올해에도 현실에 있는 수많은 원형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해내야 한다.

올해 우리 작가들도 강선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선구자의 용감성, 강자의 자존심, 창조자의 대담성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 분발하여 올해공동농사와 강선로동계급이 전국에 보내는 편지에 호응하는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도가 있는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홍영길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기나긴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이 좌우명을 뼈와 살로 만든 사람은 절해고도에서도 지조를 지키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오를 떠나 변절투항하거나 중도반단의 길을 걸었다.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고이 안고온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후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옮겨져 새 조선 건설의 봉화로 라올랐고 동방일각에서 전설의 천리마를 날린 원동력으로 되었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는 로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줄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혁명전설

《온성돌배나무》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전해지고있는 전설들 가운데는 70여년전 오늘의 온성군 풍계리에서 생겨난 돌배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1930년대초 어느해 5월 중순이었다.

산기슭 큰 바위밑 돌기와집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은 전날 밤에 있는 일로 하여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락거리다가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소리에 일어났다.

로인은 어둠속을 더듬으며 마당 한켠에 가려놓은 장작더미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그때 뒤산 어디선가 삽질소리가 고요한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들려왔다.

(이른새벽부터 무얼 할가? 누군지 부지런도 하군.)

그러나 다음순간 간간이 들려오는 그 삽질소리가 로인의 귀를 몹시 자극했다.

옷방에서 주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단잠을 깨울가 걱정하는 로인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빨리 산에 올라가 삽질을 하는 사람에게 랑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로인이 막 대문밖에 나서려고 할 때였다.

그렇게도 마음을 괴롭히던 삽질소리가 똑 몇더니 사위는 고요해졌다.

마침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당 한켠에 앉아 담배를 말아붙인 로인의 머리에는 전날 밤에 있는 일이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인의 집을 찾아주신것은 바로 전날 저녁때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오전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내려오시던 길에 밭에서 소를 대신하여 가대기를 끌고있는 나

어린 소년과 함께 팟을 쪽 뽑으시고서야 밭머리에 나오시여 마을의 농민들과 담화를 하시었다.

피곤이 쌓이신 몸으로 로인의 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미흡한 생각을 깨우쳐 주시느라고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잠자리에 드시었다.

그 로인으로 말하면 젊은 시절 독립운동에 관여하면서 쓰디쓴 일을 겪을대로 겪었고 외진 산골에 은신독거하는 몸이라 고집이 세고 편견 또한 여간 아니었다.

그러던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인품과 비범한 예지에 매혹되어 나중에는 그이의 두손을 잡고 진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정녕 짧지 않은 내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던 내 가슴이 탁 트이고 죽었던 민족의 넋이 되살아나는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국해방의 시운이 활짝 열리였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분이 지금 자기 집 옷방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마음흐뭇해하던 로인은 대문쪽에서 나는 인적기에 그만 생각에서 깨어났다.

로인은 손님을 대문밖에서 맞고 돌려보낼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몇걸음 못 가서 로인은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그 손님이 이제껏 자기가 고요를 지켜드리느라고 원심을 쓰던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알아본 그 로인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손에 애어린 돌배나무를 받쳐들고계시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 로인에게 그이께서는 돌배나무를 떠왔다고 하시면서 이 심심산골에서

뽕족봉은치숫아

서봉제

눈보라는 기승을 부리고
몇단의 조짚난가리무지에서
뼈를 에이는 추위를 참으셔야 했으니
생각만 해도 이 가슴 저리구나

연포리 깊은 골을 메우며
절벽에서 쏟아지던 눈사태
온밤 아우성치던 눈보라
오늘도 뽕족봉 칼벼랑에서
메아리로 울리는것인가

빛이 없고
등대없던 강토에
조선국민회의 피줄을 넓혀가시려
독립의 총성 국내깊이 울리시려
일제의 총검 국경을 덮은 길
단신으로 나서신 우리의 김형직선생님

생각하기조차 절통쿠나
동북만주 광활한 땅
또 국내의 방방곡곡에
찍어가시던 거룩한 자욱자욱
원췌의 총칼엔 총검으로 맞서야 한다고
사선의 언덕을 앞장서 헤치시던 걸음
원췌의 포승에 묶이울줄 어이 알았으랴

눈덮인 바위돌이

쨍쨍 울분에 갈라지고
얼음뱀 압록강이
광광 분노의 격파로 솟구쳐
삼천리강토를 흔들어깨우던
잊지 못할 그날의 비통함이어

손발이 굳어지고
팔다리 얼어들고
하반신의 심한 동상
이제 더는 걸으실수 없는 몸이건만
엄혹한 모진 추위도 눈보라도
독립의지로 불타는 심장 식히지 못했나니

나라와 겨레위한 싸움에선
얼어죽을수도 매맞아죽을수도
또 굶어죽을수도 있다는 그 3대각오
일제의 첩쇄를 짓부셔버리고
북방의 대령 뽕족봉에 거연히 오르신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아아, 만경대에서 새기신
《지원》의 큰뜻 다 모아
설악의 봉우리를 굳세게 짚으신 그 자욱이 있어
이 땅에 무성한 총검의 숲 자라났구나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이끄시는
무적강군의 총대앞에 신념의 메부리로 치숫아
멸적의 의지를 버려주는 너 뽕족봉이어

어린것들의 손에 쥐어줄것이 하나도 없으니 마음
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이 나무를 잘 가
꾸어 아이들에게 돌배라도 마음껏 먹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후 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사랑
의 돌배나무 랑쪽에 세그루씩 여섯그루의 돌배나
무를 더 심었다.

하루가 다르게 우줄우줄 자란 그 돌배나무가 다
음해부터 가지마다 배꽃을 하얗게 피우더니 가을
이 되자 애기주먹만 한 배알들이 가지가 부러지게
열리였다.

봄내 가으내 꽃향기, 과일 향기가 골안을 가득
채웠다.

로인은 손자애들에게 향기로운 돌배들을 따서
먹이였다. 그 배를 한동안 먹이였더니 놀라운 현
상들이 생기였다.

손자애들이 키가 부쩍부쩍 크고 얼굴색이 교와
지는가 하면 힘이 점점 세져 장사가 되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날개가 달린듯 린근마을에까
지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로인을 찾아왔다.

그후 돌배를 먹은 사람들이 로인에게 앓던 병이
뚝 떨어지고 몸이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인사를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

《아니웁다. 나에게 인사를 할게 아니라 저 하
늘에다 절을 하시우다. 이 돌배나무들은 속세의것
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내준거웁다.》

왜놈들이 살판치는 때여서 이 돌배나무를
김일성장군님께서 심으신것이라고 사실대로 말
할수 없었던 그 로인은 사람들에게 그저 하늘에서
내려보내준것이라는 은어로 대신하였던것이다.

전설적색채가 짙은 로인의 이 말은 후날 돌배나
무전설로 그 일대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함명희

표식비가 아니라 대기념비를!

백두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시는 길에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우리 당 력사에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주체57(1968)년 7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삼지연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삼지연에 오니 참으로 추억도 새롭고 생각되는것이 많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삼지연의 자연미에 심취되어 수십년전의 일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던 투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그대로 아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삼지연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력사가 깃들어있는 의의 깊은 고장입니다, 이 삼지연못가에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였던 항일투사들의 발자취가 새겨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곳을 잘 꾸려야 합니다라고 말씀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삼지연혁명전적지를 꾸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보라고 이르시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전적지의 주변을 교양적환경에 맞게 알뜰히 정리하는것과 함께 이곳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알수 있게 혁명전적지라는 표식비를 잘 만들어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표식비라 하고 되뇌이시더니 송엄하신 어조로 여기에는 표식비가 아니라 대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혁명사적대기념비를 웅장하게 세울 결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어나가시는 길에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원대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의 포성이 울리게 되었다.

가사

장군님 마음속 첫자리에

박 세 일

명절날 기쁜 날도 병사들생각
귀한것이 생겨도 병사들생각
장군님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병사 우리가 있네

나라의 큰 일감도 병사들에게
조국의 큰 표창도 병사들에게
장군님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병사 우리가 있네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자리
빛나는 위훈과 보답의 자리
장군님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병사 우리가 있네

가사

어머님의 미소

채 근 수

꽃피는 락원에서 만복 누리며
어머님은덕을 노래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밝은 그 미소
자애론 영상을 못 잊습니다

광명성 안아올리신 2월이 있어
이 땅은 언제나 봄이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밝은 그 미소
따사론 봄빛을 안겨줍니다

크나큰 그 념원이 꽃핀 이 락원
장군님 누리에 펼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밝은 그 미소
창창한 앞날을 축복합니다

태 평 양 을 잠 재 우 다

철썩, 처철썩—

태평양은 세계의 5대양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대양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수심이 깊고 바다밑 모양새가 험하며 해풍이 세차기로 유명하다.

바다가 격노할 때면 산악같은 파도가 일어서고 하늘땅을 집어삼킬듯 한 격랑이 호호탕탕 바위를 들부시며 광포한 자연의 힘을 과시한다.

인간과 세계를 공포속에 몰아넣는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쉽없이 출렁이는 태평양의 거센 물결은 지난 시기 강도 일제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많이도 삼켜여왔다. 그로하여 더욱 몸부림치고 더욱 흐느끼고 그렇게도 광란하였으리라.

생각컨대 그윽히 맑고 푸른 물결우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검은연기를 꾸역꾸역 토해내는 일제침략자의 철선이 지나간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이여 거친 이역으로 사무치는 분노와 애간장을 찢는 울부짖음과 꺼질길 없는 한숨소리로 배전을 두드리며 정처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갔던가.

그때마다 대양은 노호하며 세찬 격랑으로 잠들지 못하고 몸부림쳤다.

이러한 태평양의 거친 물결을 일시에 잠재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삼가 출렁이는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도는 마침내 죄 많은 머리를 숙이고 일본의 패전을 선언하였다.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썩운 세계대전은 포성도 멎었다.

《전쟁이 끝났대요!》

《일본이 항복했대요!》

《조선이 해방됐대요!》

남태평양상의 크고작은 섬들에 해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어둑침침한 막사안에서 이런 조선말웨침이 터져나왔다.

해방! 조선이 해방되었다.

막사안에는 한창나이의 처녀들과 젊은 녀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꺼칠해진 두볼로는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떨어졌다.

이제는 다 마르고말라 막힌줄 알았던 눈물줄기가 다시 열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뿜어져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젖어든 눈썹사이로 아예 생각지도 말자고 잊고말자고 것처럼 가슴속을 누르고 또 덮어버렸던 그리운 얼굴들,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의 모습과 고향산천이 우렁이 떠올랐다.

《아, 어—머니!...》

울며불며 찾고 부르는 그들의 어깨는 세차게 들떡거렸고 찢고도 쓰디쓴 절망의 눈물이 끝없이 쏟아져내렸다.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들은 왜놈들에게 몸을 더럽힌 일본군 《위안부》 들임을 소스라치며 깨우치게 되는 것이었다.

《아이고 어머니!... 난 어쩌면 좋아요?》

올해 15살의 애어린 처녀 분이 언니벌이 되는 숙향의 무릎에 어푸라지며 목놓아 곡성을 터뜨렸다.

아, 이 원한을 어떻게 푼단 말인가?

일제는 침략전쟁에 환장이 되어 어떻게 하나 파멸에 처한 제놈들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조선에서 빼앗을수 있는 모든것, 인적, 물적자원을 깡그리 긁어가다 못해 나중에는 애어린 처녀들과 갓시집을 온 새각시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랍치해갔다.

20세기의 참혹한 인간도살장인 전쟁터에 끌려간 그들은 포악한 일본사무라이들에게 던져져 《천황폐하》의 하사물인 성노리개로 그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가 된 것이었다.

그러한 조선녀성의 수가 20만을 헤아리었다.

함경도의 길주가 고향인 숙향은 머슴군총각에게 시집간 첫날 밤에 악귀같은 왜놈들에게 붙잡혀왔고 애어린 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보를 멘채 백주에 랍치당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고 녀성이 아니었다.

일찌기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전쟁의 재난속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아비규환의 생지옥! 그속에서 녀인들이 바라는 소원은 하나뿐이었다.

인간의 존엄과 녀성으로서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생명을 깨끗이 끊어버리자.

죽음으로 항거하여 혼이나마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나 원썩들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속에서 그들에게는 목숨을 버릴 자유까지도 차폐되지 않았다.

《아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집으로 간단 말지요? 무슨 낫으로 부모님들을 마주한단 말지요?》

숙향은 몸부림쳤다. 그러다가 문득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렇게 울고만 있을 경황이 못되었기때문이였다.

지긋지긋한 이 왜놈의 마굴에서 벗어나자!

무엇보다도 왜놈들의 탐욕스러운 눈길에서 몸을 피해야 했다.

미친듯 한 진군나팔소리를 울리며 남태평양까지 질주한 왜놈들은 보급선이 끊어져 무서운 기근상태에서 허덕이고있었다.

무인도나 다름없는 섬에 오도가도 못하게 된 왜놈들은 그야말로 순간에 미쳐버렸다. 서로 빼앗고 찢러죽이고 쏘아죽이는판이었다.

제놈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부리를 겨누고 제비뽑기를 하던 왜놈들속에서 어느 놈인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조선년들도 그냥둘수 없다.》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인 조선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식인종의 야욕이 골수에 박힌 왜놈들은 막사를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는 위험이 각일각 조선여성들에게로 다가오고있었다.

숙향을 비롯한 여성들은 소굴부터 뛰쳐나왔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운 고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지 알수 없었다. 다만 잡혀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허리치는 진땀과 끝없는 장굴속을 헤쳐갔다.

인차 왜놈들이 뒤쫓아왔다.

먹이감을 본 굶주린 이리떼마냥 왜놈들은 겁질기게 뒤따라왔다.

녀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산등성으로 치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지칠대로 지친 그들은 마지막기력을 모아 필사적으로 걸음을 뚫다.

앞에는 아찔한 낭떠러지, 그밑으로 시퍼런 바다가 룡트림하고있었다.

숙향은 분연히 머리를 풀어헤쳤다.

《저 바다에 몸을 던져버리자요! 죽을래야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어 몸부림치던 우리가 아니었나요. ... 그러면 신령님도 불쌍히 여겨 우리들의 혼을 고향으로 보내줄거예요.》

그들은 고국의 하늘쪽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여 하직인사를 했다.

《부디 죄많은 이 딸들을 불쌍히 여겨 혼백이라도 어머니앞에 돌아가게 보살펴주소서!》

바다는 더 세차게 광란하며 몸부림을 쳤다.

그들은 다 해진 신발을 벗고 벼랑우에 주련이 올라섰다.

숙향은 마지막으로 고향생각을 했다.

그의 고향은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어린시절 모기쭈 타는 토방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또글또글 익은 별들이 손에 잡힐듯 눈앞으로 다가왔었다.

그런 밤이면 어머니는 백두산의 장수별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불쌍한 우리 겨레를 구원해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단다. 백두산의 깊은 산속에는 수만군사가 칼을 갈고 조련을 하는데 머지않아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해방시켜주신단다.》

마침내 그날이 온것이였다.

그런데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왜놈들을 쳐부시

고 해방을 이룩해주셨건만 우리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채 타향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니... 원통하고도 분했다.

이제라도 백두산대장수님께 우리들의 불행을 알릴수만 있다면... 그러면 대장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주실거라고 생각되였다.

아, 백두산대장수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하나 고국은 예서 아득한 수룩만리길, 그것은 도저히 바랄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죽음의 바다, 절망의 심연만이 놓여있었다. 누구도 이들을 알리 없었다.

바다는 광광 태질을 했다.

이때 어지러운 왜놈들의 말소리가 퍼그나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아!— 백두산대장수님!》

녀인들은 힘을 모아 목청껏 이 한마디를 웨치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뒤집어썼다.

이때였다. 짱— 짜르릉, 짱짱—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는듯 한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렸다. 이어 꺼먼 하늘을 짹짹 가르며 시퍼런 불채찍이 펄펄거렸다. 갑자기 사위가 대낮같이 밝아지며 벼랑가의 주변이 환하게 드러났다.

세번, 네번... 그런데 이상한것은 번개불채찍이 휘돌러질 때마다 벼랑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올라던 왜병들이 순식간에 타버려 재가루가 되는것이였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녀인들은 이 모든것을 자연의 광란으로 여기였다.

그들이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이였다.

하늘의 먹구름이 두쪽으로 갈라지며 그들의 머리위에 유난히도 밝은 빛발이 쏟아져내렸다.

《아서라! 어서들 물러섰거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하늘의 음성이 거룩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하늘을 우러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채운이 서린 밤하늘에 금빛룡마를 탄 장수가 자기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장수는 가슴노리까지 드리운 흰 수염을 내리쉴며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어찌하여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하느뇨?》

《저희들의 목숨이 귀하다고요?! 아니, 아니 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것처럼 귀하고 소중한것이 목숨이라 하건만 짓밟힐대로 짓밟히고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우리에게 제일로 귀찮고 쓸모없는것이 바로 이 목숨이랍니다. 그러니 죽어 혼이나마 고스란히 고향으로 가도록 부디 보살펴주소서!》

녀인들의 오열에 떠는 통곡이 하늘공중으로 퍼져갔다.

《그러지 말아, 조선의 딸들아! 악귀에게 짓밟힌 그 원한과 슬픔이 어찌 너희들만의것이랴. 춘하추동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곡성이 어느 하루 인들 그친적 있었으며 기다리고기다리다 돌로 굳어진 어머니들이 그 얼마인지 너희들은 모르리라.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가는 작가의 창작을 성심성의로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며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책임지는 립장에서 평론을 써야 한다.

작가를 인신공격하는 평론이나 작품의 긍정면을 무시하고 결함만 들춰내어 헐뜯는 <타도식> 평론을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다. 평론가는 작가가 작품을 잘 썼으면 좋고 잘못 썼으면 때린다는 식으로 맹담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작가와의 개인적인 관계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주견없이 평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평론은 평론가와 작가사이에 개인주의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나 통할수 있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작가의 창작을 원칙적이면서도 진심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책임지는 립장에서 평론하는것이 우리 식 평론의 료리이다.》

자, 해방의 기쁨으로 울고웃는 고국으로 어서들 떠나오거라!》

그들이 미처 대답을 올리기도 전에 장수는 룡마를 타고 구름속으로 훨훨 날아갔다.

숙향이를 비롯한 녀인들은 꼭 자기들이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사람이 너무 절망에 빠지면 이런 꿈을 꾸는것은 아닌지.

그러나 분명 자기들은 방금전까지도 몸을 던지려 했던 아찔한 벼랑우에 서있었다.

다른것이 있다면 검질기게 따라오던 왜병들이 모두 너부러진것이고 그처럼 태질하며 광란하던 바다가 잠든듯 고요한것이였다.

《숙향언니!》

《분이야!》

그들은 서로 얼싸 부둥켜안았다.

《언니, 이게 꿈은 아닐테지요?... 심청이가 보았다는 룡궁에 들어온게 아닐까요?》

《글쎄, 꿈이라면 깨지 말아달라고 빌고싶구나.》

그러나 그것은 꿈아닌 현실이였다.

얼마후 그들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녀인들은 그때야야 비로소 자기들을 천길나락에서 구원해준 장수가 다름아닌 백두산대장수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불행한 자기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보내주신 부하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

많고많은 가슴속 말마디들이 눈물로 되어 그들의 얼굴을 적셨다.

그들은 수록만리 머나먼 태평양의 한복판에서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긴것이다. 숙향이와 녀인들이 자나깨나 꿈속에서 그러보던 백두산장수님의 빛발이 거친 땅 이역만리까지 비쳐온것이였다.

그들이 조국으로 떠나오는 날은 기적과도 같이 태평양의 물결이 잠을 자듯 조용했다.

당시 남태평양의 부두들에서는 패망한 일본군대들을 실은 배들이 세찬 파도에 삼키워 파산되고 침몰되곤 했다.

길길이 뛰여오르는 산악같은 파도는 가랑잎같은 배들을 단번에 삼켜버렸고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듯 태질을 하며 무섭게 광란하고있었다.

그런데 그처럼 광란하던 대양이 하루아침에 잠에라도 든듯 조용히 출렁거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조국을 향해 닻을 올린 배에는 눈처럼 흰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녀인들이 그런듯이 앉아있었다.

가 리 마 를 곱 게 탄 숙 향 과 녀 인 들 은 백두산장수님이 빛을 뿌리는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 있는 하늘쪽을 보고 또 보았다.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는 그들이 탄 배가 무사히 조국으로 가닿을 때까지도 조용히 잠들어있었다고 한다.

오늘도 남태평양주변의 주민들과 이 사실을 알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평양의 그러한 기적은 애족애민의 최고화신이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가져오신것이라고 한결같이 전하고있다고 한다.

그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일본작가 센다가쵸는 주체67(1978)년 도표의 《3.1서방》에서 발행한 저서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

...어디서 어떻게 연락이 되었던지 중경에 조선 김일성장군의 부하인 항일군의 간부가 와서 조선 녀인들을 전원 데려갔다 한다. ...

무릇 전설이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지면서 깎이거나 보태여지는 법이니 이 이야기도 연원은 여기에서 찾아야 할것 같다.

아니 뎌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는 조선속담의 구절을 되새기면서...

김 종 석

조선여성해방운동사에 대한 불멸의 화폭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에 대하여—

최 언 경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김영희 작)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한 우리 나라 여성해방운동사에 대한 영원불멸의 서사시적화폭이다.

지난 시기에도 여성해방을 두고 여성문제를 취급한 다른 나라 소설들이 적지 않으나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와 같이 여성해방문제를 그렇듯 높은 경지에서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해명한 명작은 일찌기 세계문학사에 없다.

위대한 력사만이 위대한 문학을 창조한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우리 나라 여성혁명가의 최고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한 성과작이다.

우리 문학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노래한 시와 가사, 소설작품도 많고 특히는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의 장편소설들과 같이 김정숙동지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시기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형상한 작품들도 있다.

이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한 친위전사, 수령의 명령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최고전형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시기적으로 보면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의 장편소설들의 편속편이라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반영한 이상의 장편소설들과는 달리 조국해방직후로부터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기까지의 해방후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간부로서 활동할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있습니다.》

장편소설은 그가 반영한 시대적배경에 있어서뿐 아니라, 여성혁명가의 전형으로서뿐아니라 조선여성운동의 탁월하고 원숙한 지도자로서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숭고한 품모의 전모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그 이전의 모든 작품들과 구별되며 바로 여기에 또한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작가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개척한 성과가 있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무엇보다도 여성문제의 해결과 여성해방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심장에 받아 안고 불철주야의 혁명활동으로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에서 새로운 큰걸음을 내디딘 소설의 사상에술적성고가 있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정숙동지로부터 나라가 해방은 되었어도 무권리와 불평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있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성문제를 푸는가 못 푸는가에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운명적인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여성문제의 본질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왔고 혁명과 반혁명간에, 진보와 반동간에 치열한 투쟁이 수백년간 벌어졌소. 나는 무장투쟁을 할 때 이미 여성문제란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이며 그들을 착취와 압박,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는 문제라고 보았소. 이번에 녀맹창립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는 그 정의를 형상적으로 여성문제란 곧 모든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으로 키우는것이라고 했소. 수레는 두 바퀴가 다 굴러야 전진하지 한 바퀴만으로는 갈수가 없소. 혁명과 건설도 마찬가지요. 여성들을 아이나 낳고 밥이나 하고 남자의 뒤시중드는 시중군으로가 아니라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담당자로 여기고 품들여 키우는것이 녀맹의 임무요. ...》

여성문제란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는 문제이며, 모든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역군으로 키우는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참으로 일찌기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한 탁월하고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암야의 등불과도 같이 여성문제해결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대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성문제해결의 이 위대한 대강을 밝혀주시면서 녀맹의 기층조직부터 꾸리고

여성들을 녀맹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다음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켜야 한다고 녀성문제해결의 방도까지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2중, 3중의 억압과 불평등속에서도 깨끗하고 근면하고 지조높은 자기의 녀성다움을 잃지 않은 조선녀성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정의감이 나오는 원천은 정이고 사랑이며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가슴에서 솟구치는 녀성의 그 숭고한 사상감정에 맞설만 한 힘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상과 사랑에 접한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온 우주를 받아안은듯 누를길 없는 걱정으로 설레이었다.

이제 또다시 살라고 해도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백두산생활을 하겠다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맹세드린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녀성운동사에 그처럼 거대한 업적으로 새겨질 녀맹조직건설사업에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겨나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녀맹건설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녀사의 혁명활동은 참으로 눈부신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석탄수레를 끌고가는 함덕레의 사연에서 그리고 덕레와 청송의 차이에서 남자들보다 뒤떨어져있는 녀성들의 처지를 보시면서 녀성문제해결의 절박성을 가슴저리게 감수하시었다.

무엇보다먼저 항일의 녀투사들과 함께 곡산공장을 찾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시였을 때 남리에 녀맹조직이 없었던것처럼 여기에도 녀맹초급단체가 조직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한눈에 포착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체없이 곡산공장에 녀맹초급단체를 조직하시고 그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도록 이끌어나가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녀성문제해결에서 주인이 되어야 할 중앙녀맹이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수레하나를 놓고 기러기는 하늘로, 가물치는 강으로, 두더지는 땅속으로 끌어가려고 한 우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분오열되어있는 실태의 엄중성을 헤아리시고 중앙녀맹을 건전하게 꾸리고 녀맹조직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며 녀맹사업에서 나타난 편향도 바로잡아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의 뒤떨어진 사상의 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녀성일군강습소도 운영하게 하시고 녀맹기관지도 창간케 하시며 강연도 조직하시고 몸소 강연에도 출연하시어 녀성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녀성해방사상을 심어주시었다.

다른 한편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새 조국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단련시키고 단합시키기 위하여 몸소 삼을 잡으시고 녀성들을 보통강개수공사장으로 부르시고 평양시대청소사업도 조직

케 하신다.

김정숙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불과 몇달사이에 녀맹은 무려 60만명의 대오로 결속되고 도와 면은 물론 리와 반에 이르기까지 녀맹조직이 정연하게 꾸려짐으로써 민주녀성동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전변의 계기로 될 녀맹1차대회를 가지게 된다. 이 나날에 그이께서는 녀맹강령작성사업도 친히 보살펴주시었다.

마침내 7월 30일,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의 날이 왔다.

8월 1일, 남녀평등권법령발포를 축하하는 평양시녀성들의 경축모임에서 연설하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말자고 하시면서 《력사는 한쪽수레바퀴로만 전진할수 없고 혁명의 기관차는 한줄기 궤도로만 달릴수 없습니다. 녀성들이 그 한쪽바퀴를, 한쪽궤도를 맡아나서야 합니다.》라고 열렬한 호소를 하시었다.

이처럼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민주녀성동맹이 창립되고 남녀평등권법령이 마련된 력사적사변의 나날들을 화폭에 담으면서 수천년을 두고 서리고 맺혀온 녀성들의 세기적념원이 위대한 수령님과 그 뜻을 앞장서 받들어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활동에 의하여 눈부시게 실현되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말그대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일찌기 그 누구도 세계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있어서 그처럼 거대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녀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정치적사변을 문학의 화폭에 담지 못하였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신 궁지높은 우리 조국, 우리 녀성들만이 누릴수 있는 행운이며 우리 주체문학만이 창조할수 있는 장거이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이 거창한 정치적사변을 반영하면서 정치성일면에 치우치지 않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로부터 평범한 로동녀성과 농민녀성에 이르기까지의 인간관계를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운명적관계로 형상함으로써 작품을 생경한 정치소설이 아니라 감동적인 인간학의 화폭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녀류작가가 자기의 첫 장편소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로 된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또한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하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마련해나가시는 력사의 그 나날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녀성들속에 들어가시어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그들을 한품에 안아 훌륭한 녀성일군으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눈부신

활동과 고매한 덕망을 인간학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사회의 최하층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함덕례와 리보부 등이 어엿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나는 뜻깊은 운명전환사라고 할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혼후 탈가를 해버린 남편을 기다려 십수년세월 시집살이를 하고 석탄장수를 하면서도 남편을 만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함덕례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어엿한 녀맹일군으로 키워주시며 로동녀성답게 새 조국 건설의 앞장에 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덕례는 조혼의 폐습으로 15살때 11살난 신랑을 맞아 대 처공부를 한다고 남편이 들구뛰자 시부모를 모시고 빈방을 지키면서 서른이 넘도록 고역살이를 해왔다. 그는 마음속 고뇌를 하소할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를 교회당에서 찾기도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한 덕례를 두고 그들부부의 문제가 조혼의 피해로 인한 부부갈등만이 아니라 녀성문제의 본질이 집약된 하나의 축도라고 보시였다. 마음씨 곱고 근면한 덕례가 그 남편인 박청송이보다 사상문화수준이 뒤떨어지고 넘기 어려운 차이가 생기여 남편의 배척을 받게 된것도 낡은 사회가 들쭉운 사회적불평등에서 나온것이라고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부부의 문제는 녀성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만 풀릴수 있고 덕례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체순으로 자기 행복을 창조할줄 아는 자주적인간으로 키울 때야만이 해결될수 있다고 보시였다.

그런 날을 위하여 어머님께서 덕례에게 기울이신 사랑과 정은 정녕 눈물겨운것이였다.

어머님께서 손수 덕례의 머리를 빗겨주시면서 오늘부터 덕례도 새 출발을 하자고, 장군님의 딸답게 새 나라 건설에 나서자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덕례가 육아원이 아니라 사동탄광 련탄공장의 로동현장에 나가 일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머님의 이 다심하신 사랑속에서 인생막바지에서 시들어가던 덕례는 련탄공장 녀맹초급단체 위원장으로 성장하며 청춘과 사랑을 되찾고 박청송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이토록 놀랍고 눈물겨운 덕례의 운명전환사를 두고 녀성해방을 위해 전반생을 암중모색해온 녀성활동가 현정심은 자기자신에게 웨치듯 남녘땅을 방황하고있을 지성림을 향해 《인생에는 위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한생 모대기며, 피러지게 절규를 하며 찾아헤맨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였습니까!...》라고 마음속의 고백을 하였다.

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을 진두에 모시고 녀성

들에게 힘과 지혜를 키워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어머니로 맞이한 조선녀성들만이 누릴수 있는 영광이고 행복인것이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또한 지지리도 고생하던 개천의 《썩우물집》보부가 김정숙동지의 품속에서 마장리농촌위원회 위원으로, 개천군 마장리 녀맹위원장으로, 도대의원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운명사를 감동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보부는 고씨가문의 민며느리로 들어와 한생토록 불구자인 남편과 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다.

이렇듯 인생막바지에 버려졌던 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땅에서 힘껏 첫해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밀쌀, 보리쌀, 감자를 알알이 골라 장군님께 햇진지를 해드리려고 불원천리수령님저택을 찾아왔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님께서 이러한 보부가 너무도 대견하시여 흰 당목적삼에 썩색뉴퐁치마를 받쳐주시면서 어서 문맹을 퇴치하자고 친히 글을 가르쳐주시였다.

이 순간 보부는 한생 잃고살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찾은듯, 친정집에 온듯 마음은 더없이 흐뭇하고 자기야말로 행복의 절정에 선듯 하였다.

참으로 천대와 멸시, 무지와 몽매로부터 행복과 문명의 상상봉에로의 운명전환을 한 보부의 인생사,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머님의 품속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이 나라 근로 녀성들의 행복의 력사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소설은 가정환경이 복잡한 지식인녀성 윤혜은이 곡절많은 운명의 길을 거쳐 평양시녀맹부원으로 성장하는 과정, 조선의 맑스주의녀성운동자인 현정심이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위원으로 자라나는 과정 등 김정숙동지의 품속에서 녀성혁명가로 성장하는 각이한 운명의 녀성들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현정심의 형상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녀성활동가의 전형으로서 소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정심은 서울에서 량심적인 변호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배화고녀를 다니며 아름답고 행복한 소녀시절을 보냈으며 일본에 가서 대학공부까지 하고 맑스주의에 심취되어 민족해방투쟁에 뛰여든 지식인녀성으로서 주세죽, 고명자 등과 함께 서울장안의 《녀성혁명가 3총사》로 불리우던 녀걸이였다.

그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녀맹건설사상을 받드는 길에서 견결하였다.

현정심은 녀성들도 직맹이나 농근맹에 들어가면 되지 녀맹조직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오기섭의 주장을 우경투항주의라고 단죄하였다.

당시 《정로》사 기자였던 정심은 《녀성운동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우경 투항주의를 논함》이라는 기사를 썼다.

기사를 친히 보아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여성들을 의식화, 조직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독자적인 조직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한 내용은 매우 힘있고 논리가 명백하다고 하시면서 부족점에 대하여 지적해주셨다.

그이께서는 여성들과의 사업은 여성들 자신이 해야 되고 여성운동은 남자들이 대신할수 없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고 좀더 알기 쉽게 풀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었다. 한것은 여성운동은 굴욕적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들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는 운동이기때문에 여성들을 제쳐놓고 그 누구도 그것을 강력한 사회적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기때문이며 여성들의 의식수준이 남자들보다 형편없이 낮기때문이라고 일깨워주시었다.

이 타견에 접한 현정심은 다난했던 자기의 전반생의 총화인듯 진지한 어조로 어머니께 말씀드리었다.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안계시는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인생을 깨우쳐줄 스승이 없이 산다는것은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진정 현정심에게 있어서 김정숙동지는 자애로운 어머니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시었다.

어머니께서는 정심이 장불통으로 수술을 했을 때 수술후에는 잣죽이 좋다고 잣죽을 썰다주시고 손수건으로 손수 눈물도 닦아주시었다.

친부모도 할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앞에 현정심은 인생에는 위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의 결론을 지을수 있었던것이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의 최고귀감으로서뿐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간, 조선녀성의 참된 전형으로서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미덕과 품모를 생동적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은 주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의 귀감,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최고화신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여기서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조선녀성의 전형,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미덕을 정말 인간적항기가 풍기게, 참으로 매력있게 인간학적으로 그리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소설이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인간학적으로 형상하는데서 이룩한 또 하나의 전진으로 된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와의 관계를 수령과 전사의 관계로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관계의 정화로 형상한것이다.

김정숙동지는 참으로 위대한 평민이시었다.

보통아나네들과 같이 양말을 쓰시던 그이께서는 해방은 되었어도 원동의 혼련기지에서와 같이 얇은 군대면내의를 입고계시는 수령님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무슨 마편을 해서라도 털내의를 떠올려야 하겠다고 속구구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밤이 다 지새고 새벽이 되어도 수령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는 밥술을 쓰지 않으시었다.

늘쫘 이러한 녀사를 대하시게 되는 수령님의 마음도 언제나 뜨거움에 젖어계시었다.

소설에서는 여기서 어머니의 손에 아픈 흔적을 남긴 고등어가시에 대한 세부를 눈물겹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이의 손바닥에 퍼렇게 자리가 남은 흠집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었다.

한번은 지방공작 나갔던 동무들이 고등어 한손을 구해온적이 있었다. 끓임없는 행군과 전투로 극도로 피로가 겹치신 장군님께서 입맛을 췌히시여 애태우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색다른 반찬이 생긴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연기가 나지 않는 참나무를 골라 불을 피우시고 고등어토막을 굽기 시작하시었다. 고등어가 한창 구워지고있을 때 《토벌대》 놈들이 숙영지에 기여들었다. 녀사께서는 빠질빠질 뚫어오르는 고등어를 왼손에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권총을 쏘면서 적들을 맞받아나하시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보니 고등어토막을 어찌나 짹 들어잡으시였던지 살은 다 부스러떨어지고 고등어가시만이 그이의 손바닥살속에 박혀있었다. 그이께서는 고등어토막을 날려보낸것이 너무도 분하고 억이 막혀 어느 나무밑에 앉아 묵놓아우시었다. 장군님께서 그이 손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시고 오소리기름을 발라주시면서 그이를 달래시었다. …

수령님께서는 작으나 단단한 녀사의 손바닥을 다시 살펴보시었다. 거기에는 고등어가시가 박혔던 자욱이 헌신의 상징인양 푸릿한 점으로 남아있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허참, 고등어토막을 얼마나 짹 움켜잡았으면 이렇게 되었겠소. 나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언땅을 파헤쳐 풀뿌리를 캐내느라 손끝이 얼어터지고, 숙영때엔 작식준비로 언발을 녹일새도 없었지. 김정숙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김일성**이를 생각할수 있겠느냐 말이요.》

녀사께서는 아니라고, 고생이 아니라고, 다시 산다 해도 백두산생활을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드리였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격하신 심정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저 혼련기지에 있을 때 말이요. 내가 아침 산보를 하고 아무르강변으로 세면하러 나오면 동무는 세면도구와 수건을 들고 강가의 하얀 봇나

무결에서 기다리곤 했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번지지 않고 말이요. 동무의 그 정성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어올린것이지. 정말 고생이 많았소.》

자신을 위해 바치신 녀사의 고생을 평생토록 잊을수 없으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녀성문제해결의 대강을 밝혀주시면서 2중, 3중의 억압속에서도 깨끗하고 근면하고 지조높은 자기의 녀성다움을 잃지 않은 조선녀성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 강의함이 나오는 원천은 무엇이겠소. 정이고 사랑이요. 자식과 부모, 가정에 대한 사랑, 고향과 나라에 대한 사랑,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가슴에서 솟구치는 녀성의 그 숭고한 사랑과 정에 맞설만 한 힘이 이 세상에 나는 없다고 보오.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나에게 그것을 깨우쳐주었고 정숙동무가 나에게 그 진리를 확증해주었소.》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김정숙동지는 가장 충직한 전우이고 동지인 동시에 조선녀성의 아름다움과 녀성해방의 진리를 확증해준 미덕의 정화이시였다.

참으로 소설은 한토막의 고등어에 대한 작은 세부로부터 참된 위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최상의 경지에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조선녀성의 아름다움의 정화로서의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미덕은 그이의 숭고한 사랑관에서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만나뵈왔던 못 잊을 만강의 봄을 그리시는듯 박정애와 현정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어찌저 나는 그날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오빠를 찾은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 부모와 같았으며 그분의 품은 나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그 품에서 장군님의 정을 공기처럼 마시고 밥처럼 먹으며 살았답니다.

난 행복했어요. 굶어도 배고픈줄 몰랐고 찬눈속에서도 추운줄을 몰랐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전투에서 이기고 그분을 받들면 조국이 광복된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습시다.

나는 모든 일에서 장군님을 본받으려고 무진애를 다 썼습니다. 인간으로서나 혁명가로서나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제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제 나의 사랑이었다고 할가, 그저 그래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어느 작가도 김정숙동지의 가슴에 차고넘치는 그 아름다운 인간의 세계를 이처럼 대담하게 그 끝까지 다 헤쳐보이지는 못하였다. 그이도 혁명가이기 전에 참인간이고 녀성이심을 이렇듯 진실하게 그려보이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큰

걸음의 전진이고 비약이다.

그이의 모습이 것처럼 뜨겁고 다정한 정으로 우리 심장을 울린적은 일찌기 없었던듯싶다.

이러한 형상은 녀성고유의 정과 사랑을 심장으로 체험한 녀류작가만이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소설은 바로 이처럼 뜨겁고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의 정과 사랑을 지니셨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덕례와 보부만이 아닌 우리 녀성들모두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줄수 있었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하고있다.

작가는 더없이 소탈하시고 근면하고 평범하신 그이의 풍모에 대하여서도 놓치지 않고 그려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찾은 보부는 자기가 지금껏 허물없이 대해온 너무도 소박하신 그이가 장군님의 부인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랐다.

장군님 부인이 강변의 검댕이 묻은 돌을 닦으시고 터발을 가꾸시며 계사나와 토끼도 기르시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듯싶었다.

소설은 만경대고향집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녀사의 형상을 통하여 만경대가문의 장손며느리로서의 그이의 고매한 미덕도 잘 그려보이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시렁우의 사발들이며 회땀질한 물동이, 구석에 놓여있는 배불뚝이 물드무를 뜨거운 눈길로 쓰다듬으시였다. 물을 몇십번이나 길어야 이 큰 드무를 다 채울가, 이 큰 드무에 새벽물을 채우느라 시어머님께선 정수리머리칼이 성기여지셨다지 않는가. 무심히 대할수 없는 드무요, 츄렁츄렁 차있는 물조차 손대기 저어되시였다. 어찌보면 이 나라 녀인들의 고달픈 인생사가 저 동이와 드무에 응집되어있는듯싶으시였다.

녀사께서는 늙으신 조부모님들의 목메인 부르짖음속에서 이처럼 갈구해오던 시부모님들의 사랑과 시집사람들의 후더운 정을 눈곱이 따갑게 받아안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더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부엌동자일을 하고 작두를 밝아 짚새를 하시였다.

참으로 조선녀성들이 대를 이어가며 꽃피워온 효부의 미덕이, 우리 녀성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할 조선녀성의 아름다운 풍모가 여기 하나의 화폭속에 정화되고 집약되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창조에서 이룩한 이 큰 걸음의 전진은 녀류작가로서의 작가의 감각적섬세성과 지성미가 가져온 귀중한 결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소설의 장면들마다에는 녀성고유의 작가의 섬세성이 풍만하게 숨배여있다.

작가는 《사랑이란 마냥 보고싶고 곁에 있고싶으면서도 정작 만나면 아무 말도 할수 없는것인지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미모는 녀자의 무기요 힘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매력을 의식하는

그 몇해전이더나
아직은 너의 키
내 어깨에도 오르지 못하더니
나무야 너는 자랐구나
오늘은 내 머리에 푸르른 가지 설레이누나

그날도 봄날의 식수절
이 산에 들에 나무를 심던 날
나도 한그루 너의 가지에
너의 이름 나의 이름 함께 새겨진
흰 표쪽을 달아주었지

오늘은 자라
아기의 팔목마냥 어리던 가지
다 자란 아들의 허리처럼 듬직이 자라
그 표쪽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안다
너와 나 끊을수 없는 인연인듯
꼭 감아쥐었던 그 한줄기 실오리는
세월의 바람결에 풀어버린것이 아니라
돌기돌기 너의 몸에
즐기마다 넋륵으로 새겨안았음을

오늘도 너의 뿌리엔
한줄한줄 이 손으로 뿌려준 흙이 간직되어
모금모금 젖마냥 부어준 정성 단즙으로 안아올
리어
너의 즐기줄기로 우거지리
천만일새 푸르려 무성해지리

행복하구나
이 봄에도
너의 가지마다 피여날 꽃송이들
여름이면
너의 록음속에 노래부를 온갖 새들
심어가꾼 나의 이름 몰라도
아랑곳없어도

나무여 내 너를 안고
아니 너에게 기대여 꿈을 꾸고싶노라
네 아릅드리기등으로 자라는 그날
그 어느 탄광의 지하막장으로
지심깊이 이 땅을 떠받든 동발이 되라
그 어느 발전소의 언제와 함께
저 하늘가로 아득히 솟아오르라
아름다운 선경마을 들보가 되라

행복이여라
이 땅 그 어디에 가도
너의 이름 나의 이름처럼
즐거웁게 불리어 울리여갈 때
진정 너의 기쁨 나의 기쁨마냥
이 가슴에 한없이 안아보는
3월에도 이 봄날은

오늘은 식수절
온 나라가 나무를 심는 날
사람마다 이 땅에 심어가는 나무마다
매일의 행복과 속삭이는 날이여라

꽤감처럼 달콤한것은 없으리라.》고 쓰기도 하였다.
이것은 녀성만이 감수하고 체념할수 있는것이다.
어머님과 상봉을 두고 놀라와하는 보부에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끌어당기는
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겁니다.》라고 하시
는 김정숙동지의 말씀, 자기를 배반한 어머니를
원망하고 타매하며 자기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하
는 윤혜은에게 김정숙동지께서 하시는 준절한
말씀 《녀성은 자기를 위해 태어나지 않는다. 살
뜯한 안해로 남편을 가꾸어 내세우고 자식들을 장
하게 키워 나라의 기둥감으로 내세우고 화목한 가
정을 꾸려 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있는 세포를 만들
고, 녀성은 좋아하는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평화
와 화목,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
치는 존재이다.

그래서 혁명은 녀인들을 우대하고 것처럼 존중

하는것이며 그래서 장군님께선 피바다 눈보라 만
리길을 헤치시며 혁명을 해오신거다.》

김정숙동지의 이 말씀에는 녀성의 존재가치와
그들의 해방을 위한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평생의 로고가 심오한 철학으로 응축되어있다.

총서 《총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이 모든 사상에술적성파로 하여 우리 나
라 녀성해방사에 대한 불멸의 화폭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형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한 성과작으로 된다.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는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며 천리마시대의 기수들처럼 조국의 통
성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
을 새기도록 하는데서 우리 녀성들을 힘있게 고
무할것이다.

나의 추억과 현실

김은희

사람은 생활의 뜻하지 않은 계기마다에 과거의 추억과 떼없이 맞다들리곤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개건확장된 중앙동물원을 찾아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서인지 나는 세상 떠난 아버지께 대한 생각부터 하였다.

지나간 유년시절 나는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들었었다.

《애야, 동물원은 세상의 짐승이란 짐승, 물고기란 물고기, 새란 새는 다 있는 세상 으뜸가는 동물들의 락원이란다.》

그리구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동물원을 건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공사에 참가한 아주 뜻깊은 곳이기도 하지.》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것은 몰랐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건설한 동물들의 락원이라는 말마디에 매혹되어 유치원에서 갓 배운 셈세기로 한밤, 두밤을 세며 아버지에게 동물원에 가보자고 조르곤 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체48(1959)년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로서 평양동물원(당시) 건설에 참가하였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건설에 참가하였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중앙동물원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자랐다.

그 동물원이 새 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현대적으로 개건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수 있으랴.

봄꽃들이 첫 잎을 하나, 둘 펼치기 시작한 계절에 나는 유년시절의 추억을 합쳐 그 시절, 그 나이 또래의 딸애의 손목을 쥐고 중앙동물원을 찾았다.

소년시절에 한번 와보고 가졌던 표상과는 너무도 달라진 중앙동물원앞에 서고보니 한없는 감개가 자꾸만 자꾸만 눈앞을 아물아물한 안개발로 덮어버린다. 무엇인가 마음속엔 그들먹이 차오르고.

오늘 나는 여기서 딸애와 함께 저 멀리 가버린 어린시절의 문을 열고 동심을 되찾고싶다.

보는것마다가 발걸음을 잡아끄는 동물들의 락원.

아무리 세월이 무상하기로서니 어찌면 이렇게 희한한 세계가 내앞에 펼쳐졌단 말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평양동물원(당시) 건설공사에 참가했을 때 첫 발파소리 울렸다는 곰산전투장은 어디였을가. 래일을 그려보며, 후대들이 즐겁게 뛰어놀 미래를 그리며 심었다는 나무들은 저 숲 어디에 있을가 하고 바라보니 묵중한 감회가 서리서리 가슴속을 채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즐거운 문화정

서생활을 위해 건설해주신 동물원을 오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동물원으로 개건확장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일 먼저 들리셨던 수족관은 말그대로 하나의 황홀경이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바다와 강, 호수에서 서식하는 100여종에 달하는 물고기류와 거북기류, 바다짐승류가 있는 수족관에는 쌍가시해초도미, 붉은바다거북기를 비롯하여 희귀한 바다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펴고있었다. 이를 소개하는 다매체편집물까지 텔레비존화면으로 볼수 있게 해놓아 후대들의 교육교양에도 이바지하고있었다.

정말 보는것마다가 걸음을 땔수 없게 하였지만 나는 딸애와 함께 범사와 곰사, 마사도 돌아보았다.

구경군들의 이런저런 부름에도 눈 한번 꿈쩍 않고 거드름스럽게 앉아 산중의 왕답게 호기와 위엄을 뽐내고있는 조선범의 기상에도 감탄하고 앵무새사에 가면 작고도 특이한 루키노모란앵무며 분홍가슴모란앵무를 보며 환성을 올리고 맹수사에 가면 또 그것대로 두려움의 경탄을 내지르기도 하는 동물원.

태평양의 바다밑에 들어와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장글속에 있는 짐승과 맞다들리지 않았는가 하는 놀라움도 드는 동물원.

저쪽을 바라보면 구름지대처럼 뽀빠보이는 초원의 방목지가 안겨오고 이쪽에는 갓가지 조류들과 초식동물의 서식지가 펼쳐진 모습이야말로 중앙동물원의 새 모습이었다.

정녕 중앙동물원은 계절을 모르는, 한곳에 《세계》가 모여있는 선군시대의 희한한 문화정서생활기지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건설하였던 옛 동물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세대가 그 시절에 품고 가꾸고 실현한 그 꿈, 그 미래, 그 앞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손길에 의하여 더욱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우리 딸애세대앞에 펼쳐졌거니.

가지가지 희귀한 동물들에게 정신이 팔려 떠날념을 앓고있는 나의 딸애를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사랑하는 딸애야, 마음껏 뛰놀아라. 그리고 똑똑히 보아두거라.

그 티없이 깨끗한 맑은 눈동자에 네가 철들어 처음으로 본 이 행복의 동산을 그대로 담아두거라.

그리고 때묻지 않은 유년의 심장에 깊이 새겨두거라.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우리 인민을 위해 이렇게 희한한 중앙동물원을 마련해주셨다는것을.)

대의원이 나서는 구내

정 문 향

분수를 뿔어올리는
뜨락 한가운데
우리는 푸른 잔디를 깔았다

은행나무 비긴
등그런 야외무대의 높은 정면
우리앞에는
새 공화국의 국기가 휘날리고있다

높은 자랑이
가슴마다 넘쳐흐르는 구내의 광장
우리는 공화국의 최고주권에 나설
우리의 첫 대의원을 여기서 뽑는다

머리위에 휘날리는 람홍색기폭
붉게 타는 오각별
구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속에 놓여있다

구부러진 철근이 녹아내린 재더미속에서
먼지와 독한 냄새
내려쫓이는 불별아래
보이라의 잔해를 모으며
터져나간 류산탕크를 찾으며
우리는 일제가 불태운 이 공장을 세운 사람들

쿵쿵 울려오는
저 기관의 무거운 동력도
날쌔게 돌아치는 조그마한 전동기도
모두다 우리의 뜨거운 숨결이다

넓다란 폭을 울리며 돌아치는 피대
전류를 뿔으며 바람이 푸른 그늘을 스쳐오는
이 구내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들먹이는 가슴으로
귀를 모은다

술한 눈동자와 입술과 손길들이
하나로 고동치는 정숙을 누르며
기압을 높이는 어느 보이라의
묵직한 동음이 울려오는 속에
우리의 립후보는 나섰다

《리진근이!》
누가 웨쳤다
바로 보이라와 함께 살아온 그 이름을
허물어진 공장을 추켜세운 그 이름을

홀러내리는 땀에 젖으며
저 높은 철탑, 녹쫓은 철탑에 낮을 비비며
그는 이 공장을 추켜세운
로동당원의 한사람

수천수만의 동지들속에서 그의 이름은
언제나 도표의 높은 위치에
조국을 위하여 뻗었고
짜내는 실오리마다에
뜨거운 체온을 담아 인민에게 옷감을 주었다

이글이글 타번지는 불길에
고통의 지난날을 태우는
그의 분노와 증오는
지금 터지는 저 동력이 내뿜는 소리

조국의 남쪽 원쑤의 폭압에 시달리는
수만동포들을 가슴에 안으며
쫓아치는 기압에 심장을 대이고
그는 저 철판에 김을 뿜는다

원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위하여!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위하여!
우리는 두손을 추켜들며
그를 내세운다
우리 공화국 최고주권에 나설
우리의 첫 대의원 립후보로

공화국의 영예로운 공민의 권리로
싸워온 우리의 자랑과 결의로
우리는 우리의 로동자의 한사람인
그 이름앞에 구내가 울리는 박수를 보낸다
우리 인민주권의 광휘로운 앞날을 위하여!

주체37(1948)년

나의 추억은 추억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남겨주고 내가 간직한 이 추억도 아름답지만 현실은 더욱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꽃피었다.

그래서 선군시대에 태어난 나의 딸애가 행복한 유년시절에 대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

후날 나의 딸애는 유년시절에 이처럼 희한한 동

물원을 찾았던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인생의 갈피에 두고두고 간직할것이다.

그리고 그 추억을 간직하고서 우리의 자식들이 창조하는 앞날은 더 휘황하고 아름다울것이다. 그 아름다운 추억과 보다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선군시대의 현실이 합쳐져 내 조국에 머지않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게 될것이다.

단편소설의 구성과 세부묘사의 기교

—단편소설 《열다섯번째 해》를 두고—

김 해 월

의의있는 종자와 새로운 성격창조, 참신한 예술적기교의 탐구는 소설에서 특색있는 형상세계를 창조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도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열다섯번째 해》〔백보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7호〕는 세계의 명망높은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가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도에 매혹되어 이 세상 가장 경모하는분으로 우리러 따른 영광의 해들중 열다섯번째 해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여 진실한 예술적화폭을 창조하고있다.

단편소설은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채로운 형상수법과 진실한 예술적해명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수령형상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성과작이다.

소설은 대양과도 같이 넓은 위대한 인간의 품에 대한 감동깊고 의의있는 이야기를 펼쳐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대양과도 같이 넓은 품을 지니신 걸출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소설에서 보여준 새로운 형상세계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작품의 사상주제를 예술적으로 담보한 구성의 묘미의 독특성과 세부묘사기교이다.

창작실천에서 누구나 느끼게 되는것이지만 구성은 작품을 조형적으로 형상하여 진실한 성격창조와 생활의 립체성, 극적전인력을 보장하게 하는 소설창작의 필수적요소이고 본질적수단이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령님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사이의 친분관계를 소재로 하고있는 이 소설은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에 대한 특별편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자가 린저를 취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고있다.

구성조직에서 작가의 기교는 위대한 수령님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님과 린저와의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기자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잘 결합시킨것이다.

작가는 린저가 세계이목을 모으게 될 통일회담

첫날에 김일성주석님께 드릴 축하전보문을 그이께서 서거하신줄 모르고 준비하고있던 극적계기에서 14년간의 추억을 펼쳐며 수령님의 심중의 세계에 대한 묘사와 린저의 극적체험, 수령님과 기자와의 인정적교감과 린저와 기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묘사와 린저의 극적체험세계를 통하여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는 주석님을 만나뵙는 첫순간에 완전히 매혹되어 그이를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분으로,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세명의 대통령을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사라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분이사라는것을 생활로 확증하고 풍부화하였다.

소설에서 기자와 린저와의 관계도 심각한 갈등이 있는 극적인 관계로 특색있게 설정하였다. 작가는 은인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여야 할 그들이 오해를 가지고 적의감을 품고 비방하며 화해할수 없는 심각한 극을 안고있는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소설의 철학적깊이와 극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기자 피틀론(필명 다벤취)이 린저를 취재하는 과정은 서로 적대감을 품고 증오하던 그들이 화해의 길로 운명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극적계기로 된다. 소설은 린저와 피틀론이 자기의 인간적인 결함들을 심각히 뉘우치고 화해의 길로 나가는 과정을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한 깊이있는 실증으로 되게 하였다.

작가는 기자와 린저사이에 오해하고있는 엄혹한 과거를 생활적으로 타당성있게 보여주면서 감정조직을 재치있게 하는데서 기교를 발휘하였다.

기자 피틀론은 린저가 사형선고 받았을 때 그를 목숨걸고 구원해준 리리교수의 양아들이다. 그는 린저가 자기 가족을 체포하도록 《나치스여독청산특별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누구인가의 말을 듣고 적의의 감정을 품고있었으며 그 오해가 풀린 다음에도 생명의 은인을 잊고있는 그에 대해서 용서할수 없었다. 린저 또한 《북면》독설가가 되어 자기를 지긋하게 비난하고 야유하며 헐뜯는 다벤취를 비렬한 인간으로 타매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명의 은인을 감감 잊고있는 린저의 실책을 깨우쳐주시고 다벤취와도 서로 만나 화해하고 벗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시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의 오점을 시정하도록 이끌

어주신다. 또한 피틀론의 양아버지를 인간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믿어주시고 은정어린 말씀까지 해주셨으며 그의 글에 대해서도 야박해보이는 것 같지만 정의감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글이라고 명철한 판단을 내려주신다. 하여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서로의 심장에 박힌 적대감이 서린 가시를 뽑고 반전평화를 위해 한몸바치게 되었으며 김일성주석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게 된다.

구성에서 이채를 띠는 다른 하나는 사진세부들로 영광의 순간으로 이어진 린저의 14년간의 생활을 생동한 표상으로 함축하여 편결시키면서 극성을 강화하고 종자의 무게를 철학적으로 담보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진세부들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첫 상봉순간에 린저가 그이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그와 극적대조를 이룬 웃는 장면, 옥수밭 세부와 린저가 수령님곁에 조선옷을 입고 서있는 세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수령님과의 감격적인 상봉장면이다.

작가는 린저의 류다른 인생 말년을 생동한 표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진세부들을 골라잡고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와 린저의 극적체험을 섬세하게 그려 작품의 일반화의 폭을 넓히고 예술적감화력이 큰 형상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루이저 린저의 첫 상봉장면은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린저는 명망높은 녀류작가이며 2차세계대전시기 옥중에 갇혀 사형언도까지 받고도 굴하지 않고 싸운 불굴의 반파쑸투사이다. 그는 30여년동안 증오와 서리돋은 필봉으로 파쑸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얼굴을 쫓고 허비였으며 날카로운 글공격으로 대통령급의 정객들에게 봉변을 안긴 《부리사나운 철새》였다.

남조선에 못지 않게 조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평양에 온 그는 첫날부터 허물을 들추기 위해 눈을 밝히며 다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넓은 도량으로 린저를 친히 접견하시고 30여년전 쏘련방문기간로 문판으로 읽으신 그의 몇편의 작품들중 《옥중일기》를 기억하시어 그가 그전에 앓던 신장염이 지금은 어떤가고 물으신다.

너무도 뜻밖에 린저자신도 기억에 희미한 하나의 점과 같은 이 작은 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상한 기억력과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린저의 첫 장편소설 《파계》에 대하여 파쑸체제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 강하게 맥박치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옥중일기》의 눈물세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에 있다.

작가는 이 장면에서 생활의 구체적인 계기에서

환기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를 심오히 묘사함으로써 절세의 위인의 비범한 체험과 한없이 숭고한 철학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린저는 감옥안에서 두번 운것을 일생 수치로, 오점으로 생각하고있는 문필가였다. 그것은 약자와 비겁분자들, 너절한 인간이 감옥과 형리들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석님께서 굳이 이 부끄러운 세부를 끄집어 상기시키는것이 린저로서는 몹시 섭섭하였다. 그는 너절하게 감옥에서 온 후로는 사형선고를 받고도 울지 않았고 오늘까지 35년동안 단 한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하듯 격한 어조로 말씀올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린저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눈물을 육체적고통이나 공포감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눈물》이라고 명철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신다.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어머니사랑, 사랑의 극치인 모성애로 눈물의 숭고한 의미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체험과 사색은 더욱 심오한 철학세계를 펼쳐보이고 있다.

《나는 선생이 그런 눈물이 있는 어머니이기때문에 한평생 반전평화의 필봉을 들고 정의롭게 싸울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 문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극적인 눈물에는 인생의 가장 숭고한 시적요소가 집중되어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는 린저가 70고령까지 한생 반전평화의 필봉을 들고 정의롭게 싸울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밝혀져있고 어머니사랑으로 모진 악형과 고통을 이겨낸 인간의 아름답고 고결한 생이 응축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린저를 보니 어머니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세 자식을 고생스레 키우며 나라의 독립과 녀성해방을 위해 싸우신 강반석녀사의 강의한 성품을 회상하신다. 그러시면서 린저도 35년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상 남몰래 혼자서 많은 눈물을 흘리었을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작가는 순간에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게 파고들면서 곡절과 설움으로 이어진 그의 한생을 빛나는 생으로 값높이 평가하시는 위인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일생 가장 큰 울음을 터친 린저의 눈물은 얼어붙은 그의 심장에 인간사랑의 정으로 생의 활력을 부어주신 생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참으로 이 눈물세부는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절세의 위인의 한없이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부각하고 있다.

이 눈물에 대한 세부와 극적대조를 이룬 웃음세부, 그뒤에 그려진 옥수밭세부는 서로 편결되면서 의미심장하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린저에게 뜻깊은 해학담과 력사담, 철학과 문학담을 들려주시며 웃음과 눈물이 인간의 향기임을 깨우쳐주시는 세부는 사랑할 줄 모르고 증오할줄만 아는 그에게 인간의 진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느끼도록 하시는 수령님의 소탈하고도 세련된 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이 세부는 옥수골세부와 련결되면서 작품의 미학적감화력을 높이고있다. 옥수골 어느 돌기와집의 문패를 보시고 왜놈에게 체포되였던 아버지를 구원해준 은인을 찾지 못한것을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린저가 감감 잊고있는 생명의 은인에 대하여 튕겨주시면서 다벤취와도 화해하도록 당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의 세계와 넓은 도량은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는가.

이 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자기를 인도주의자로 자부하는 명망높은 작가에게 있어서 인도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품격이 어떤것인가를 깨우치는 극적계기이다.

작가는 또한 사건세부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와 린저의 극적체험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면서 수령님이시야말로 명망높은 한 인간의 인생 말년의 생을 값높이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심을 격조높이 보여주고있다. 특히 단편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 곁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서있는 린저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사건세부는 수령님에 대한 매혹과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할 녀류작가의 언약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으로 된다.

이 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주체사상의 영향력과 더불어 조선을 칭송하는 그의 글의 신빙성으로 하여 국민의 사랑과 지지속에 대통령립후보로 출마까지 하게 되었고 인도주의문필가로 명망이 더욱 높아지게 될 뜻깊은 사연을 뒤에 깔고있는것으로 하여 진실성과 감동성을 주고있다.

이 세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송시족자앞에 서있는 린저와 회고록을 읽고있는 그의 모습을 보

여주는 장면과 이어져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칭송의 감정을 련상시키면서 전반적화폭을 더욱 립체적으로 부각하고있다.

이 뜻깊은 세부는 린저가 공화국창건 4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의 장면과 이어져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무한한 칭송과 환희와 정서로 승화된다. 그리하여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전인류적인 감정으로 일반화되어 우리들에게 크나큰 격동을 안겨주고있다.

작가는 이렇게 그 어떤 선언적인 설명이 아니라 생활적인 세부와 세부들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이 주옥같은 세부들은 위인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선명하게 부각시킬뿐 아니라 깊은 철학적의미를 띠고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과 여운을 안겨준다.

소설의 형상의 심오성을 담보하는 예술적기교의 탐구에서 주목되는것은 특징적인 묘사수법으로 작품의 진실성과 감동성을 잘 보장한 측면이다.

이 작품은 마감장면을 피틀론의 편지로 인류의 자주위업에 공헌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집약시켜 소설의 감정을 또다시 승화시키고있다.

하여 소설은 평범한 인간인 피틀론의 주정세계와 명망높은 린저의 주정토로가 합쳐져 영원한 인류의 태양에 대한 전인류적인 숭엄한 감정을 화폭적으로 펼쳐보여주면서 예술적감화력이 큰 형상세계를 창조하고있다.

창작에서 작가의 개성적인 예술적기교는 높은 미학적리상과 새로운 예술적형상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작가들은 주체문학전설에서의 해인 수령형상 창조에서 더 큰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더욱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가 사

만대에 빛나리 선군의 전통

강 류 성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선군혁명
결전의 언덕마다 승리를 떨쳤다
아, 선군은 조선의 영원한 전통
선군은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보검

혁명의 나날에 선군이 없었다면
준엄한 시련을 어떻게 헤쳤으랴

아, 선군은 조선의 영원한 전통
선군은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보검

장군님 이끄시는 선군의 내 나라
일심단결 성새로 세계에 빛난다
아, 선군은 조선의 영원한 전통
선군은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보검

눈 빛 의 대 화 의 1 편

주 명 옥

주작봉

너무도 많은 노래
이 통에 실렸으니
내 무슨 말을 삼가 더 하라

빨간 령장 또렷한 새 군복 입고
송엄한 모습으로
투사들 우러르니
아, 그대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본다

그리도 불같이
생을 사랑하던 그대들
너무도 짧은 나이에 한생을 바친
그 높뛰던 숨결 품어안고
고요가 흐른다

허나 그 고요를 흔들면
금시라도 들려올듯
지동치듯 태질하는
백두광야의 그 사나운 눈보라소리
피젖은 가슴 그러천채 쓰러지면서도

목청껏 웨치던 혁명승리 그 만세소리

한조각 얼음을 난알처럼 깨물며
둘도 없는 목숨을 꽃잎처럼 날리며
저 고귀한 모습들이
피로써, 피로써 새겨안은
아, 조국의 귀중함이어

10대 20대 그대들이
목숨과 바꾼 그 진리를
내 군복입은 가슴속에 받아안았기에
마음은 이처럼 넓어지고
더욱 억세여지는것 아니던가
정녕 이처럼 궁지롭고 뿔뿔한것 아니던가

여전히 고요가 흐른다
나도 투사들처럼 말없이 서있다
그러나
조국을 안은 크나큰 인간들만이 나눌수 있는
눈빛의 대화가 오고가노라
아, 주작봉, 혁명렬사룡이어!

나 의 아 가 야

애모쁜 미소를 보내며
일터로 가는 이 엄마 향해
단풍잎같은 작은 손 자꾸만 흔드는
나의 아가야

한달음에 다시 달려와
부드러운 두볼에 입맞추며
고운 손 꼭 싸쥐고
오래도록 함께 흔드는 이 마음
너 아느냐

이 세상 기쁨이고 웃음인 이 엄마
너의 그 행복의 세계를 지켜주시려
최전연전선길로 떠나가신
아버지장군님 생각에 그리도 젖어있는줄...

티없이 맑은 너의 눈동자
순간도 떨어질세라
이 엄마얼굴 찾듯이

아, 그림고그리운 아버지장군님!
그 무한한 그리움의 세계속에
이 엄마마음 뜨겁게 불탄단다

하루만이라도 쉬시옵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소원 뒤에 두시고
낮익은 출근길 가시듯
웃으시며 혼연히 떠나신 그 길
멀고 험하지는 않을가
찬눈비는 내리지 않을가...

방울방울
뜨거움이 맺히는
엄마의 얼굴 또렷이 쳐다보는 아가야
어서 함께 손 흔들자
부디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더 높이, 높이 흔들자 나의 아가야
아, 온 나라가 그 한마음이란다

문학에서 민족성을 살려 주체성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선일

일찌기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옳바로 살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역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 다시금 주체성과 민족성에 관한 사상리론을 심오히 밝혀주시었다.

그리하여 선군문학예술을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로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마련되었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선군문학의 사회적속성을 특징짓는 두 측면으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주체성은 민족성을 전제로 하며 민족성을 잘 살리는데 주체성을 옳바로 구현하기 위한 담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문학의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민족성을 살려내기 위한 몇가지 문제를 언급하려고 한다.

민족적 성격의 창조

문학작품창작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민족성구현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적특성을 살리는데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민족적성격은 오랜 생활과정에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매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다.

조선민족은 인류력사발전의 려명기로부터 한 피줄을 잇고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근면한 창조적활동으로 훌륭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온 지혜롭고 재능있는 민족이다.

이 장구한 기간 독자적으로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고유한 성격적특질을 탐구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문학작품의 민족성구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작품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격적특질을 그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열렬한 애국심과 정의감을 지닌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열렬하며 의로운것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성격적특질이 있다.

열렬한 애국심과 정의감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는 온갖 원썩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원썩들을 물리쳤고 봉건통치배들의 악덕과 폭정을 반대하여 의로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모습도 이를 잘 말해준다.

장편소설 **《판복의병장》**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낸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을 감동깊게 펼쳐보이고 있다.

소설은 나라를 위한 인민들의 우국지성과 높은 충의심은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온 힘의 원천이었다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즉 왜적을 평정한 힘은 결코 정문부와 같은 몇몇 명장들이 아니라 근면한 우리 백성들과 의로운 서민들이었다는 것이다. 소설은 이러한 사상을 주인공 정문부의 시점에서 그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평시에는 자신의 한입조차 호구할 길이 없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백성들이었다. 바로 그들이 왜적이 자기 나라를 분탕질하고 제 동족을 살륙하는것을 보고는 그대로 참을수 없어 스스로 떨쳐나 성새가 되고 산악을 이루었다. 그 길우에서 고생도 많았고 피도 많이 흘렸지만 그 모든 고생, 거기서 흘린 그 진한 피우에서 왜적을 물리친 승리가 마련되었음을 소설은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정의감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최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문학은 이 성스러운 투쟁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훌륭한 민족적성격을 시대적 높이에서 그려내는데 웅대한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격적특질을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량심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품성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사람은 량심에 살고 의리에 산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량심과 의리를 재물이나 권력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설화 《의좋은 형제》는 이러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을 잘 보여준다.

길가던 형제가 금 두냥을 얻었는데 금을 나누어 가지고보니 나쁜 마음이 생겨 형제간의 의리가 상할가봐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 이야기에는 돈이나 재물보다 형제간의 의리를 더 귀중히 여겨온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가 깃들어있다.

장편력사소설 《작품》은 력사에 널리 알려진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량심과 의리를 황금이나 권력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그 일당을 처단하고 정통왕조를 이어놓음으로써 선왕들의 고명을 지켜 충신의 의리를 지키려는 성삼문을 비롯한 충의지사들의 형상을 통해 력사의 작품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참된 의리를 지닌 충신의 이름은 결코 《역적》으로 매몰할수 없다는 심각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상왕복위를 위한 계획이 파탄되어 종당에 다시는 돌아올 길 없는 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성삼문은 이런 시를 남긴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을줄 안 성삼문의 모습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물론 봉건적충군사상에 기초한 충의가 일련의 제한성을 띠는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심중한 력사의 교훈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민족의 고결한 성격적특질이 구현되어있다.

량심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성격적특질은 송죽같은 절개를 지닌 조선녀성들의 고상한 품모를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녀성들은 사랑에서 순결하고 지조가 강하다.

결으로는 유순하면서도 원썬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고 난관과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는 외유내강한 성품을 잘 살릴 때 조선녀성의 민족적성격을 훌륭히 그릴수 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리자면 이외에도 《동방예의지국》에서 사는 인민답게 폐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온 정신, 진리에 대한 탐구심, 뛰어난 슬기와 재능 등을 잘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적성격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단히 변한다.

민족의 고유한 성격적특질을 잘 그리는데와 함께 새롭게 형성되는 민족의 우수성을 찾아내어 성격형상에 구현하는것은 작품의 민족성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근본특징을 이루는 수령흠모,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깊이 파악하고 예술적전형으로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오늘의 시대적높이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을 더욱 훌륭하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민족의 미풍량속과 조국산천의 묘사

문학작품에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미풍량속과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묘사를 잘하는것은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과 함께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미풍량속과 우리 인민에게 낯익은 아름다운 자연풍경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잘 그려야 한다.

미풍량속은 말그대로 민족의 아름다운 생활기풍과 풍속을 의미한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의 생활풍속과 관습에는 그 나라 인민의 생활감정과 고상한 품모를 보여주는 긍정적이며 진보적인것과 함께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의식발전의 제한성을 반영하여 나온 낡고 뒤떨어진것도 있다. 이가운데서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민족의 아름다운 생활기풍과 도덕품성, 세태풍습을 작품에 진실하게 그리는데는 민족성을 살려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그리는데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은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민속명절, 민속놀이, 민족음식, 민족옷 등과 같이 우리 인민의 생활과 떼어놓을수 없이 계승되어온 조선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들은 복잡다단한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생활력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도 자기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장편소설 《김정호》에서는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을 참으로 민족적정서가 짙게 묘사하고있다.

일명 《상원놀이》라고도 하는 대보름명절날 새해의 첫 등근달을 맞이하기 위해 열나흘부터 흥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 보름날 아침에는 《귀밝이술》이라 하여 온 식구가 찬술을 한잔씩 마시고 부스럼 깨우는 과실이라고 하여 밤 세알을 씹어 갠 다음 약밥을 먹었으며 버리지 않고 말려두었던 오이꼭지, 가지겹질, 무우잎 같은것들을 국에 넣어 끓여먹는 모습, 아이들은 숟가락을 놓기 바쁘게 《연떡우기》, 《바람개비놀이》에 여념없고 어른들은 저녁이 다가오면 《달맞이》와 《들불놀이》, 《다리밟이놀이》를 하는 모습 등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소설은 이러한 민족적인 생활풍습을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 대동여지도제작을 위해 가정도 잊고 고심분투하는 아버지를 그리는 딸 술매의 심리적체험과 결부하여 그려냄으로써 산 예술적화폭으로 창조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오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있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잘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다. 이웃사람을 존경하고 남을 위할줄 아는 아름다운 도덕품성은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과 가족생활, 관혼상제 등에 깊이 침투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에서 범벅장면은 민족적생활정서가 얼마나 진하게 안겨오는가.

허기진 배를 달래며 저녁을 독촉하던 원남이는 몇덩이 되지 않는 범벅을 게논 감추듯 먹어치우지만 갑순이는 자기들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한개만 먹고 나머지는 어머니 뛸으로 당반에 엎어두었다가 자리에 누운 어머니에게 준다.

고전적명작은 모진 가난과 주림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돕고 이끌면서 굳세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딸들의 사상감정과 그들의 인정세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그려내는데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세태생활풍습과 인사례절 등을 잘 묘사하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미풍량속을 시대와 사회제도에 맞게 형상하는데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민족의 생활세태와 풍속은 역사적으로 형성된것으로서 시대와 사회제도를 떠나서 있을수 없다. 아무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이라고 해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제도가 바뀌면 변화발전하게 된다.

만약 작가들이 생활의 이러한 논리를 무시하고 봉건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오늘의 현대

적인 생활양식이나 세태풍속을 뒤섞어그리거나 사회주의현실을 그리면서 지난 시기의 세태생활과 풍속을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시대와 사회를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할수 있다.

같은 사회제도하에서 서로 다른 력사적시기의 생활을 반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봉건사회라고 해도 세나라시기의 세태풍속이 고려시기나 리조시기의 세태풍속과 꼭 같을수는 없다. 고구려의 민속명절만 보아도 놀이나 행사에서는 후세의것과는 달리 보다 씩씩하고 활기있는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그리는데서 그것이 당대의 시대와 사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연구고증하고 시대와 사회제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는 미풍량속을 다양하고 진실하게 그려내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묘사를 잘해야 한다.

작품에서 민족이 생존하는 자연지리적, 기후풍토적환경을 실감있게 그려내는것은 민족의 생활방식이나 세태풍속 등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큰 작용을 하며 작품의 민족성을 돋구어주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사실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미적정서는 독특하다. 천태만상의 신묘한 경치를 자랑하는 조국의 자연은 자기의 색채와 음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정서적감흥을 주면서 애국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자연묘사를 잘하여 민족성을 살리자면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인물의 성격적특질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장편소설 《김정호》에서 금강산의 구룡연을 묘사한 대목을 보자.

《구룡대우에서 발밑을 굽어보니 곳곳이 선 절벽밑에 흡사 숟가락으로 호박속을 긁어낸것처럼 새파란 물을 담은 크고작은 동그란 소들이 층층 련달렸다. 마치 그 누가 귀중한 보배구슬을 나는 새도 들어갈수 없는 이 깊은 골안에 올려다 감추어둔것 같은 신비경을 이루었다. 이곳이 먼 옛날 팔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상팔담이다.

골짜기밑에서 메아리쳐 울려오는 물소리는 그 어떤 신비로운 음악소리를 련상시켰고 절벽을 휘감으며 흰 솜같은 실안개가 상팔담과 그우 골안을 가리웠다 열었다 하는 광경은 상팔담의 자연풍치에 양념이라도 치는것 같았다.

구룡대밑을 감돌아흐르는 상팔담물이 나란히 늘어선 푸른 담소들을 지나 〈아차!〉 하는 순간에 한가닥 좁은 흙으로 쏜살같이 미끄러져떨어지는것이 구룡폭포이다.》

나라의 국보인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온

나라를 편답하는 주인공 김정호가 구룡소의 깊이까지 재고 김삿갓과 함께 상팔담을 내려오는 대목에서 제시된 이 자연묘사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그리지 않았다. 소설은 이 나라 강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주인공의 심리적체험과 밀접히 결부하여 금강산의 경치를 그려냄으로써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민족적 긍지를 질게 살려내고있다.

자연묘사를 통하여 인간을 볼수 있고 그의 생활을 볼수 있게 될 때 참다운 자연묘사라고 할수 있다.

민족의 넘과 기상, 민족적향취가 넘치게 자연을 그리는데는 작품에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조국의 산과 들은 우리 민족에 의하여 가꾸어지고 길들여진 민족의 생활터전이고 활동마당으로서 거기에는 민족의 넘과 기상, 향취가 어려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제1부)에서 김산에 대한 묘사는 매우 인상적이다.

마치 장수가 장검을 비껴잡고 서있는듯 한 김산의 주봉, 원쑤와의 싸움에서 장사가 흘린 선혈의 반점과도 같은 산기슭의 진달래무더기들...

김산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자연묘사 그자체로 끝나지 않고있다. 작가는 김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외래침략자들과는 추호의 타협없이 싸워 조국산천을 기어이 지켜내고야말려는 조선민족의 억센 기상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더우기 오랑캐들을 한놈도 이 땅에 들여놓지 말라는 조상들의 당부가 새겨진 창녀암의 검부과 창울에 대한 전설과 한데 어울리면서 애국의 열정이 넘치는 자연의 기상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자연묘사에서는 우리 민족에 의해 정복되고 개조되는 자연,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산천의 모습을 그리는데도 웅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민족의 력사는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여온 력사인 동시에 자연을 정복하고 부단히 가꾸어온 력사이다.

오늘 선군시대에 와서 우리 조국의 면모는 날마다 달라졌으며 조국산천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되었는가.

《선군8경》으로 불리우는 우리 조국의 면모는 얼마나 희한한가.

이러한 경치에 대한 묘사는 단순한 자연묘사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위대성, 선군현실에 대한 격찬과 이어지면서 작품에 시대정신을 뚜렷이 구현하고 민족성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생활의 향취가 풍기고 민족의 기상이 어린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뜻이 깊고 정서가 있게 그려내는 여기에 문학작품에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길이 있다.

민족적형식의 올바른 구현

문학작품창작에서 민족적형식을 옳바로 구현하는것은 문학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키고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을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려면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민족적형식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문학의 민족적형식은 자기 민족의 미감과 요구에 맞고 자기 민족이 좋아하는 형상수단과 수법, 기교를 말한다.

매개 나라의 문학예술은 그 나라 민족이 창조하고 향유하는것만큼 그 나라의 고유한 민족언어와 예술언어를 표현수단으로 삼는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은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담을것을 요구한다.

민족적형식의 탐구리용에서 중요한것은 생활묘사와 구성형식에서 민족적인 특성을 적극 살리는것이다.

중세기의 전형적인 국문소설작품들은 생활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묘사방식에 있어서 주관성이 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달리 말하면 소설속에 시가가 질게 침투되어있다.

고전소설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보면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활을 꼬치꼬치 객관적묘사를 주는 방법으로 그리지 않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춘향의 미를 충분히 감득할수 있는바 그를 둘러싼 생활전반으로써,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적인》 특징으로써 그 어떤 구체적인 소묘보다 더 생동하게 그의 형상을 그려보게 된다.

작가의 설화도 묘사도 내면심리세계의 추구도 맹렬하고 복잡한 이성적분석보다 뜨겁고 절절한 감성화의 결합으로 나가는것은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이러한 묘사방식을 오늘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소설문학의 구성형식을 옳바로 살려내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소설은 구성조직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부선으로 설정하고 횡적으로 폭을 넓게 조성하여 다양한 일화와 세부들을 소묘적으로 편이여 제시하면서 생활의 흐름을 조직하는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설문학은 명백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호를 반영하여 횡적인 폭을 지내 넓혀놓지 않으며 주로 종적인 체계속에서 줄거리를 아기자기하고 명백하게 끌고나간다. 이로부터 구

성형식이 평이하고 명백한것이 특징적이다.

조선사람은 마치 흰 종이에 써놓은 글과 같이 분명한것을 좋아하고 흐리멍덩한것을 싫어하였으며 한가지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사리를 가려도 흑백을 명백하게 가리며 살아왔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족적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조직이 명백하고 평이한것이 우리 나라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있다. 또한 소박하면서도 근면하고 공명과 허례허식을 싫어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소문은 크게 내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실속있게 풀어나가는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취미와 비위에 맞게 구성조직에서 소박하고 작게 시작하여 결말을 크게 처리하는 방식을 즐겨써왔다.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비위에 맞지 않는 이색적인 작품들을 보면 의례히 구성이 까다롭고 산만하며 복잡하다. 그리고 시작은 요란한데 마감은 실속없이 끝난다.

우리는 이러한 구성형식을 배격해야 한다.

특히 부르쥬아지들의 취미를 반영하여 《형식의 유희》를 추구하면서 그 어떤 《예술성》을 획득해보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 소설문학에서는 고진감래식의 락관적결말이라든가 예리하고 침울한 풍자보다 명랑한 해학을 즐기는 일련의 특징을 찾아볼수 있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생활묘사방식과 구성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려나가는데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문학작품에서 민족어의 능란한 활용도 문학의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창작실천에서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언어를 활용하고 살리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민의 감정과 미감에 맞게 말하고 글을 쓰는것이 언어에서 주체를 세우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으로 된다. 그러자면 인민적언어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찾아내어 골라쓰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고유어는 그 민족이 대대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적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가지고있는 언어이다.

우리의 고유어는 어감이 풍부하고 섬세한 정서적인 빛깔을 가지고있으며 표현이 다양하고 말소리의 울림이 아름답기때문에 작품의 형상성과 서정성을 살리는 위력한 언어수단으로 된다.

고유어를 적극 살려쓴 실례를 보자.

《그렇건만 궁인들은 백에 아흔아홉은 그냥 숫것채로 물려나오고말 음식을 상이 날 때까지는 계속 그대로 굵고 볶고 찌고 삶고 지지고 졸이고 끓

이고 부치고 무치고 해야만 하는것이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1부)에서]

궁인들이 음식을 만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작품은 《음식을 만든다》라고 단마디로 규정한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섬세한 뜻빛갈을 가진 고유어를 적극 활용하여 음식만드는 세부를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민족어의 구사에서 성구, 속담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성구, 속담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 세태풍속, 생활경험을 일반화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기호와 언어의식에 맞는 민족어의 고유한 단어결합방식에 의거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진것이기때문에 언어적표현의 민족적특성을 살려내고 작품의 민족적정서를 돋구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냥 낮이 붉어있는 고비에게 올님이 새웃을 입혀주었다.

〈웃이 날개고 밥이 분이라더니 옛말 그른데 없구나, 쫓쫓.〉

새 치마저고리를 입은 고비가 너무도 환하게 돋보여서 누리나는 혀를 내들었다.》

[장편소설 《망이》(제1부)에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속담이 적절하게 리용됨으로써 대사형상을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나게 하고있다.

작품창작에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성구도 적절하게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인민의 오랜 언어생활과정에 성구가 적지않게 씌여졌으므로 그 성구가운데서 우리 인민의 비위와 미감에 맞고 민족적생활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성구를 적절하게 리용하면 작품의 민족성을 살리는데 좋다.

실례로 《선주후면》을 들수 있다.

먼저 술을 마시고 국수를 먹는다는 뜻을 담고있는 이 성구는 우리 나라 중부이북지역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지방사람들의 고유한 식생활풍습을 나타낸 말이다.

우리 나라 중부이남지역사람들은 칼국수를 좋아하는 반면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이북지역사람들은 메밀이나 감자농마로 만든 국수를 즐겨먹었는데 그것도 술을 먼저 마시고나서 국수를 먹는 풍습이 있다.

《선주후면》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들의 사전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이렇게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생활, 세태풍속을 보여주는 성구, 속담의 활발한 리용은 작품에 예술적정서와 향기를 살리는데서 효과적이다.

작품창작에서는 이외에도 민족어의 언어전통을 살려 각종 형용어들, 직유, 은유, 환유를 비롯

후 방 이 아 니 다

리 동 수

자옥한 포연이 아니라
봄아지랑이 곱게 피어도
조국수호전에 나선 병사마냥
우리 가슴 뚫는다

원췌가 비록 눈앞에 없어도
우리는 보고있다
감히 사회주의숨줄을 끊으려
불맞은 짐승처럼 미쳐날뛰는
간악한 원췌의 무리들을

어찌 후방이라 하라
전호가 없고 총포성 울리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지켜선
오늘의 농업전선

쌀없이 살수 없고
쌀이 없이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기에
당은 농업전선에
총력을 집중하자고 호소했거니

한줌의 쌀도 귀중히 나누던
고난의 그 나날들이
다시는 이 땅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총잡은 병사마냥
농업전선의 주인인
우리가 앞장에 섰다

농민이 아니라

한 여러가지 비유법들, 과장법과 반복법, 대구법
과 대조법을 비롯한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적극 탐
구이용함으로써 언어형상에서 민족적성격을 살
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의 민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민족적
형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민족적정서와 미감에
맞는 양상을 적극 찾아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 확고히 서
서 문학의 민족성을 적극 살려 우리 문학의 주체
성을 철저히 세우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선군혁명
문학을 명실공히 주체성과 민족성이 뚜렷이 구현
된 우리 식 문학으로 더욱 개화발전시켜야 한다.

최전연병사의 심정으로 봄씨앗 묻어간다
우리 행복의 열매 무르익혀
내 조국이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날알산 높이 쌓아
체국주의무리들이
다시는 머리들수 없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는 봄노래여도
가슴에 뚫어번지는것은
조국수호의 결사각오
땅크의 조종간인듯
뜨락뜨락운전대 든든히 틀어잡고
깊숙이 논밭을 갈아번진다

이제는 농업전선을
후방이라하는 사람은 없다
높이 솟은 고지는 여기 없어도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화선병사로 우리 살기에

군기마냥 필력이는 붉은기 붉은기
그 세찬 퍼덕임아래
풍요한 가을을 마중가는 가슴마다에
뚫어번지는것은 애국의 더운 피
오, 농업전선
여기는 후방이 아니다

조선속담

근 본 (본 성)

- 굵은 지팽이는 그림자도 굵어비친다
-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 게새끼는 집고 고양이새끼는 활는다
- 나무접시 늦접시 될가
-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장옷
- 논이 있는 뒤에 물이라
- 보리로 담근 술 보리냄새가 안 빠진다
- 돼지는 흐린 물을 좋아한다
- 락락장송도 근본은 종자
- 산살구나무에 배꽃이 피랴
- 승냥이는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



가시오갈피

김 홍 철

1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국해방전쟁이 끝나 해 가을 새 광산을 일떠세우는 개발지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철길에서 100여리나 떨어져 있는 심심산중에 개발되는 광산이었다.

대부분 젊은이들인 개발자들속에서 짝을 못고 첫 살림을 펴는 신혼부부들이 늘어감에 따라 산 딸기와 조팝나무덤불이 우거졌던 양지바른 산 자드락에는 산자벽에 돌기와의 이은 조출한 단칸 집들이 한채두채 모여앉아 오붓한 마을을 이루었고 한해후에 광산에서 첫 광석이 나오던무렵에는 그 집들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것도 그때였다.

광산에서는 전후에 《첫 세대》로 태어난 우리 《한포래동갑이》들을 위하여 탁아소를 지었다. 살림집 서너칸만큼 널찍한데다 앞벽에 붙여서 널마루를 깔아 놀이장을 만들고 아이들이 마당으로 떨어지지 않게 거기에다 나지막한 울타리까지 세워막은, 그때로서는 보기 드물게 번듯한 건물이었다.

그 시절에 있는 일들이 날날이 생각날수는 없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던 키가 흰칠하고 나이가 지숙한 보육원어머니의 모습만은 기억에 남아있다. 어른들은 그를 《티눈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의 오른손 집게손가락마디에 티눈이 배긴 굳은살이 두 개나 큼직하게 붙거져있어 그렇게 불렀다는것을 우리가 안것은 좀더 자란 후날의 일이었다.

《티눈아주머니》는 우리 뒤집에서 살았다. 마을의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지붕에 납작한 돌기와를 고기비늘처럼 촘촘히 이은 단칸집에서 그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조용히 지냈다.

《티눈아주머니》의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매일 탁아소에 왔다.

그 애는 장난이 세웠다. 몸집이 뚱뚱하고 키도 우리보다 한뼘이나 커서 다른 애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울타리를 뽕뽕 넘나들곤 했다. 게다가 우리가 제대로 번지지도 못하는 말마디를 곧잘 입에 올리면서 어른들과 《의사소통》도 했다. 그 애는 우리들속에서 병아리무리에 끼인 몸집 큰 새끼오리처럼 대뜸 눈에 뜨이는 아이였다.

어른들은 그 애를 이름대신에 《가시오갈피》라고 불렀다. 집에 찾아가서는 《애, 〈가시오갈피〉야, 어머니 계시냐?》하고 물었고 탁아소에서 《〈가시오갈피〉야, 우리 아들 잘 데리구 놀아라.》하고 이르곤 했다. 가시오갈피가 새이름인지 물고기이름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도 어른들이 하는대로 그렇게 불렀다.

우리들이 자라서 어머니의 젖냄새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때에도 《가시오갈피》는 젖을 먹었다. 탁아소에서든 마을에서든 뛰놀다가 때없이 제 어머니한테로 뛰어가서는 무릎위에 슬며시 올라앉아 저고리앞섶을 헤집곤 했는데 그런 때면 《티눈아주머니》는 《예구, 우리 명식이 언제면 엄마젖 떨어질가.》하고 핀잔처럼 중얼거리면서도 기다리거나 있던것처럼 얼른 아들을 품어안고 저고리고름을 끄르며 돌아앉곤 했다. 어머니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매달려있던 《가시오갈피》와 덩치도 작지 않은 아들을 그러안고 애뜻한 눈길로 들여다보던 녀인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란 애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그 애도 무척 어머니를 따랐다. 누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온곱지 않은 말이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그 애는 아이든 어른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뿔을 세우며 사납게 대들곤 했다. ...

우리는 뒤이어 태어나는 동생들에게 탁아소를 넘겨주고 그결에 더 크게 지은 유치원으로 《진학》했다.

《티눈아주머니》의 아들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 그는 날마다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리소재지에 있는 학교로 갔다. 《가시오갈피》는 우리보다 몇해 앞서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태어난 《형님》이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유치원이 없어서 우리들속에 끼여서 《탁아소생활》을 했을뿐이었다.

학생이 된 뒤로 더는 젖을 먹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터밭에서 호미질을 하거나 바깥을 들고 우물에 물을 길러 다니는 모습을 자주 띄어보게 되었는데 그런 때면 《티눈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젖을 물리던 때와도 또 다르게 흐뭇한 표정이 비껴있었다.

마가울의 콧은비가 구질구질 내리던 어느날 새벽 《티눈아주머니》는 잠자리에서 갑자기 덮쳐든 동통에 시달리다가 실신한채 마을사람들에게 업혀 위 광산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갔던 우리 어머니가 《가시오갈피》를 데리고오더니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로 보냈다. 울어서 눈이 툭툭 부어가지고 우리 집을 나서는 그의 왼손 가운데손가락에 붕대가 감겨있었다.

《엄마, 〈가시오갈피〉 형 손 다쳤나?》

나의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친게 아니라 제가 우정 베였단다. 피를 내어 앓는 엄마한테 먹이느라구 말이다. 그렇게 하는 법을 어리게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가시오갈피같은 애다.》

나는 언제부터 마음구석에 간질거리던 호기심을 누를길 없어 물었다.

《엄마, 가시오갈피가 뭐냐?》

《약나무란다. 곁에는 누구도 자기를 다치지 못하게 찢러대는 가시가 돋았지만 속에는 약성분이 있지.》

《그런데 어쩌서 명식형 보구 〈가시오갈피〉라구 해요?》

《그 애가 애기적에 되게 앓은 일이 있는데 그 애 어머니가 가시오갈피나무를 꺾어다 달여 먹였단다. 그때부터 그 애를 그렇게 불렀지. 그런 애가 지금은 진짜 가시오갈피처럼 되었구나. 남들이 제 엄마를 어쩌지 못하게 가시를 곤두세우다가도 엄마가 앓으면 저렇게 손가락을 베면서 제가 그대로 〈약〉이 되지 못해 애쓰지 않니. 옛날부터 저런 애를 효자라구 했단다.》

어머니의 말이 어린 마음에도 무심치 않게 들려서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채 굳어져있었다.

그날 《가시오갈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붕대감은 손가락을 쓸어만지며 《형, 아프나?》하고 물었다. 그는 젖은 눈으로 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파. 그렇지만 우리 엄마... 더 아플거

야.》

어른처럼 한숨을 짓고 고개를 들어 창밖의 광산 병원쪽을 내다보는 그의 눈에 금시 눈물이 고여올라 축축히 젖어번졌다.

여러날이 지나서 급성충수염수술을 무사히 치른 《티눈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시오갈피》는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내 어깨를 그러안으며 뽀뽀질을 해댔다.

《성문아, 우리 엄마 집에 왔다. 나 보구싶어서 혼났대.》

《티눈아주머니》와 신통히도 비슷한 가늘사한 눈이 기쁨으로 환히 빛나고있었다. ...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나라의 정세가 팽팽하게 행기웠던 해 봄에 《가시오갈피》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온 마을이 떨쳐나 바래워준 그날 나는 그한테로 달려가서 군복입은 가슴에 들꽃묵음을 안겨주며 《형, 군대복 무 잘하라고.》하고 배웅인사를 했다.

그는 내 어깨를 꼭 그러안으며 애리가 가서지기 시작한 웅근 목소리로 속삭였다.

《성문아, 너도 인제 중학생인데 공부 잘하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자주 놀러가라. 인제부터는... 매일 혼자 지내셔야 하거던.》

내 머리너머로 마을사람들속에 끼여있는 자기 어머니를 더듬어찾는 그의 눈에 이름하기 어려운 다감한 빛이 비껴흐르고있었다.

2

몇해후에 나도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포병대대의 정찰수로 되었다.

내가 상급정찰수로 승급한 해 가을에 대대정찰참모가련대참모부로 소환되었다.

온 대대가 떨쳐나 그를 축하하며 바래워준 이튿날 대대운동장가녁에 세워진 속보판에다 글을 쓰고있던 나는(그때 나는 대대직속 지휘소대의 전투소보원이면서 대대의 직관사업까지 맡아하고있었다.) 등뒤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서는 기척에 고개를 돌리다가 그만 두눈을 홑뜨며 굳어져버렸다. 보기 좋은 중키에 운동선수처럼 체격이 다부진 처음보는 군관이 내가 방금 쓴 속보를 골똘히 들여다보며 서있는데 먹물묻힌 붓으로 툭 찍어놓은것처럼 검질은 눈섭아래 은은한 빛발이 비쳐나오는듯싶은 가늘사한 눈이며 혈색좋은 둥그런한 얼굴이며가 어딘가 무척 낯익어보였다. 나를 마주보는 군관의 눈길에도 놀라는 빛이 어리더니 《야, 너 성문이 아니야?》하는 나직한 탄성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제서야 나는 앞뒤집에서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지낸 장난세웠던

《가시오갈피》의 모습을 알아보고 《형님!》 하고 부르짖었다.

반가움에 겨워 어쩔줄 몰라하는 내 군모채양을 꼭 눌러주며 그는 굴안에서 올라나오는것 같은 웅근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적엔 요만했는데 인젠 어깨를 견주게 됐으니 내 키가 오히려 좋아든것 같구나. 첫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지금 어디서 복무하나요? 여긴 왜 왔구요?》

내가 다우쳐묻자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심상하게 대꾸했다.

《성급한 그 성미는 여전하구나. 나 소대장이야. 너희 대대에 볼 일이 있어 오는 길이다.》

상봉의 기쁨에 들떠있던 나는 그 말을 아무의 혹도 없이 그대로 믿었다.

이튿날 뜻밖의 일이 나를 놀래웠다. 아침 상하준비검열시간에 대대장이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최명식이 새 정찰참모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리고나서 어제 대대에 온 그를 대렬앞에 내세우는것이였다. 정확한 제식동작으로 대대를 향해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하는 그의 얼굴에 담담한 미소가 비껴있었다. ...

병영과 훈련장에서 매일 보게 되는 그의 모습은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하많은 추억을 뇌리에 불러냈다. 그중에도 제일 잊혀지지 않고 자주 되새겨지는것이 자기 어머니가 급병으로 쓰러졌을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먹였던 《가시오갈피》의 모습이었고 그날 어머니가 나에게 《옛날부터 저런 애를 효자라구 했단다.》 하던 말이였다.

최명식은 나에게 아무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훈련에서는 다른 정찰수들과 구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요구성을 높였고 일상생활에서도 남다른 기색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어쩌다 단둘이 맞닿을 때는 나의 경례를 받으면서 넋지시 눈웃음을 지어보일뿐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내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심중의 그리움을 내비친적이 있었다.

그날 보초근무에 나간 나는 근무휴식시간에 보초장한테서 대대직일판이 찾으니 가서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대직일판은 최명식정찰참모였다. 지금껏 따로 불러 만난 일이 없는 그가 무슨 일로 찾을까 생각하며 나는 직일판실로 갔다.

방에 들어서서 규정대로 보고를 하는 나에게 자리를 권한 최명식은 혼연한 어조로 군복저고리를 벗으라고 일렀다. 내가 영문을 몰라하며 군복을 벗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며 물었다.

《근무준비를 하면서 목달개를 갈아달았나?》

어제 갈아달아서 깨끗하기에 그냥 입었다고 자신없이 어물어물 대답하자 그는 느슨히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것 같아서 불렀어. 근무준비검열을 하면서 보니 눈에 알리더라니까.》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눈처럼 하얀 새 목달개와 바느질을 꺼내들고 내 군복에다 갈아달기 시작했다. 내가 달렸다고 했으나 그는 바느질손을 놀리며 말했다.

《그냥 앉아있으라구. 내가 언제 성문의 군복을 손질해보겠어.》

감빛노을이 아름답게 비껴간 한여름날의 저녁에 창밖에서 유정하게 울리는 매미울음소리를 귀결에 들으면서 녀인들이 허를 찌 정도로 한뼘두뼘 꼼꼼히 바늘을 놀리는 최명식의 다부진 손을 지켜보며 앉아있느라니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숙부드러운 감정이 가슴속에 잔물결처럼 일어번졌다.

최명식은 바느질을 하면서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어제 달았어도 근무에 나올 때 다시 갈아달았어야 할걸 그랬어. 어쨌든 하루동안의 먼지가 올랐을게거든. 련대에 있을 때 한 군관이 가까운 부대에서 찾아온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한시간전에 달았던 목달개를 다시 새것으로 갈아다는것을 보구 난 속으로 감탄했어. 군인의 몸차림은 바로 그렇게 언제나 어머니앞에 나서는 자식처럼 흠잡을데 없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때부터 난 매일 어머니를 만나는 심정으로 목달개를 갈아달군 해.》

바느질을 끝낸 최명식은 나에게 군복을 입혀주고 매무시를 바로 잡아준 다음 마주 세워놓고 다시한번 훑어보았다.

《종구만. 인제야 나무랄데가 없는 진짜 병사의 모습이야. 고향의 부모님들이 지금의 성문일 보면 무척 기뻐할거야.》

최명식은 가뜰이나 가늘사한 눈을 더욱 가늘게 쪼프리며 흡족하게 웃었다.

돌아오면서 나는 최명식이 한 말마디를 두고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를 만나는 심정으로 매일 목달개를 갈아단다. ... 그러니 정찰참모동지는 어머니의 젖을 빨고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앓는 어머니를 위해 손가락을 베던 어린 시절처럼 지금도 역시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생각하고있구나.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의 감정이 어떤것인가를 그 순간에 내가 다 깨달은것은 아니였다. ...

레년에 없이 추위가 일찍 닥쳐왔던 그해 어느 초겨울날 새벽 밤새워 강행군길을 달려온 우리 정찰수들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폭이 꽤 넓은 강물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강의 건너편에 있는 목표들에 대한 자리표제원을 측정하라는것이 명령받은 임무였다.

대오는 살얼음이 끼기 시작한 강기슭에서 잠시 주춤거렸다. 교차측지방법을 써서 강 저쪽에 솟아 있는 기점고지에서 자리표를 유도해오면 행군에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강을 헤여건느지 않고서도 임무를 수행할수 있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쓰면 일정한 한계의 제원편차가 생긴다는데 있었다. 자리표의 정확성을 담보하자면 부득불 강을 건너 기점고지에 올라야 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힘들더라도 강을 도하하여 기점고지에 오를것인가, 아니면 교차측지방법으로 최대한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임무를 수행할것인가. ...

한창 론의를 하고있는데 참모부회의에 참가했던 최명식정찰참모가 강기슭에 도착했다.

최명식은 대오가 멈춰선 사연을 알자 미명속에 우렁이 떠돌아보이는 기점고지와 겨울안개가 김발처럼 서려도는 강물의 수면을 서늘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정신들 있소? 제원편차가 생길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몸을 적시지 않으려고 교차측지를 생각한단 말이요? 우리가 사소한 제원편차라도 내서 적들을 명증하지 못하면 살아남은 그놈들이 귀중한 조국과 우리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걸 모르는가? 생각해보시오. 자기 어머니를 해치려는 원쑤가 앞에 있다면 동무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런 놈을 살려둔채 피해서 예돌아가겠는가? 대답해보시오.》

그의 마지막말마디가 얼어붙은 대기를 깨뜨리며 맞은편 강기슭의 절벽에 부딪쳐 튕겨나아가싶더니 찰막한 메아리로 다시 날아와 우리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 순간에 왜선지 《...저런 애를 효자라구 했단다.》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전에 생생하게 되살아올려서 나는 자신도 주위세계도 모두 잊은채 굳어져있었다. 결국 어머니에 대한 정찰참모동지의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보다 신성하면서도 강렬한 그런것이 아닌가. ...

최명식은 선참으로 물에 뛰어들어 살얼음을 부서뜨리며 정찰수들을 이끌고 앞장에서 강을 헤엄쳐건넜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에게게는 최명식이 어머니를 해치려는 원쑤를 살려둘수 있는가고 부르짖던 격한 목소리가 그대로 귀에 들리고 기점고지로 치달아오르는 그의 젖은 군복에서 흘날리던 더운 김발이 눈에 삼삼히 보이는것만 같다.

3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으로 갔던 나는 광산으

로 돌아온지 몇해 지나 최명식을 다시 만났다. 군사임무수행중 허리를 다치고 제대되었던것이다. 내가 광산 탐측과장으로 갓 임명된 때였다.

소식을 듣고 퇴근길에 그의 집에 들리니(광산마을의 단칸돌기와집들을 헐고 두칸짜리 새집들을 들어앉혔어도 우리 두 집은 여전히 앞뒤집이었다.) 군대내의를 입은 최명식이 신발도 바로 신지 못한채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다.

방에 들어가 마주앉아서 그동안의 회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끝에 최명식은 탐측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일했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필경 그의 병을 덧긋히는 결과만을 가져올것 같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탐측과가 어떤덴줄 압니까? 하루에도 몇번씩 사갱과 수직갱을 오르내리면서 막장들을 찾아다녀야 하구 때로는 산을 토폴다니면서 로천조사도 해야 하는데 바로 어제까지 군의소침대에 누워있던 몸으로 어떻게 따라다니냐고 그러니까? 안됩니다.》

최명식은 대뜸 활기를 띠며 내앞으로 바투 다가앉았다.

《그건 넘려말라구. 나도 쉬운 일을 바라는건 아니니까. 자네가 마음쓰지 않게 내 다 따라다니겠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각을 채구 거리를 따지는 일에서는 내가 자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을거야. 나야 포병의 〈눈〉이라고 부르는 정찰출신이 아닌가. 그래서 자네만 승낙하면...》

《글쎄 안됩니다.》

내가 푸뜩없이 잘라매자 혈색종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창백하고 수척한 그의 얼굴에 락심한 기색이 어리고 입술이 실룩거렸다.

《안된단 말이지. 그래도 난 자네를... 자네만은 내 마음을 리해해줄줄 알았는데...》

섭섭한 생각을 감추지 못하며 내뱉는 그의 푸념을 더이상 듣고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여러질것만 같아 나는 피하듯 뒤로 물러앉았다.

《참모동지의 그 몸으로 할만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과 맞서서 돌을 캐여내는 광산에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말구 건강이나 빨리 추세우십시오.》

최명식은 고개를 떨어뜨린채 한동안 그린듯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자리를 일어 밖으로 나갔다.

부엌에서 쫓아나간 어머니와 안해가 어린애를 달래듯 나직나직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최명식의 어성이 돌연 높아졌다.

《그러니 당신 생각에도 내가 인제는 아무 일이나 마음내키는대로 할수 없는 폐인이라는거요?》

아들을 꾸짖는 저으기 엄해진 어머니의 웅근 목소리사이로 안해가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웅색한 마음으로 어쩔지 몰라 주뭉거리며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꺾긋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내 앞에 마주앉았다.

《집에 들어설 때 저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구 〈어머니, 끝까지 군복을 입고있지 못하구 이렇게 돌아온걸 용서하세요.〉 하고 말했네. 제 몸에 입은 상처보다 이 어미가 피로와할가봐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정이 헤아려져서 태연하게 일렀네. 〈고개를 들구 어깨를 펴거라. 방어진지공사를 하다가 굴러내리는 돌을 막아 술한 군대들을 구원하구서 그리된 일이니 널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구 말이네. 하지만 이런 때 마음 기껍구 속 편할 어미가 어디 있겠나. 나도 마음이 무겁네. 뽀뽀뽀해두 아들이 맥을 놓구 아예 주저앉아버릴가봐 근심이네. 어미의 그런 마음을 저 사람이 모르지 않을거네. 사람이 세끼 밥술을 뜨고 숨이나 쉬면 사는거겠나.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구 그저 살아나 있다면 그게 죽은거나 다르게 뵈겠나. 저 앤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있는거네. 그러니 자네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라구. 광산에서 저 사람하구 제일 가까운거야 그래도 자네가 아닌가.》

가늘사한 눈에 간절한 빛을 띠운채 내 손을 당겨쥐며 꼭진하게 당부하는 늙은이의 말을 어떻게 외면한단 말인가.

일이 제대로 뵈려니 근심마시라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나서 밖에 나서니 토방우에 앉아 밝은 달을 올려다보던 최명식이 나를 돌아보았다. 침침하게 빛이 꺼진 그 눈길을 마주보기가 어쩐지 마음 접히어서 얼굴을 돌리며 덤덤히 말했다.

《기업소에는 내가 이야기할테니 입직수속을 하십시오.》

최명식의 눈빛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흥분하는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나는 사뭇 딱딱하게 다짐을 두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건강을 첫자리에 놓는다는 조건부를 잊지 마십시오.》

최명식은 바짝 다가왔으며 내 손을 덥석 그러쥐었다.

《고맙네.》

병은 약 절반, 마음 절반으로 고친다는 말이 그런데 없다. 광산에 나오면서부터 최명식은 나날이 눈에 알리게 건강이 호전되어갔다. 막장길을 걸을 때나 산발을 뚫아다닐 때마다 이따금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뒤질세라 내 뒤에 바투 따

라서는 그를 보면서, 사소한 편차도 없이 정확한 탐측일지를 내놓으며 흡족하게 웃는 그의 병색이 가셔지고 혈색이 오르기 시작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잠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서 빌려간 《암석학》대학용교재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정력에 넘친 모습을 보면서 생각밖으로 건강이 빨리 회복되는데 대해 속으로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그의 청을 끝내 거절했다면 이 사람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을번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며 시련과 난관을 헤쳐가던 《고난의 행군》때 광산부지배인으로 임명되어 사업하던 최명식은 기업소에서 자체로 일떠세우는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책임지고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받아안았다.

누구나 웃음이 적어지고 말보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던 그때 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좌우하는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혈치 않은 과업을 어깨에 걸머진 최명식의 일거일동은 진지하면서도 시종 침착했다.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행정실무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참모부서협의회때였다.

세멘트와 철근을 비롯해서 결정적으로 부족되는 건설자재와 로력문제를 놓고 착잡하게 엇갈리는 주장과 의견들로 분분한 논란이 일어난 끝에 자리에서 일어선 최명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웅근 목소리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들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현재조건에서 발전소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가지만은 명백합니다. 광산을 살리자면 무조건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이 필수불가결의 요구를 우리가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할수 있다〉는 대답이 그 심장에서 반드시 나올것입니다.》

나는 최명식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그가 한 말마디를 속으로 곱씹어보았다. 심장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 심장이 반드시 대답을 줄 것이다. ... 무언가 웅심깊은 의미로 가슴을 두드리는 그의 말 뜻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 말마디가 마음속에 스며들어들었다.

사후후에 온 광산사람들을 놀래우는 일이 생겼다. 최명식부지배인이 콩크리트일체식으로 하도록 설계되어있던 발전소언제기초를 철골방틀식으로 새롭게 창안하고 사리정연한 수문지질학적근거와 빈틈없는 수력학적계산수치로 참모부서 일군들을 모두 납득시켰던것이다.

건설지휘부가 조직되고 구체적인 시공일정이 결정된 그날 저녁 나는 최명식과 나란히 퇴근길

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넋지시 물었다.

《놀랐는데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착안을 했구 또 그 부문의 전문지식은 어느 틈에 공부해두었는가요?》

최명식은 나직이 웃고나서 대꾸했다.

《일을 하자니 책도 보게 되구 이것저것 생각도 굴러보게 되더군.》

잠시 입을 다물고 별이 돌기 시작하는 군청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던 그는 반듯한 이마에 흠어져 내린 머리카락을 버릇처럼 쓸어넘기며 누긋하게 갈았은 어조로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걸머진 어머니가 힘에 부쳐할 때 자식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어린 힘이 나마 부족하면 한결 험할거네. 난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되네. 모든 사람들이 앞에 가로놓이는 난관을 한몫씩 막아나선다면 조국이 겪는 시련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리라고 말이네. 그렇게 생각하니 발전소건설과업을 받아안으면서도 망설이게 되지 않았구 어떻게 해서나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도 생기더군.》

쌀쌀한 저녁바람이 불어왔으나 마음속에 그들덕이 차오르는 감동이 부드러운 온기처럼 온몸을 훈훈하게 덥혀주었다. 협의회때 심장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자기의 말을 그는 행동으로 실천한것이 아닌가. 어머니의 힘겨운 짐을 적으나마 덜어주는 심정으로...

최명식은 착공 첫날부터 완공의 날까지 공사 전 기간을 밤과 낮이 따로없이 작업장에 불박혀 살다 싶이 하면서 건설이 시공일정대로 진척되도록 완강하게 일을 내밀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들과 풀기 어려운 난문제들이 때없이 제기되곤 했으나 그는 결코 당황하거나 조급해하는 법을 몰랐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내놓고는 군대때처럼 《정확히 하시오.》 《빨리 끝내시오.》 하는 짤막한 말마디로 아래사람들을 다잡아주곤 했다.

건설측량을 맡은 내가 어느날 설계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지 못하고 골살을 찌프리며 짜증을 내자 곁에서 측량기를 들여다보고있던 최명식이 슬며시 팔굽을 건드렸다.

《그러지 말라구. 얼굴을 붉히고 서로 다투다고 일이 잘되는건 아니지 않나. 차근차근 일깨워주면 될걸 가지구.》

그날 건설지휘부천막에 단둘이 있는 기회에 나는 언제부터 묻고싶었던 말을 입밖에 꺼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은 부지배인동무를 《가시오 갈피》라고 불렀지요. 자기 마음에 맞갖지 않은 일이 생기면 곧잘 가시를 곤두세우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지배인동무한테선 그 어떤

가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 봐야 사람들을 너무 부드럽게만 대하려 하거던요.》

최명식은 뜻밖인듯 고개를 들어 나를 마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한테서 오랜만에 어릴적별명을 들어보는군. 아닌게아니라 그땐 누가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참지 못하곤 했네.》

최명식은 웃음을 거두더니 용접불꽃을 날리면서 수문조립작업을 한창 끝내가고있는 건설장을 내다보며 담담히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 조국의 운명을 걸구 원썬들과 판가리대결전을 하고있네. 이런 때 신념이 약하고 배심이 든든하지 못하면 별치 않은 일에도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는 법일세. 나는 일이 힘들 때마다 집에서 터발을 가꾸고 손자들을 돌보고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원썬들은 절대로 어머니의 그 생활을 다치지 못하네. 이제 지금 원썬들에게 곤두세우는 나의 마음속 《가시》 일세.》

그는 여전히 언제나 어머니를 생각하며 사는 《가시오갈피》였다. 다만 어린날의 《가시》가 심중에 깊이 묻히고 더욱 굳세어졌을뿐이었다. ...

발전소가 완공된지 두달후에 최명식은 인민경제대학으로 떠났고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서는 광산지배인사업을 맡아안았다.

4

몇해전 여름 성에서 진행된 강습에 참가하고 돌아오니 뜻밖의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최명식지배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나는 친어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이를 못할 비감이 가슴 한구석을 헤집는듯 한감을 느꼈다.

사람이 어렸을 때건 나이들어서건 어머니를 잃는다는것은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나역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에도 생활의 한구석이 비여버린듯 한 상실감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했었다. 하물며 최명식지배인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아마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잃은듯 한 허탈감에 빠져있을지도 몰랐다.

저녁에 최명식지배인이 퇴근해오는 시간에 맞추어 나는 그의 집으로 갔다.

무어라고 할 말을 고르지 못해 한동안 입을 다물고있다가 마디마디 더듬어가며 위로의 말을 하자 최명식은 인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어머니를 찾는듯 새삼스러운 눈길로 방안을 서름서름 둘러보다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겠나. 누구나 생에는 한계가 있는걸. 하

지만 숨이 텃구 눈을 감았다구 사람이 아주 죽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네.》

날이 꺾히려는지 먼 우뢰질소리가 들리더니 눅눅하게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열어젖혀놓은 창문으로 불어들었다.

《어렸을 때 난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인줄로만 생각했었네. 어머니가 있어서 하늘도 땅도 있고 고운 꽃도 피구 새소리, 물소리도 즐겁게 들린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걸, 나를 낳은 어머니가 결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걸 어머니 자신이 나한테 깨우쳐주질 않겠나. ...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창친구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나는 망설였네. 어머니와 떨어지게 될 일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집에 혼자 남게 될 어머니가 걱정스럽고 마음놓이지 않아서였네.

〈너 왜 군대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니?〉 하고 묻는 어머니에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네.

〈내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 적적해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나무도 패고 집도 손질하고 또 앓을 때 물 한그릇 떠다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지 않아요.〉 하고 말이네.

어머니의 얼굴이 흠뻑으로 킁킁하게 질리더니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꺾어 들고 들어왔네. 〈종아리를 걷어라. 시라소니같은 녀석!〉 하고는 사정없이 후려치더군. 나는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사려물었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내가 조금만 앓음소리를 내도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 못했으니까. 떨어지는 때를 고스란히 맞으며 속으로 설분을 토했네.

〈지금껏 매 한개 들어보지 않은 어머니가 오늘은 왜 이러는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해요?〉

어머니는 나중엔 자기 다리도 치기 시작했네.

〈아들을 이 꼴루 키웠으니 어미도 맞아야 한다.〉 하면서 말이네.

내가 맞을 땐 이발을 앓다물구 참았지만 어머니의 다리에 가로세로 엇갈려 검붉게 부풀어오르는 회초리자국을 보고서는 더 견딜수가 없어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구 울면서 팔에 매여달렸네. 어머니 회초리를 떨구더니 나를 껴안구서 참았던 눈물을 쏟더군.

그날 저녁 어머니 피가 진 내 다리에 입김을 불어가며 약을 발라주었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날에야 나는 어머니가 가슴속에 안고 있던 사연을 알게 되었네. ...

해방전에 어머니는 자식 넷을 낳았지만 하나도 살려내질 못했네. 하나는 굶어죽었구 둘은 홍역을 앓다가 죽었구 마지막아이는 오막살이에다 눅혀놓구서 밭일을 나간 사이에 집안에 기여든 뱀한

테 물려 죽었다네. 그 애(귀여운 딸이었다더군.)를 산에다 묻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어디 가서 독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들어와서는 노전바닥을 두드리며 무자식의 기구한 신세타령을 하다가 옷도 벗지 못하구 쓰러져버렸다네. 하도 속이 타구 아버지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어머니 이튿날 읍거리에 사는 의사령감한테 찾아갔네. 자초지종 사연을 듣고난 령감은 어머니한테 자식복이 태우질 앓았다면서 단산하라고 권고했네. 그러다가 락심한 어머니의 얼굴 보기가 딱했던지 정 자식이 그리우면 하나 더 낳되 아이가 앓으면 가시오갈 피나무를 꺾어다 달여 먹이라구 일렀다네. 〈그게 령험한 나무여서 꺾을 때 낮이나 도끼 같은 쇠붙이를 쓰면 약의 효험이 물로 되고마네.〉 하고 다짐까지 두면서. 어머니 아이낳는걸 단념하고말았네. 자식 하나 마음놓고 낳아 키울수 없는 자기 운명과 세상을 저주하면서 말이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없이 해방을 맞았네. ... 세월이 좋아지면서 아버지는 자식 하나 두었으면 하는 자기 속생각을 내비치곤 했지만 어머니 그때마다 웃곤 했다네. 이제 나이 다 든게 망칙스럽게 아이를 낳겠는가고 생각했었지.

그러다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네. 아버진 마을에서 선참으로 인민군대에 탄원했네. 어머니 생각이 많았네. 집에 혼자 남을 걱정보다도 전선으로 떠나는 아버지한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그런 일을 해주고싶어서 말이네. 진종일 생각하다가 저녁에 아버지에게 〈나 아이를 낳겠어요.〉 하고 말했다네. 아버진 〈그게 정말이요?〉 하고 놀라더니 좋아서 어쩔바를 몰라하며 어머니를 꼭 껴안아주었다네. 이듬해 어머니 얼굴이 둥그럼하구 몸집도 실해서 꼭 아버지를 닮은 사내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나였네. ...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인차 회답이 왔다네.

〈여보, 고맙소. 당신의 편지를 보구서 《아바이상등병》한테 경사가 났다구 온 중대가 기뻐했다오. 아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심정으로 미국놈들을 쳐엎애는 싸움에서 내 한몫 아끼지 않겠소. 승리하고 돌아가면 애를 마음껏 안아볼수 있게 잘 키워주요.〉 이렇게 쓰고는 내 이름을 지어보냈다네.

하루하루 젖살이 오르면서 재물을 부리구 걸음마를 떼는 어린 나를 보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주고 기뻐할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네. 그런데 무탈하게 잘 자라던 내가 하루는 집앞에 있는 작은 개울에 나가 놀다가 들어오더니 젖도 밥도 안 먹구 열이 나면서 앓기 시작했다질 않나. 속이 철렁해서 이 약, 저 약 찾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입술이 까맣게 타들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 못해 나중엔 울지도 못했다네. 더구나 배까지 점점 부어올라서 남산만 해지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수 없었다네. 눈앞이 캄캄해나서 앉아있느라니 읍거리의 형감이 애가 앞으면 가시오갈피나무를 달여 먹이라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네.

어머니는 자리를 차고일어나 산에 올랐네. 허겁지겁 헤매다가 허리춤에나 오게 자란 가시오갈피 나무앞에 서고보니 눈물이 날것처럼 반가왔다네. 숨털같은 잔가시가 한벌 내뿜은 나무를 무작정 덥석 움켜쥐다가 따끔따끔 찢러대는 아픔에 그만 손을 움츠러뜨렸다네. 나무를 찍으려고 돌맹이를 찾아들었지만 쇠붙이를 쓰면 약의 효험이 없어진단던 형감의 말이 돌도 쓰면 안된다는 소리처럼 귀전을 쳐서 도로 내던졌다네. 치마폭으로 나무를 감싸쥐었지만 어쩐지 아들에 대한 지성이 뚫은 처사인것만 같아 맨손으로 다시 움켜쥐었다네. 독심을 사려먹어서인지 손바닥을 찢러대는 아픔이 처음보다 덜한것만 같았구 오히려 따끔따끔한 그 아픔이 아들의 병에 효험이 될것처럼 마음속에 한가닥 위안으로 느껴지기조차 했다네.

하지만 그렇게 애써 꺾어다 달여 먹인 가시오갈피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네. 내가 방금 먹은 약을 죄다 토하더니 눈자위가 돌아가면서 기신없이 늘어져버렸다는거네. 정말이지 끝내 아들을 잃는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득했다더군. ...

어머니가 나를 불안구서 <명식아, 너 왜 이러니, 정신차려라.> 하구 울고있는데 늙수그레한 리서기장이 흰 위생복을 입은 사람과 함께 집에 찾아왔다네. 위생복입은 사람이 나를 진찰해보고 무슨 약을 먹였는가고 묻더니 <가시오갈피엑스가 소화기관이나 신경계통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병에 약인것만은 사실이지만 지금 아들의 병에는 그 약이 통하질 않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네. 어머니는 아들을 아예 잃을것만 같아 못 보내겠다고 막무가내로 떼질을 썼다네.

리서기장이 달래이듯 부드럽게 말했다네. <아주머니, 이젠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이웨다. 장군님께서 미국놈들이 뭇군 세균탄때문에 인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지 않는다고 심려하시면서 인민정권기관과 의료보건기관, 인민군대 군의소들에서 피해입은 인민들을 한시바빠 치료할데 대하여 긴급지시를 내리시였수다. 집의 아이도 세균탄피해를 입어서 앓구있수다. 그러니 어서 병원에 보내서 애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소.>

어머니는 놀랐네. 누구나 전쟁의 승리만을 생각

하는 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낱 산골아이의 작은 생명까지도 심려하시며 보살펴주시니 눈물이 났네. 그분의 손길에 맡기기만 하면 내 아들도 꼭 살아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는 나를 돌쳐업고 그들을 따라나섰네. 다 죽었던 내가, 자식복이 태우지 않았단던 어머니의 몸에서 다섯번째로 태어난 이 아들이 그렇게 다시 세상빛을 보게 되였네. ...

그 일이 있은 뒤 마을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하면 웃으면서 <가시오갈피> 라고 불렀는데 어머니는 그 별명을 타하지 않았다네. <애, 가시오갈피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후더욱게 가슴속에 차올랐구 손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면서도 (다 뽑지 못해서 두개는 끝내 리눈으로 남았지.) 어떻게 해야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한 생각만을 했다네. 그래서 광산이 개발될 때 어머니는 자원해서 탄아소일을 맡아나섰네.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보육원의 자질이 있었겠나. 그저 애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자라는 나라의 아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은 일에 성심을 다하느라 애썼다네.

젖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어서 다 자란 나한테 늦게까지 젖을 물리면서 기다렸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전사통지서만 왔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아버지에게 다짐했다네. <여보, 아들과 가정을 품어주는 조국을 지켜 당신이 목숨을 바쳤다는걸 나는 알아요. 명식이라도 당신처럼 키우겠어요. 나라를 지키고 받드는 길이 곧 가정과 자기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가꾸는 길이라는걸 깨닫도록 키우겠어요.> 하고 말이네. ...

이야기를 마치면서 어머니는 말했다네. <명식아, 조국은 너한테도, 너를 낳은 이 어미한테도 어머니이다. 나라의 은덕으로 너는 두번다시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자랐구 나 또한 자식을 낳아 키우는 락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고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이 어미를 위해선 손가락을 베였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한몸을 통채로 내대야 한다. 미국놈들이 간첩배까지 들이밀면서 미쳐날뛰고있는 때에 생명을 구원해준 고마운 조국을 지킬 생각은 앓구 집안에 들어앉아서 어미걱정이나 한다면 그처럼 쓸개빠진 못난이짓이 어디 있겠니. 네가 진정 어미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처럼 나라를 받드는 길에서 남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

나는 이렇게 되어 군대에 나갔네. 그날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 가슴속에 비문의 굴밭처럼 깊이 새겨졌네. 군사복무의 나날에 어머니의 모습

을 그려보느라면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우리 가정을 보살피고 지켜주고 행복을 안겨준 조국의 고마움이 가슴에 사무쳐왔구 원썬들의 도발로 정세가 긴장해질 때면 조국을 지키는 길이 곧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각이 무쇠처럼 굳세게 심신을 다잡아주곤 했네. 그렇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어머니가 따로 떨어져있질 않았네. 지금도 나는 우리 조국이 굳건하기에 나의 어머니의 생도 결코 끝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비방울이 듣기 시작하는 창밖을 내다보는 최명식의 얼굴에 미소가 비껴흐르고있었다. 비감을 애써 감추려고 억지로 지어보이는 어설픈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비치는 심중의 빛살이 그대로 어린 은은한 웃음이었다.

나는 최명식의 책상우에 서있는 자그마한 사진 액틀속에서 어린 아들과 나란히 앉아 웃음을 머금고있는 젊은 시절 《티눈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념에 빠져들었다. 창밖에서 점점 높아지는 비소리속에 지금껏 뇌리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고있는 최명식의 말마디들이 귀전에 들려오는듯 싶었다. 매일 어머니를 만나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해치려는 원썬을 살려둘수 있는가. ... 어머니가 힘에 부쳐할 때 자식들이 어린 힘이나마 부축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를 낳은 한 어머니만을 녀두에 둔 말이 아니었다.

5

나이 원고개를 넘어서고보니 지나온 한생을 두고, 인제 남은 인생길을 두고 자연 생각이 많아진다. 의기와 정력에 넘치던 젊은 시절에 보다는 의의있고 보람있는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 인제부터라도 시간을 아껴가며 후날에 값있는 추억으로 남을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해야겠다는 의욕과 분발심...

올해초에 기업소구역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석동골에서 품위높은 광맥의 지질단서를 쥐었을 때에도 나는 그런 의욕에 사로잡혀 흥분했었다. 새 광맥이 확증되지만 하면 석동골에는 큼직한 하나의 광구가 들어앉게 될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몇몇한 추억으로 나의 인생을 수놓게 될것이었다.

나는 여러날동안 부서성원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문건과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지배인방으로 갔다.

한식경이나 말없이 내가 내놓은 조사자료와 지질도면을 간간스레 따져본 최명식은 잔뜩 긴장해있는 나를 웃는 눈길로 돌아보았다.

《종구만, 이번에야말로 판록있는 탐측과장답게 큼직한 맥을 찾아냈어.》

나는 《인생의 추억이 될수 있게 나도 큰일 한가지 해놓자는거우다.》하는 말이 나오는것을 눌러삼키며 혼연스레 대꾸했다.

《물속의 고기야 잡아놓고봐야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알수 있지요. 어쨌든 탐맥굴진이나 빨리 조직해주시우.》

최명식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직해야지. 자네가 책임지구 나가서 본때있게 내밀어보라구.》

며칠후 탐사중대가 현지로 떠났다. 나도 굴진시공을 책임지고 함께 떠났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시작했던 석동골탐맥굴진이 두달후에는 곤경에 빠져들었다. 예견했던 착맥지점을 훨씬 지나 뚫고들어갔는데도 광맥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암질만 점점 더 복잡하고 불리해지는데였다. 굴진을 계속하자니 끝이 보이지 않는 일에 한정없이 들어갈 로력과 자재보장문제가 난감했고 중단하자니 지금까지 소비된 굴진원가에 대한 처리와 책임문제가 심각했다. 지배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자리를 비운 때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 혼자서 결심을 세울수가 없었다.

성에서 내려온 일군이 석동골현지에 나왔을 때 나는 탐맥굴진의 실태를 설명하고나서 속생각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굴이 깊어질수록 굴진조건이 점점 불리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탐맥굴진에 로력과 자재를 더 들이밀자면 부득불 기업소의 현행생산에서 떼내는수밖에 없습니다.》

40대의 젊은 지도일군은 내 말이 리해된다는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행생산에 지장을 주어서야 안되지요. 과장아바이생각엔 어떻습니까, 성에서 로력과 자재를 보장해주면 성공할 가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막혔던 숨구멍이 열리는감을 느끼며 쾌히 응수했다.

《가망이 있구말구요.》

일군은 성에 올라가 토론해보겠다면서 떠나갔다.

그날 밤이 퍼그나 깊어서 뜻밖에도 최명식지배인이 석동골에 나타났다.

《얌은 몸으로 웬일이시우, 이 밤중에?》

내가 놀라서 물었으나 그는 신열과 동통을 참는듯 한동안 입을 다물고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생산지도성원한테 로력과 자재를 달라구 요구했나?》

나는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들고 물고뿌를 당겨주는 그를 불안스레 지켜보며 대꾸했다.

《요구한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기

에 그해주었으면 좋겠노라구 했지요.》

《그게 달라는거지 뭐가. 그가 병문안 겸 병원에 찾아와서 말을 꺼냈을 때 난 수치를 느꼈네. 우리가 먹은 나이가 적어서 아직도 나라에 손을 내밀면서 일을 해야겠나?》

그가 밤길을 달려온 까닭이 비로소 깨달아지자 나는 이름 못할 야릇한 불만이 가슴밑바닥에 고여 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도 그러고싶진 않았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로력과 자재문제가 걸리는데 그걸 해결할 용빼는수가 있어야지요. ...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난 많은 일을 해놓은 지배인동무가 부럽수다. 광산의 모든 갱, 직장들을 개진확장해서 생산능력을 훨씬 높였구 문화후생시설들도 새롭게 꾸려서 기업소의 면모를 일신했지요. 지배인동무가 창안해서 선풍직장에 도입한 산화처리공정은 경제적으로 실리가 큰것으로 평가받구 성적인 방식상학까지 하지 않았는가요. 그런데 난 별로 해놓은 일이 없이 나이만 먹었수다. 그래서 이번에 석동굴탐맥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성사시켜야겠다구 마음을 다져먹고있수다. 더 늦기 전에 나도 후날 젊은 사람들한테 떼떼이 이야기해줄수 있게 큰일 한가지 해놓고싶단 말이우다.》

최명식은 식은땀이 흥건히 내뻘 이마를 손수건으로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그게 아니야. 사람의 한생은 해놓은 일에 대한 추억으로 값이 나가는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진정을 다해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마음으로 떼떼하구 빛이 나는걸세. 나라에서 긴요한 일에 쓰는 로력과 자재를 돌려서 탐맥에 성공한다고 한들 그건 나라를 받드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라의 덕을 바라는 처사로 될걸세.》

준절하게 말하던 명식은 동통이 오는지 심장부위를 거머쥐며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알수 없는 죄책감으로 속이 졸아드는것을 느끼며 그앞으로 다가앉았다.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조치할테니 마음쓰지 말구 어서 돌아가시우. 옛날부터 아이는 키워도 병은 키우지 말랬는데 그러다 병이 고향에 들면 어찌시려우?》

최명식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자네같이 펄펄한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구 어떻게 병원침대에 누워있는단 말인가.》

이튿날 아침 막장으로 들어갈 차비를 하는 최명식의 손에서 안전모를 얹으며 나는 진심으로 짜증을 냈다.

《이러지 마시우. 누굴 허재비로 아시우? 시키는대로 내 다 할테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일이 비뚤어지지 않게 신칙이나 해주시우.》

최명식은 잠시 내 얼굴을 지켜보다가 안전모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어서 그걸 이리 내게. 로동자들을 만나봐야 할게 아닌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자구. 지금 로력과 자재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는 그 길밖에 없네.》

막장을 돌아보면서 굴진실태와 암질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최명식은 병중에 있는 사람같이 않게 험험한 기색으로 광부들앞에 나섰다.

《동무들,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당에서는 이 보람찬 투쟁에서 전체 인민이 애국적열의와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앉아서 기다린다고 결코 저절로 열리지 않으며 그 누가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체힘을 믿고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우리들자신의 손으로 열어제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탐맥굴진도 바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시오. 이 투쟁에서 난관이 막아선다고 물러서야 하겠는가 아니면 난관을 박차고 일어나 기어이 광맥을 찾아야 하겠는가. 과연 어느 길이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서는 길이겠는가, 대답해보시오!》

그의 격한 목소리가 끝나기 바쁘게 막장을 울리며 호응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지배인동지, 우리 힘으로 탐맥에 성공하고야말겠습니다.》

《굴진을 계속합시다.》

《자재예비는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

최명식지배인이 광부들앞에서 한 호소가 알려지자 온 광산이 떨쳐나섰다. 기동예술선동대가 달려오고 후방물자를 실은 자동차에 광산일꾼들이 타고 지원을 나옴과 갱, 직장들에서 내부예비로 찾아낸 자재들이 실려왔다. 기세충천한 열의속에 굴진속도는 곱절이나 높아져서 20일만에는 드디어 품위높은 새 광맥이 우리앞에 제 모습을 드러냈다. 최명식은 앓는 몸에 빈손으로 석동굴에 왔지만 조국을 받드는 순결한 마음속에 내가 그토록 고심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로력도 자재도 모두 안고와서 성공의 날을 앞당겼던것이다. ...

기업소로 돌아가는 날 최명식은 자기를 태우러 오게 되어있는 생산지휘용승용차를 보내지 말라고 전화로 이르고나서 웃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산길로 걸어서 가세. 오늘은 어쩐지 자네와 함께 오랜만에 산을 뚫아보고싶구만. 군대때처럼, 탐측파시절처럼 말일세.》

패청한 날씨였다.

맑게 개인 하늘가에 거악하게 키를 솟군 산발들

내가 잘 아는 사람

조 광 원

특류영예군인의 집이라고
늘 손님이 많은 우리 집에
오늘은 류다른 손님들이
하얀 이동선거함
정히 두손으로 내앞에 놓아준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건만
생각은 자유로이 물결쳐간다
동등한 공민의 자격을 주려
나의 의사를 묻는 선거위원들

《김춘복》

나에게는 그 이름이 생소하다
그렇다고 내 진정 그를 전혀 모른단 말인가
구배 심한 언덕길 나의 삼륜차를
웃으며 밀어준 고마운 사람들
그속에 그가 없었던 말인가...

나에게는 그 이름이 생소하다
허나 매일 매 시각
내 몸에 와닿는 사회주의시책
없이는 못살 공기처럼 느껴져

아침저녁 나오는 맑은 수도물
달마다 공급받은 소담한 닭알
나의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주는 고마운 선생
님들
나는 언제나 후더운 숨결을 느끼며 살거니
인민의 대의원, 바로 그 숨결속에 그가 있어라

앞으로도 못 만날수 있으리
자신을 내세울줄 모르는 사람들
누구보다 많은것 알고있건만
제 자랑 하나만은 배워두지 못한 이들

아, 《김춘복》
나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안다
말은 일에 언제나 책임적인 그
대고조의 앞장에서 오늘도 돌파구를 열어갈
그는 인민의 성실한 총복
우리 장군님의 참된 딸
그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제일 가까운 친혈육처럼
하여, 나는 그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친다



은 바야흐로 다가오는 초여름을 맞아 한껏 신
록이 짙은데 상쾌하게 폐부를 찌르는 담박한 꽃
향기, 풀향기가 골마다 가득차흘렀다. 숲그늘에
숨어앉은 풀벌레들이 청을 돋구어가며 색깔도 크
기도 각이한 소리로 극성스럽게 울어댔다.

앞서가던 최명식이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길옆
의 수풀속에 못나무들과 어울려 서있는 사람의 키
만 한 나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갔다.

《이걸 보게. 여기 가시오갈피가 자라고있구
만.》

나를 돌아보는 그의 얼굴은 젊음을 되찾고 갱소
년한듯 그늘 한점 없는 맑은 웃음으로 환히 빛나

고있었다.

그의 곁으로 다가간 나는 나무줄기를 한벌 덮
은, 만문하고 부드러운면서도 손바닥을 따끔따끔
떨러대는 잔가시를 조심히 쓸어만져보았다. 다섯
개가 한데 모여붙어 짙은 손가락처럼 신묘
해보이는 푸르고 투명한 잎새들이 해빛을 가리우
며 아지를 뒤덮고있었다. 불어오는 미풍에 가볍게
흐느적이는 잎새들이 속삭이는듯만싶었다. 자신
의 행복이 귀중하거든 조국을 사랑하고 받들라,
어머니를 존경하고 효성다해 모시듯이... 하고.

최명식은 잎사귀 하나하나를 매만지며 어딘가
하늘가 멀리를 미소하는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앞치마

김기범

우리는 생활하는 과정에 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현상이나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감명속에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나는 인민군군관에게 시집간 누이동생이 새살림을 시작한 집에 들린적이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동생이 반겨웃으며 나를 맞이할 때 내 눈뿌리를 파고든것은 그가 두른 앞치마였다.

왜서인지 그것이 내가 누이동생을 이전과 같이 가볍게 대할수 없는 별스런 감정을 자아냈다.

처녀시절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 동자질을 할 때에는 대견하고 고와보인다는 인상밖에 받은것이 없었는데 그날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부엌에 선 그를 보니 새삼스러운 무게가 느껴지였다.

《네가 그렇게 앞치마를 입고있는것을 보니 어쩐지 어려워지는구나. 갑자기 큰 어른을 보는것 같은게...》

내 말에 동생은 귀엽게 웃으며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가져갔다.

《나도 그래요. 어쩐지 이 앞치마를 띠고나서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나선 의무를 다할수 있겠는지 해서 말이에요.》

조용히 말하는 그의 눈길에는 군인가정의 주부된 무거운 책임감과 그로하여 생겨나는 조심스러운 근심이 어려있었다.

《오, 그렇지!》

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같은 소리를 내었다. 그 제서야 조금전 동생을 처음 대할 때부터 생겨나던 류다른 느낌이 무엇때문이었는가가 확연히 안겨왔기때문이었다.

사실 저 앞치마는 여성들의 몸맵시를 조화롭게 돋구어주는 화려한 외출복도 아니며 늘 가지고다니면서 애용되는 물건도 아니다.

그래도 저 앞치마에는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고 우리 여성들과 뗄수 없는 인연을 맺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고구려시기 무덤벽화에도 앞치마를 두른 여인상이 있다고 하니 정말로 오랜 력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전통이 간직되어있는것이 아닌가.

모름지기 처음에는 여인들이 아궁이 미여지도록 장작불을 때고는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불씨들을 막고 앞자락에 떨어지는 얼룩점 하나라도 막아 몸을 정갈하게 거두려고 생각해낸 단순한 발명품이었을것이였다.

뜨거운 가마를 들어올릴 때에는 행주가 되어주

고 물젖은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줄 때엔 수건이 되어주고 어제날 고달픈 시집살이설움에 못이겨 홀로 부엌에서 호느껴울 때는 손수건이 되어 눈물을 닦아준 앞치마였다.

그러나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된 시기에는 한몸을 바쳐 나라의 운명을 지켜나선 이 나라 여성들의 슬기론 투쟁모습을 련상케 하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것처럼 임진조국전쟁시기 행주산성방어전에서 우리 조선여성들은 앞치마에 돌들을 담아날라 왜적들에게 돌벼락을 퍼부어 력사에는 《행주치마》라는 애국의 대명사와 같은 말이 기록되였다.

그때부터 우리 여성들은 자기들의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긍지높이 부르며 그와 함께 애국의 녀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녀성의 본분을, 주부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 조선여성들의 외유내강한 성격적아름다움은 앞치마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게 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제재와 검질긴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 하여 우리 가정들은 적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겪었었다. 그것을 민감하게, 가슴아프게 느낀것이 우리 여성들, 누구보다 속태우고 근심하던 여성들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이고 안해, 누이들이다.

허나 우리 여성들은 맥없이 주저앉지 않았으며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매일 정갈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꽃같은 미소를 얼굴에 띄우며 조용히 부엌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들을 위해, 귀여운 자식들을 위해 끼니를 장만하고 사랑을 고여 뒤바라지를 충실히 하였을뿐아니라 자기들의 혁명초소도 믿음직하게 지켜왔다.

누구 하나 기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일터에서 남성들의 웃음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었다.

자연의 횡포한 도전과 광란을 인간의 강철같은 신념과 담력으로 짓누르며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가꾸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나가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이며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 등 불꽃튀는 건설장들마다에서 우리는 전투복인듯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띠를 조이며 동지들의 밥그릇에 찬을 한가지라도 더 놓아주는 기특한 여성들의 모습을 얼마나 감동깊이 보아왔던가.

또한 이 나라의 방방곡곡, 전선길 초소마다에

나에게는 스승이 많다

주 광 남

머리가 희여지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어이하여 더 자주 추억하게 되는것인가
나를 배워주고 이끌어준
스승들에 대한 생각
할수록 고마움에 후더이 져는 생각

나의 첫 스승은
해방연의 산골분교 처녀선생님이여라
까만 치마 흰 저고리의 외태머리
연필잡은 내 손 꼭 감싸주고
학습장뚜껑에 내 이름 정히 새겨주던
못 잊을 모습으로 남아있어라

년년이 자라고 배워가면서
얼마나 많았던가
칭찬보다도 엄한 비판속에
배워주고 깨우치며 이끌어준
고마운 스승들

군사복무의 날에도 있었더라
성미 급한 이 사관장을 조용히 앉혀놓고
차근차근 타이러주던 정치지도원동지
문학의 첫자욱 옮겨줬던 그날에는
설익은 나의 작품을 두고
함께 안타까와하던 편집부의 못 잊을 스승

정녕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인간성장의 귀중한 영양소
내 한생토록 잊지 않고
삶의 좌우명으로 삼던 나날
그 스승들의 모습 눈에 삼삼해
얼마나 고마움에 가슴 후터웠던가

생각하면
참된 스승들의 손에 이끌려
오늘토록 나는 자란것 아니던가
지금도 배우며 자라는것 아니던가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김광철, 길영조... 그 수많은 영웅들
내 자식별 나이들이여도
충격속에 내 삶을 깨우치며 이끌어주는
시대의 귀감인 그모두 나의 스승들

오, 장군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사는
격동적인 이 선군시대엔
생활의 참된 스승들 얼마나 많은것인가
청춘의 열정으로 내 심장 언제나 끓게 하며
고결한 삶을 가르치는 스승들

내 만약 한순간이라도
스승들에 대한 감사의 정 식어진다면
사람들앞엔 버림받는 무지렁이
사회앞엔 녹슨 쇠덩이처럼 삭아버리리

인생수업의 강의를 오늘도 계속해주는
정답고도 고마운 나의 스승들
그들에게서 배우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빛내가려니
궁지와 자부에 넘쳐 심장은 뛴뛰노라
아, 나에게는 스승이 많다!

서있는 우리의 군관안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담아 불러주신 《최고사령부
작식대원》이라는 그 귀중한 본분을 심장깊이 새
기고 끝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인민군대의 전
투력강화에 이바지해가고있다.

세상에 없는 《병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고
혈육의 정을 부어갈 때도 푸짐한 생일상에 마
주 앉은 병사들의 눈에 고이는 맑은것을 살뜰
히 씻어줄 때도 우리의 군민관계는 얼마나 더 깊
어지고 뜨거워지고있는가.

군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본분으로, 도덕으
로, 량심으로 여기며 사는 군관안해들!

가슴뜨거워오르는 그 생각에 잠겨 동생을 바라
보느라니 그가 더욱더 돌보인다.

군관의 안해로 《최고사령부 작식대원》의 무거
운 책임을 안고있는 그의 모습에 남편들과 함
께 선군위업수행에서 앞장서나가는, 비약의 폭풍
이 태동하고있는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의 벅찬 투
쟁에서도 관조자가 아니라 영예로운 참전자로서의
한몫을 든든히 하고있는 선군시대 녀성들의 자랑
찬 모습이 비껴있다.

값높은 인생의 첫걸음을 땀 녀동생.

앞으로 그의 생활에서 앞치마는 떨어질줄 모를
것이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나선 그가 떼이른 나이에 병
사들로부터 《어머니》라 불리우며 사랑을 부어주
게 될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절로 즐거운 웃음
이 피어난다.

시 조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

도명희

선군시대앞에

어려운 날
자식들을 낳아키우던 그땐
젊은 어머니— 나는 정말
철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아기를 품안아 젖먹일적엔
함께 젖먹이의 맘이었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발걸음 땀적엔
나도 어머니로 첫발을 떼었습니다

어린것들 치마자락 감돌며 어리광칠 때
나도 조국의 옷자락 부여잡고
시련의 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자식들 철없다 욕을 자주 했지만
내 또한 너무도 철부지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 눈동자만 들여다보며

세상기쁨 다 찾는...
자식들 자라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행복을 아는...

그땐 다 몰랐습니다
제 자식을 불안고 정을 쏟아 키울적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그 정까지 지켜주려
붉은기 추켜든 조국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자식위해 속태우며 바빠 땀적에
어머니의 속타는 그 마음마저 견어안고
총대를 든 조국이 시련은 또 얼마나 헤쳤는지

이제는 자식들 품에서 떠나보내고나니
머리는 어느덧 반백이온데
인제야 어머니로 철이 드는듯
어머니되어 걸어온 자욱 더듬으며
선군시대앞에
어머니— 나자신을 세워봅니다

그날 운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떠나보낼 땐
내 절대 눈물을 아니 흘리리
어느 시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나도 눈물없이 바래우리라
평시에 속다짐도 많이 했건만은
정작, 그날
역두에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군복입은 어엿한 자식앞에
어머니로서
그 어이 주책없는 눈물이라만
입술을 깨물어도 나오는것을
그냥 내쳐두었습니다
아마도 난 강인치 못한가봅니다

허나 아니었습니다
결코 나약해서 흘린 눈물이
서운해 흘린 눈물은 더욱
내 딸을 군대에 내보내려
온갖 사랑 쏟으며 애지중지
때로 아픈 때도 들며 꾀꾀이
이날 이때껏 품들어 키워왔는데
어찌 자식앞에 약한 맘 보이리까

선군의 총대가 지켜주는 나라에서
총대감 하나 군대에 보내지 못하고
나라밥 축내는것 같아
속으로 은근히 죄스러웠는데
내 어찌 자랑스럽지 않으리까

교복을 입었을 땐 철부지만 같던 딸이
불쑥 자란듯
군복입고 앞에 다가와 거수경례 척 하는데
너무 대견하고 기뻐서
뿌옇게 앞이 흐려져
딸의 얼굴도 바로 못 보고...
아마 나는 맘이 약한가봅니다

허나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운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쳐나는 정을 그만 쏟뜨린겁니다
자식을 키우며 기울이던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걸 주려
조국보위 장한 길에 불러주신
아, 장군님 가까이로 자식들을 떠나보내며
선군시대앞에 터친
어머니의 첫 애국의 감정의 분출이랄가요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전엔 숙제를 안하고 잠든 딸을
되게 욕하여 책상앞에 앉혔건만
인제는 군복입은 그 딸이
이 어머니를 엄하게 질책하는구려

직장에서 돌아온 저녁
혹 아래목에 누웠다가도
벽에 걸린 입대증 올려다보면
힘이 나서 일어나곤 한다오
—초소에선 설송이가 훈련의 땀 흘리는데...

군복입은 딸이 낮이나 밤이나
눈비 다 맞으며 지켜섰을 그 시간을
한초도 허술히 말자고
하루도 헛살지 말자고

직장일에 남보다 앞장선다오
인민군대 원호품도 더 많이 한다오

정녕 나라위해 내 할일 더 찾고만싶구려
장군님께 기쁨드릴 일 더 하고만싶구려
내 딸또래 청춘들이
군복입고 청춘시절 다 바쳐
선군시대 받드는데
어머니된 마음 그만 못해 어이 되리오

자식을 초소로
떠나보내고
시대앞에 어머니로서
자신을 채찍질하오

이제는 네가 지켜섰구나

어렸을 땐 네 요람 지켜앉아
이 어머니 밤도 많이 새웠더니
딸아
이젠 네가 이 어머니 잠자리를 지켜섰구나

눈보라 울부짖던 그밤
이 어머니 따뜻한 이불속에 들었을 때
너 첫 초소근무 섰다지
어머니가 너를 믿고 잠들었을 생각에
추위도 졸음도 참으며
한밤을 이겨냈다지

날마다 초소근무의 밤을 새우며
병사— 너를 믿고
불 끄고 누웠을 이 어머니의 모습만이 아닌
정든 고향거리의 고요한 밤을 그려본다지

가슴뭉클 젖어든다
간밤 창밖에 비바람 쳤어도
어머닌 깊은 잠 들었겠구나

네가 초소에서 군복을 다 적시며
총메고 지켜섰을 그밤을...

그렇구나
너 어렸을 때
네 요람 지켜 이 어머니 밤새울 때처럼
이밤도 아기의 요람을 지켜앉은
젊은 어머니들의 애모쁜 그밤을 너는 지키누나
자식들을 나라위해 집 떠나보내고
잠 못 드는 어머니들의 그밤조차
너는 총대로 굳게 지켜섰구나

장하다 나의 딸아
어렸을 땐 이 어머니 너 하나의 요람지켜
밤을 새웠다만
네 이젠 자라서 총을 메고
이 나라 어머니들의 잠자리를 지켜섰으니
병사의 성스러운 밤 지새우는 자식을 둔
나는 시대앞에 행복한
병사의 어머니구나

가
사
봉
화
가
타
오
른
다
쇠
물
이
쏟
아
진
다

김
학
률

천리마 날아오른 력사의 땅에
새 전기로 세워놓고 쇠물을 끓인다
강철로 당을 받든 용해공 마음담아
펄펄 끓는 쇠물은 하늘땅 물들인다
아 장군님 지퍼주신 봉화가 타오른다
강성대국 앞당기며 쇠물이 쏟아진다
새로운 대고조의 불바람 일으키며
다시한번 천리마의 기상안고 달린다
시련이 겹치어도 선군통마 우리 타고

펄펄 끓는 쇠물로 하늘땅 물들인다
아 장군님 지퍼주신 봉화가 타오른다
강성대국 앞당기며 쇠물이 쏟아진다
시대앞에 맨 선참 강철로 대답하며
강성대국 대문을 남먼저 열어간다
뜨거운 심장들 불타는 맹세 안고
펄펄 끓는 쇠물로 하늘땅 물들인다
아 장군님 지퍼주신 봉화가 타오른다
강성대국 앞당기며 쇠물이 쏟아진다

작가 천세봉의 현실체험과 홍남새 나는 그의 작품에 대하여

박 춘 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필가들이 현실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당에서 바라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없습니다. 문필가들은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잘하여야 합니다.》

작가 천세봉은 40년의 창작생활기간 10여편의 장중편소설들과 수많은 단편소설을 창작하고 우리 문학에서 자기의 독창적인 예술적경지를 개척한 재능있는 작가이다.

천세봉은 근 50년간을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농민문제에 깊이 관심하였다.

그는 원래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으며 또 그자신도 농민이었다.

그의 튼튼하고 진실한 생활관과 농민다운 소박한 기질, 농촌과 농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체험 등 소설가 천세봉이 지닌 인간적바탕도 그의 고향인 농촌과 농민들이 준것이였다.

작가 천세봉은 그 무엇을 쓰기 위해 생활체험을 하려고 농민들속에 들어간것이 아니라 항상 농민들의 생활속에 있으면서 농민들과 운명적으로 깊이 련결되어 함께 생활하면서 농민들의 운명문제에 대해 쓰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창작적충동으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것은 천세봉의 현실체험의 한가지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35(1946)년 2월에 창작된 그의 처녀작인 단편소설 《령로》는 해방직후 고원군 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하던 당시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새로운 현실속에서 자라나는 농민들의 힘을 긍정하려는 열망에서 창작되었으며 단편소설 《새로운 맥박》은 가난과 고역에 시달려오던 한 소작인 일가가 해방과 더불어 땅의 주인이 됨으로써 사람다운 삶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는것을 보고 해방된 농촌의 새 인간의 탄생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소리치고싶어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소낙비》, 《5월》, 《호랑령감》은 작가가 토지개혁후 우리 나라에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어떻게 높아져가며 토지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나가고있는가를 목격하고 해방후 생활의 변천에 따르는 농민들의 사상정신적변화과정을 보여주고싶어 창작한 작품들이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민들과 더불어 일하였으며

그들속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글을 쓰는 작가인 천세봉의 작품들에서는 농촌생활과 농민문제가 참으로 깊이있게 그려지고있다.

단편소설 《5월》에는 형추라는 흥미있는 형의 농민이 등장하고있다.

50이 넘은 실농군인 그는 토지의 주인이 됨으로써 영농법을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툄끝만치도 어김없이 수행할것을 자기 임무로 간주하는 인물이다. 그는 식구들을 모여앉혀 놓고 자기가 직접 만든 그해 영농계획서를 걸어놓고는 그대로 어기지 않고 실행해나가자고 하며 모범을 보이는 견실하고 치밀한 인물이다.

극성스러울만치 부지런한 그는 이웃 모범농민인 처서와 내심으로 경쟁을 걸고 무슨 일에서든 그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인물이며 이 경쟁이 일종의 질투심에로까지 발전하려는것을 극복해나가는 순진스러운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같은 년배의 인물, 단편소설 《호랑령감》의 주인공 범령감은 또 얼마나 특색있는 인물인가. 그는 건장하고도 해학적인 익살군이며 무슨 일에서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자기가 맡은 책임은 끝까지 완수하고야마는 성격의 인물이다.

범령감, 그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있었던 인물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있어야 할 인물이며 조선의 향토적인 풍속화속에 꼭 있어야 할 명랑하고 긍정적인 농민형이다.

형추나 범령감 같은 개성적농민성격창조를 통하여 작가는 해방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성격을 투철하게 일반화하였다.

작가 천세봉의 현실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는것은 또한 천세봉은 현지에 나가 그저 인간과 그 생활을 료해하고 리해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생활의 적극적이며 정열적인 참가자이며 창조자라는것이다.

그는 생활의 적극적인 참가자였으며 새생활의 창조자였다. 이것은 작가 천세봉의 현실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천세봉은 해방이 되자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한몫 하자는 욕망에 불탔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었을 때 천세봉은 군내면이라는 한개 지역을 책임지고 나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나누어주는 투쟁을 벌렸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도

천세봉은 용감히 싸웠다.

전쟁이 끝난 후 농업협동화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협동조합을 내오기 위하여 그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천세봉자신도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협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렸다.

그는 어느 한 수기에 썼다.

《나의 첫 장편소설은 〈석개울의 새봄〉입니다. 내가 이 작품을 쓸수 있는것은 내자신이 작가이기 전에 농민이었기때문입니다.

작가와 현실과의 관계는 물과 고기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상한 재능을 소유한 작가라 할지라도 현실을 떠나서는 단 한편의 작품도 창작할수 없습니다. 우리 문학의 우수한 모든 작품들은 다 당대 시대와 생활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었던 열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작가가 그 시대의 사회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시대와 인민의 생활을 깊이 알고 인민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자기 창작의 열정속에 담은데 있습니다.

내가 작품을 쓸수 있는것은 현실속에서 창작한 덕분입니다.》

천세봉의 모든 작품이 다 그러하지만 그의 첫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놓고 생각해보아도 그가 현실에 살지 않았다면 그 작품을 쓰려는 엄두도 못냈을것이다.

그처럼 복잡한 계급투쟁속에서 이루어진 협동화운동을 그 현실속에서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작품화할수 있었겠는가.

천세봉은 그 간고한 투쟁을 육신으로 체험하였다. 그 생활과 투쟁을 육신으로 체험했다는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천세봉은 어느 한 기회에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나는 〈석개울의 새봄〉을 쓰기 위해서 취재노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취재노트란 현실을 외곽으로 잠깐 다녀오는 때에 필요한것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작가자신의 일이고 작가자신의 사고와 불가분리의 련계속에 있는 일일 때에는 취재라는 말이나 취재노트란 말이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글로 적는것보다 모든 일이 육신에 배는 까닭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던 부락에선 누구도 나를 작가란 인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본시 농사꾼이고 한동네사람이었던 나에게 작가라는 인식을 가지는것은 동네사람들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천세봉은 작가라기보다 농민의 한사람이 되어 그들과 토의도 함께 하였고 조직사업에도 참가하였다. 바로 《석개울의 새봄》에 수록된 내용과 유사한 그런 간고한 투쟁이 벌어졌다.

반동들의 파괴음모가 있는가 하면 조합에 대한 부농층의 비방이 있고 농민들의 소소유자적근성이

조합발전을 방해하였다.

그런 가위에 관리일군들은 실력이 약해서 모든 일이 주먹치기로 되고 로력평가가 평균주의로 되었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회의에서는 목에 피대를 세우고 비판하는 일이 많았다.

이때 천세봉의 생활에는 글 한줄 쓸 겨를도 없었다. 그는 당위원들과 함께 회의보고서도 쓰고 학습을 조직하고 농민들과 담화하는것만으로도 바빴다.

이때 천세봉을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개인농들이었다. 그들은 아직 소규모이지만 조합이 운영되어가는것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어떤 한사람은 와서 《조합에 들어야 옳은가? 자네 말을 듣고싶네.》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한사람은 찾아와서 《나는 남의 빛이 많아서 소를 팔아 갚구 조합에 들어갈가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조합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나를 심사 나쁜 놈으로 칠거야. 자네가 좀 말해주게.》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농민들은 허다한 어려운 문제를 들고 천세봉을 찾아왔다. 바로 조국해방전쟁전에도 천세봉의 현지생활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어쨌든 조합을 무은 이 시기에도 천세봉의 생활은 작가의 생활이 아니라 한 농민의 생활이며 조합관리에 온 사고를 파묻고사는 관리일군의 생활이었다.

작가 천세봉의 현실체험을 론하면서 우리는 현지에서 창작하면서 작품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한데 대해 깊은 주의를 돌리게 된다.

천세봉은 초고를 쓰면 어머니에게 읽어드리고 찾아오는 농민들에게도 읽어주는 습관을 붙였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농민들앞에서 자기의 초고를 읽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창작과정에 농민들의 수많은 의견을 들었으며 그것을 참고하고 수정작업을 진행하곤 하였다.

천세봉은 현실체험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지닌 작가였다.

그는 현지에 나간 작가는 고향으로 돌아간것 같은 안정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현지에 간것이 객지에 간것 같은 기분으로 산다면 현실의 인간들속에 깊이 침투할수도 없을것이며 작가는 얻으려는 체험을 얻지 못할것이라는것을 그는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다.

천세봉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신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현실생활을 자기의 생활로 받아안으며 작가라는 이름으로부터 떠나서 현실속의 인간들과 깊이 엮혀지는 때에야만 작가는 얻을것을 얻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그자체가 자기의 혈육같이 될 때에야만 작가의 빛은 그 생활을 옹호하여 열정을 쏟으

며 부르짖을수 있을것입니다. 언제든지 흙냄새속에 깊이 파묻혀살고싶은것이 나의 열망이었습시다.》

천세봉의 깊은 생활체험은 그의 작가적개성과 그의 문학의 특징을 규정하고있다.

수십년세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민들과 호흡과 숨결, 운명을 같이해온 천세봉은 자기 작품들에서 땅을 노래하고 땅의 주인공들을 옹호하고 긍정적인 열정과 감정으로 충만시킴으로써 그의 문학이 땅을 노래한 문학, 땅의 주인공들을 옹호하고 긍정적인 문학으로 되게 하였다.

작가는 누구보다도 땅에 대하여 많이 쓰고 그 주인공들의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우리 농민들의 성장과정, 우리 농촌의 전변과정에 대한 산 예술적화폭이다.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천세봉의 작품들에서 가장 선명하고 특색있는 표현을 보았으며 작가의 얼굴은 농민들의 형상속에 가장 뚜렷하게 비치였다.

천세봉이 새롭게 열어나간 땅과 그 주인공들의 세계는 무엇보다 생활에 대한, 농촌현실에 대한 그의 사상적립장과 관점의 예술적구현이었다.

작가가 노래한 땅은 이미 시인 리상화가 노래했던것처럼 《빼앗긴 들》이 아니였으며 그 땅의 주인공들은 이미 어제날의 농민, 한뼘기의 땅에 의하여 운명이 희롱당하던 땅의 대상물이 아니였다. 땅이 작가에게 것처럼 소중하고 그 주인공들에게 것처럼 애착이 가는것은 그 땅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이며 그 주인공들이 참다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었기때문이었다.

작가는 땅과 그 주인공들에 대한 이 새롭고 혁명적인 립장과 관점으로 천지개벽과도 같은 현실을 목청껏 노래부르면서 우리 농민들이 걸어온 투쟁과 생활로정을 사실주의적으로 근기있게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첫시기의 농민형인 호랑령감의 그 팔팔하고 감때사나운 로인의 형상이 창조되는데 이어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는 최치부, 계덕근과 같은 후방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준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의 주인공들의 자랑스러운 성격이 창조되었다.

전쟁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나고 싸우는 마을사람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그 후방으로 제대군인들이 돌아왔다.

이 승리의 대오속에서 작가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주인공 창혁이를 발견하였으며 그의 성격을 새로운 정황,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속에서 다면적으로 보여주었다.

작가 천세봉의 깊은 생활체험은 그의 문학이 체험의 문학으로 되게 하였다.

작가는 언제나 땅과 함께 있으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그들의 운명을 체험하였다.

작가는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가슴을 맞대이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더불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농촌주인공들의 인생을 같이 체험하고 그들의 운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었을 때 농민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로 되고 자기의 이야기가 농민들의 이야기로 번져나갈수 있는것이다.

천세봉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그의 친지, 동료와 벗이었으며 한마을에서 아침저녁으로 만나던 다정하고 친근한 이웃들이였다.

농촌생활과 그 주인공들에 대한 이 뜨겁고도 깊은 체험이 그의 작품들에서 형상의 사실주의적진실성과 생동성을 힘있게 담보하고있으며 구수한 흙냄새가 풍겨나오게 하고있다.

그의 작품들에서 작가의 말과 작중인물들의 말이 하나로 융합되어있으며 작품의 서술문이 구두어적인 성격을 띠고있는것은 다 그의 깊은 생활체험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생활체험의 깊이는 천세봉의 작품들에서 등장인물들을 작가자신의 예술적분신으로 되게 하고있으며 작중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작가의 말로 되게 하리만큼 량자는 하나로 융합되어있다.

생활체험의 깊이와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또한 성격묘사에서 보여주는 작가의 그 독특한 솜씨, 인물성격의 개성화의 능수로서의 작가적면모를 보여주는 바탕으로 되었던것이다.

깊은 생활체험은 천세봉으로 하여금 인물성격의 개성화의 능수로 되게 하였다.

작중인물들은 그의 붓끝에 의하여 산 개성으로 되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별치 않은 초상묘사와 행동묘사 그리고 주고받는 말씨와 말투로 한 인간의 과거와 오늘, 미래까지도 가늠해볼수 있게 하며 그 인간의 성격을 특징화하는 작가의 솜씨는 생활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과 깊은 생활체험이 낳은 작가적기교이다.

대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의 이 심각성이 또한 무심한 자연에 피와 숨결을 주고 생기를 주고있다.

장편소설 《축원》에서 첫머리에 펼쳐지는 농촌의 아침전경에 대한 묘사를 실례로 들어보자.

《어디서나 안개가 흐른다. 그것은 마치 신선하고 향기롭고 가벼운 입김처럼 대지에 낮게 내리어 언덕들과 논두렁들과 그리고 나무줄기와 풀잎들을 간지럽게 핥으면서 하염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밀려오기도 한다. 휘휘 손으로 휘저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안개...》

한쪽의 수채화같기도 한 이 자연화폭에는 우리나라 농촌이 보여줄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과 수려함, 자연이 지닐수 있는 온갖 매혹적인것이 아침안개와 해발속에 참으로 생동하고 유정하

게 펼쳐지고있다.

작가는 자연을 그린다기보다 자연과 속삭이는듯 하며 자연의 미에 심취되어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된 듯 하다.

바로 이런것을 두고 자연과 자기 고향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정화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것이 과연 농촌과 고향마을사람들, 고향의 자연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깊은 생활체험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진지하고 성실하며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생활체험은 작가 천세봉의 문학이 인간과 생활에 대한 사랑의 문학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현실생활과 인간들에 대한 깊은 생활체험과 깊은 사랑과 관련되어있다.

작가는 긍정적주인공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곱게 그리고있으며 투덜거리며 따라오는 락후분자도 어데인가 정이 가게 그리고있다. 평범하고 소박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 그의 문학에 흐르는 고상한 도덕감정을 담보하고있다.

땅과 그 주인공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 애정은 작가 천세봉의 예술적사고방식을 규정하고있다. 예술적사고방식의 파악은 작가의 개성과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의 하나이다.

작가 천세봉의 예술적사고방식은 소박한 농민의 사고방식 그것을 현상시킨다.

작가는 농민다운 소박성과 순박성을 지니고 생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화려하고 세련된것보다도 대지와도 같이 변함없이 진실한 그것을 일관하게 추구한다.

작가는 지나친 과장과 멋부림을 피하며 지나친 감상과 흥분을 자제하는듯 하다. 여기로부터 생활에 대한 작가의 사실주의적묘사정신이 흘러나오며 예술적형상의 소박성, 진실성이 흘러나온다.

작가는 농민들의 생활, 그들의 희망과 꿈, 지향과 념원을 사실그대로 꾸밈없이 그리고있다.

작가는 농민들의 생활에 끝없이 공감하고 매혹되면서도 결코 그것을 리상화하거나 분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창혁이와 룡이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려지고 장편소설 《축원》에서 정학이와 연순이의 애정선이 그려졌으며 그것을 두고 마음쓰는 주인공 한씨의 《근심》과 당의 축산정책을 반대하는 나쁜 놈들과의 심각한 대결이 그려지면서 평범한 이야기에 극이 조성되었다. 이 극으로 하여 조성된 정황속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복잡한 체험세계가 개방되고있다.

작가는 주인공들이 겪는 단순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은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새것에 대한 낯은 것의 극복과정이란 어떤 간고성과 복잡성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예리하게 투시하고있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시와 노래가 있

기마련이다.

작가 천세봉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문학적인 이야기와 극을 찾으면서 때로는 그것을 시화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생활에서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힘있게 울리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이 무지개빛으로 아롱거리게 하고 그 모든것이 조화롭게 융합된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지게 하고있다.

생활에 대한 충실성과 깊은 생활체험속에서 얻어진 평범한것에 대한 작가적지향은 그의 문체적소박성과 평범성을 규정하고있다.

천세봉은 소박한 작가이다.

그의 언어는 땅의 주인공들의 생활처럼 가식이 없고 분식이 없다.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작가의 묘사와 서술문에서조차 농민들의 흙냄새나는 말투가 비끼며 그들의 호흡이 느껴지고 억양이 감촉된다.

천세봉의 깊이있는 생활체험은 그의 작품들이 재미있고 심오한 내용을 가진 문학적이야기를 펼쳐치게 한다.

그의 작품들에는 재미있고 끌려들어가는 맛이 있는 문학적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문학으로서의 소설, 특히 장편소설에서 이야기의 깊이와 충만성은 본질적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가로 된다는것은 긴 이야기군이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이야기의 능수가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 천세봉은 이야기군, 그것도 끝없는 이야기군이며 이야기의 명수이다.

작가 천세봉에게는 생활의 끝이 없는것만큼 이야기의 끝이 없다. 그에게는 생활이 있는 곳에 끝없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는 곳에 풍부한 생활이 있었다. 그는 이 생활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하여 천세봉의 작품들에는 얼핏 보면 아무런 편편이 없는듯 한 이야기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전일적인 화폭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타고 생활이 펼쳐지고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 《대하는 흐른다》에 그려진 그 모든 생활단면이 다 그러하다. 이야기속에 성격이 운동하고 사상이 밝혀지며 마침내 하나의 종착점에 이르고있다.

천세봉의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로 인간과 생활을 보고 시대와 력사를 개괄하면서 이야기문학으로서의 소설문학의 체모를 세우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수십년세월 농민들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깊이 관찰하고 그들의 지향과 사고, 실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데 기초하고있다.

작가 천세봉의 체험의 문학세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총서 《불

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과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들 창작에서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으며 그의 창작적개성도 이 불멸의 화폭창조에서 가장 빛나게 발현되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작가 천세봉이 언제나 생활의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온것으로 하여 작품들에서는 하나같이 땅냄새가 짙게 풍기고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 작가들의 몸에서는 흙냄새, 기름냄새가 나는것이 아니라 도시냄새가 나고 있다.

지금 간혹 사상예술성이 저조한 작품들이 나오는것은 일부 작가들이 체험의 문학이 아니라 타상문학을 하는데 그 주되는 원인이 있다.

현실체험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속에 들어가 흙냄새를 맡기 좋아하여야 하며 늘 현실속에 몸을 꼭 잡고 선군시대의 벽찬 현실을 깊이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 흙냄새, 기름냄새나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정열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군대와 인민들이 사랑하는 흙냄새, 기름냄새나는 작품을 창작해야 할것이다.

가 사

아름다운 밤이여

김 윤 결

달빛아래 잠이 든 아기의 요람가에서
아빠엄마 밤깊도록 아기의 이름을 짓네
이 땅은 창조의 불꽃으로 잠 못 이루고
아빠와 엄마는 사랑으로 잠 못 이루네
아 밤이여 아름다운 밤이여
아기의 래일 안고 잠 못 드는 밤이여

꿈속에서 밝게 웃는 아기볼 다독여주며
아빠엄마 래일의 고운꿈 수놓아가네
아기의 행복을 꽃피워준 조국을 위해
구슬땀 바쳐갈 약속도 서로 나누네
아 밤이여 아름다운 밤이여
아기의 래일 안고 잠 못 드는 밤이여

아가야 너 자라 나라의 영웅되거라
아빠엄마 별빛에 달빛에 소원을 담네
그 소원 품어안아 내 조국은 더 아름답고
선군태양 해빛아래 그 소원 꽃피어나리
아 밤이여 아름다운 밤이여
아기의 래일 안고 잠 못 드는 밤이여

나의 땅, 우리의 땅

신 문 경

두루미때 날아드는 드넓은 벌에서
나는 그날의 주름깊은 얼굴을 본다
머슴군 나의 할아버지
분여지를 그러안고 흘러던 그 눈물을

이삭파도에 묻혀 두렁이 보이지 않아도
천지개벽 토지정리한 이 들판에서
나는 그날의 소리를 듣는다
대지의 첫 주인들 언가슴을 깨치며
분여지의 패말을 박던 그 메질소리를

한평생 논물처럼 땀을 쏟아도
언제 한번 생을 의탁할수 없었던 그 땅
너 정녕 나의 땅이나
믿어 안져 믿어지지 않아
우등불 피워놓고 밤을 지새던 그 모습들

하늘도 못 준 땅을 꿈같이 안겨준
김장군님 고마움에 목메여 쓰다듬을 때
땅이여, 너는 벌써 농민의 가슴에
네 땅 내 땅이 따로 없는
귀중한 어머니조국의 품이었지

물어보자 흘러온 땅의 력사여
호미와 낫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준엄한 날 어이 그리 용맹했던가
어찌하여 우리 세대는 허리띠 조이면서도
옥백미를 군량미로 먼저 실어보냈던가를

땅에 심어 가꾸는 곡식과 함께
대대로 이 땅에 생을 엮고 살아온 사람들
로동당 그 품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목숨바쳐 지키는 투사로 키운것은
또 하나의 위대한 혁명이었거니

오, 가슴아픈 지난날의
마지막흔적을 갈아번치고
사회주의대지의 새 력사를 펼친 오늘에도
못 잊을 해방의 그 첫 봄날은 말하고있구나
쌀로써 지키라
나의 땅, 우리의 땅을...

처녀시절과 이야기 한다

조 은 향

명멸하는 수도의 장식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해진 명절의 이밤.

온 하루 즐거운 기분으로 떠들썩거리던 이모의 가족일행이 사람들의 물결에 묻힐 때까지 나는 그냥 바래움의 손을 저었다.

그때, 이모는 떠났다. 그러나 이 저녁 그가 남기고간 말은 충격의 잔파도마냥 가슴속에 여운저 남아있다.

《은향아, 너 아직 애인이 없니?》

질은 호기심이 어린 이모의 물음...

《이모두 참, 새삼스럽게...》

《이상해서 그래. 낮엔 널 방해하기 뺏아서 말을 못했는데. 아니, 처녀야 오늘같은 날 애인과 산보도 좀 하구 정서생활을 해야지 온종일 책상에 붙박혀서 뭘 그렇게 자꾸 쓰니?》

《...》

《은향아, 처녀시절에 편애를 하는것두 다 하나의 중요한 인간수업이란다. 사랑을 모르고서야 무슨 처녀니?》

사랑을 모르는 처녀?!

(내가 정말?...)

스스로 마음에 물으며 집으로 발길을 돌리던 나는 운동복차림으로 유보도를 달리는 처녀체육인들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도 명절의 흥분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과는 인연이 먼듯 땀흘리며 달리는 처녀선수들.

바라보느라니 어쩌면 나와 동갑일지도 모를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물음을 건넬고싶다.

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가?

문득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편애편지마냥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했던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다.

흘러간 대학시절 나는 향학열에 깊이 빠져 늦도록 퇴근을 몰랐다.

내가 마지막 《퇴근생》이라고 생각하며 교문을 나서던 어느날 나는 그때까지도 꺼지지 않는 2층창문의 환한 불빛을 보게 되었다.

(누굴가? 대단한 정열간대...)

새로운 《퇴근지각생》의 출현으로 호기심과 경쟁심이 불쑥 찾아들었다.

나는 며칠후에야 그 불빛의 주인공이 남동무였다는것, 또 그 역시 나를 알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늦은 퇴근길의 리유가 향학열이라는 하나의 지향이었던탓에 우리는 별다른 공식없이 대뜸 가

와질수 있었다.

늦은 저녁 열띤 학과론쟁과 작품토의끝에 시창기를 느낄 때면 우리는 종종 간이매대에서 파자봉지를 사들곤 하였다.

학구의 꿈으로 불타던 그밤 가장 별미로 여겼던 그 파자봉지에 우리가 없었던것은 서로의 따뜻한 정뿐이었던가.

아니었다. 멀고먼 과학의 초행길에서 초학도들인 우리는 매일에 대한 크나큰 포부도 함께 나누었다.

자신의 뜻과 지향에 동행자를 만났다는 기쁨을 느끼곤 하던 그 나날 어느덧 벗으로 된 그에게 일종의 허영심도 없지 않았던 처녀시절의 꿈을 두고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많은 의미를 담은채 물었었다.

《영웅은 되고싶지 않소?》

물론 그것은 명백한 《힐난》이었다. 움터나는 처녀시절의 욕망에 찬물을 끼얹는것과도 같은...

그러나 후날 나는 그의 이 《힐난》을 얼마나 고맙게 여겼던가.

꿈과 욕망, 결심과 실천사이에는 얼마나 값높은 정신력과 능력이 안박침되어야 하는가를 나는 《청년문학상》을 받아안던 그날에야 느낄수 있었다.

그와 함께 종자를 찾고 무르익히며 고심하여 완성한 작품에 상장이 수여되었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던 모습앞에서 내가 안은 그 진리.

결코 포부만으로는 열매가 맺어질수 없음을, 결사관철이란 진정 어떤것인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현한 그는 바로 제대군인이였고 당원이었던것이다.

교정의 푸른 추녀아래 어느덧 작별의 시각을 맞이한 졸업식의 그날.

흘러간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추억과 교문을 나서는 서운함, 걸어갈 앞길에 얹혀질 보다 큰 탐구의 무게와 자각이 어린 두 눈빛이 뜻깊은 인사를 나누었다.

지나온 날처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자신들의 의무로 불타던 어제날처럼 마중하는 앞날에도 영원히 변함없기를 바라는 당부와 기대가 어린 두 눈빛의 작별의 인사...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나 봄꿈마냥 부풀던 처녀시절의 년륜속에 나에게게는 사생활의 유혹이 찾아들었다.

웃매무시에 《류행》의 멋을 따라세워보는, 화장법에 관심이 더 깊어지는 나를 두고 부모님들의

얼굴에 그들이 지는것을 나는 알수 없었다.
 아니, 처녀시절의 어길수 없는 《생활의 법칙》이라고 애써 자신을 합리화한것은 아니었던지.
 그러던 어느날 저녁 집에 들어선 나는 벽에 정히 걸려있는 하나의 증서앞에 무춤 굳어졌다.
 내가 대학시절 《전국대학생과학토론회》에서 우승하고 받았던 상장이었다.
 그 상장을 수여받은 날 액틀에 넣어 걸어놓자고 졸라대는 동생을 만류하며 나는 부모님들과 약속했었다. 처녀시절에 학위논문까지 꼭 완성한 다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왜 모르랴.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회여오시는 오늘까지 변함없이 지성의 먼먼 길을 걸어오시는 부모님들이 나의 방 벽에 저 상장을 걸어놓으실 때 결코 이 딸에 대한 《대견함》이 아니었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안다.
 처녀시절의 작은 애정에 끌려 보다 크고 보다 귀중한 사랑의 세계를 잃을듯싶은 딸에게서 지난날의 그 꿈과 열정을 되찾아주고싶어하시는 마음, 그래서 이 저녁 타이름 한마디 없이 나에게...
 나는 증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문득 과학토론회에 발표할 논문을 완성하던 날들에 뜨거운 정과 지혜를 다 바쳐주시던 못 잊을 스승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스승의 결국한 당부 《결코 헐치 않을거요!》
 처녀시절에 세운 리정표로 가는 길에 신들메를 든든히 매고 사소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던 선생님의 기대가 아니었던가.
 나의 부모들과 존경하는 대학의 선생님들, 미덥고 따뜻했던 2층불빛의 주인공.
 정녕 조국과 인민이 나나 이 땅의 처녀들에게서 바란것은 한시절 찾아오는 소박한 편정이 아니었다.
 화려한 수도를 떠나 포전길에 처녀시절의 모든것을 묻으며 거름짐을 지고도 값높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농장원 엄정실의 깨끗한 순정으로, 달빛밝은 유보도에 사랑의 자욱보다 경기장바닥에 무한한 투지의 땀방울을 먼저 새기며 세계에 《조선녀자축구지진》을 일으켰던 처녀선수들의 그 땀의 무게로 영원히 지지 않을 처녀시절의 사랑의 세계를 안기를 바란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추억속에, 조국의 기억속에 그들 한드레벌의 선동원이며 축구《녀왕》들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처녀로 길이 남아있다.
 리금숙선수가 아버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결혼식상을 받아안았을 때 그와 함께 온 나라의 처녀들이 얼마나 가슴벅찬 환희를 느꼈던가. 땀배인 운동복과 훈련장, 경기장에 처녀시절을 바친 그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내세워주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장군님 안겨주신 처녀시절의 값높은 표창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처녀시절은 결코 애뜻한 유혹으로 서둘러 저버릴 향락의 한시절이 아니거니, 부강하는 조국의 현실에 숨쉬며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처녀시절은 마땅히 자기를 잊고 사는 시절, 향유라는 범속한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을 열렬히 불태우는 시절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의 처녀시절은 나의것이 아니다. 명실공히 조국을 위해 깡그리 바치는 시절로 되어야 할것이다.
 금방 훈련의 땀을 흘리며 달려가던 저 체육선수 처녀들도 이렇게 한목소리로 대답하리라.
 어디선가 창조의 성과를 기대하며 밤을 밝힐 또 다른 처녀들의 목소리도 합쳐...
 깊어가는 이밤.
 나는 나의 처녀시절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처녀들과 이야기한다.
 어떻게 살가? 어떤 처녀시절을 살아야 할가?
 너는... 나는...

가 사

영웅의 수첩 나의 수첩

리 광 선

포화의 언덕에서 영웅이 펼쳐던
 그 수첩 오늘은 나도 펼치네
 더운 피 붉게 물든 글줄이어서
 병사의 변함없는 맹세를 적네
 아 영웅의 수첩 나의 수첩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그 노래 오늘도 이 가슴 뚫이네
 영웅이 피로 쓴 시구절따라

병사의 영원한 노래 부르네
 아 영웅의 수첩 나의 수첩

총잡은 세대는 바뀐다 해도
 영웅의 그 낮은 이어지리라
 결전의 그날엔 총대와 함께
 온 나라 전호에서 수첩은 펼쳐치리
 아 영웅의 수첩 나의 수첩

눈오는 날 농장처녀들 서정

리 근 지

눈 꽃 보 라

애들아 오늘은
하늘도 눈꽃보라 뿌리누나
우리 어깨에 머리에 얼굴에
지난해도 알곡계획 넘쳐했다고
저 먼 하늘나라에서 보내는 인사했지

오늘은 청년분조 무어진 날이라
칠칠 검은 쌍태머리에
함박눈꽃 단장하고
멋진 사진 찍으러 갈가
노래부르러 회관으로 갈가

아 엿저녁 텔레비존에서
눈덮인 들길 걸으시던 장군님 뵈고
자식된 도리 다하지 못한 죄스러움에
장군님영상 그리며 잠 못 들었지

농사일 얼마나 근심되시였으면
어깨 무겁게 눈을 얹으시고
매운 바람 부는 들길 걸으셨을가
눈이 오니 더더욱 목메는 생각

애들아 사진찍자던 약속 뒤로 미루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라는데
장군님 기뻐하시는 금나락속에
우리 웃는 환한 얼굴도 있거니
오는 눈 쌀산처럼 쌓으러 별로 나가자

두별농사 땅이 꺼지게 지은 가을
아버지장군님 우리 분조에 꼭 모시고싶은
스무해넘어 가슴속에 간절한 소원
영광의 그날 말씀드리자꾸나

겨 울 향 기

눈은 펄펄 내려도
얼마나 푸근한가 봄날갈구나
눈에 입에 날아드는 눈송이 눈송이
짜릿이 폐부를 찌르는
봄을 앞세운 겨울의 향기란다

둘같이 언 부식으로 팽이날 튕겨도
소매자락 씩 걷어붙인
넘쳐나는 팔뚝힘에
한아름씩 짹짹 갈라질 때면

화끈 단 얼굴에 눈송이 얼마나 시원한가

삽이며 팽이날 꼭 박고
높아만 가는 거름더미
쌀산처럼 쳐다보며 너무 좋아
까르르... 들에 쏟는 웃음은
벼 알알이 쏟아지는 소리란다

이마의 땀 쓱 문지르니
아득한 별 설레는 금나락속에
장군님 환하신 미소 안겨와
일하고 일해도 흥겹기만 한데
안타깝구나 짧은 겨울해

애들아 하루계획 넘쳐했다 땀뺀지 말자
장군님사랑속에 자라 철이 든
떨된 도리 다하자고
처녀시절 구슬땀 흘리는 우리
늪엿늪엿 지는 해 무슨 상관이람

아, 얼굴에 입에 날아드는 눈송이
더 들이키고만싶은 겨울의 향기란다
눈오는 들에 풍작을 안아오려
장군님을 가을벌에 모실
우리만이 느끼는
겨울의 독특한 쌀향기란다

노 래 부 르 자

노래없이야 꽃같은 청춘시절이라
노래없이야 흥성이는 청춘들 일터라
하늘도 축하의 꽃보라인양
눈꽃을 내려보내는
이런 날 부르지 않으면 무슨 노래랴

하늘땅 가득 드리운 눈은 그대로 무대막
넓은 벌은 그대로 우리 나선 랑만의 무대
윙윙... 부는 바람은 정열에 타는 기악합주
헤이, 헤이 삽질소린 어깨들썩이는 우리 장단

순희야 종다리같은 너의 《밭갈이노래》
영옥아 영근 난알 굴리는 너의 《풍년가》
로동속에 다듬고 토크온 고운 목소리
가슴에 묻어두고 언제 부른답

가을이란 땀으로만 가꾸는것이 아니란다
흥겨운 로동의 노래속에 실려오거니

아, 장군님 선군길에서 올려주시는 노래
일년내내 부르며 벌에서 산 우리

노래없이야 희열에 넘친 청춘이라
노래없이야 가을을 안고 사는 청춘이라
넓은 벌은 그대로 우리 랑만의 무대
애들아 부르자 희망찬 로동의 노래를

이제 하늘땅에 드리운 눈막이 열리고
꽃피는 봄 푸른 여름 흥겨운 로동속에 흘러가면
온 벌이 오품백과 춤무대로 펼쳐지려니
그때 우리 부를 노래 얼마나 아름다우라

가을인걸요

눈보라 뽕뽕... 출단 말 말아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야 풍작이 드는걸요
숨옷 벗어던진 불 이는 일손에
에헤야 구슬땀도 알알이 난알로 맺히는걸요

갓 스물 넘긴 꽃나이 아껴 무얼 한담
낱아 키워준 조국에 바쳐야 꽃나인걸요
거름더미 움쉴움쉴 쌀산으로 솟으니
에헤야 가슴엔 온통 금물결 이는걸요

두엄 한차면 쌀 한차
이제 우리 흘린 땀 밤을방울이
벼이삭에 알알로 무겁게 실리려니
에헤야 흥조비긴 얼굴들에 가을이 웃는걸요

눈보라 뽕뽕... 모닥불이 무슨 필요하담
풍요한 가을을 안아보는 이런 날 더 좋아
매운 바람도 햇살향기로 안겨오니
에헤야 소매자락 또 한번 썩 걷으면
가을길인걸요

오늘 저녁에는 회관으로 가자

《벌써 해지는구나!》
산같은 거름더미 쌓아놓고도
일욕심 많은 누군가
지는 해 아쉬워하는 소리

하지만 오늘은 이만 일 끝내고
애들아 합숙으로 달음쳐가자
아직 상표도 떼지 않은 《봄향기》
고급크림이며 분으로 품들여 화장도 하자

모관방풍장이며 뜰나래도 다 엮고
퇴비도 듬뿍듬뿍 넘어냈으니
찬바람에 튼 입술에 연지도 살짝 찍고
오늘은 우리 회관으로 가자

순희야 너 자꾸 총각분조에 눈파니

똑쟁이 분조장과
수로길 밤늦도록 거닌걸
우리가 다 아는데
아이참 너희들 2중창도 멋있겠구나

선경같은 고향땅에
로동으로 한껏 무르익은
얼마나 아름다운 저녁이나
장군님 오시면 황금낭가리와 함께
로동속에 꽃핀 우리 노래도 기쁘드리자꾸나

애들아 합숙에 들러
우리 경쟁자 총각들 얼굴에도 크림 듬뿍
옷도 다림질로 칼날세워주고
떠들썩 회관으로 함께 가자

소원

청년분조 꾸린 첫해부터
한해에 두벌농사 지으며
키도 마음도 커질수록
장군님 뵈고싶은 그리움에 산 우리

눈오나 비오나 일년열두달
새별 이고 나가 달 지고 들어와도
아버지장군님 뵈을 그날만 안고
되돌아 들을 가꾼 삼백예순닷새

깊은 밤 차소리만 들려도
현지도 가시는 길에 들릴것만 같아
동구길로 달려나가
잠 못 든 날은 얼마였던가

눈오는 이런 날은 농사일 걱정되시여
그 어느 농장별 견고계시지 않는지
생각할수록 눈곱만 뜨겁게 젖어들어
풍년별에만 모시고싶은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벌에 넘쳐
올해는 우리 분조에 꼭 모실 기쁨안고
눈오는 날도 풍년을 그리며
더운 땀 아낌없이 흘리는 우리

애들아 하늘땅 어떻게 익은 가을
아버지장군님 분조에 모시고
우리 손으로 논밭도 갈고 논물도 보며
두벌농사 지은 자랑 다 말씀드리자

말씀드리자
늘 간절한 우리 소원을
— 아버지장군님
농사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는 논두렁길
더는 걷지 말아주십시오!



김 명 진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도미술창작사에서 일하면서 창작에만 열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처녀를 사귀다니... 하긴 그럴 때도 되었다.

내가 그의 애인을 처음 알게 된것은 얼마전이었다. 서중군에 한달남짓이 가있으면서 아들 명수가 그려온 습작품들중에서 한 처녀의 초상을 보게 된 것이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초생달처럼 휘여든 눈썹, 맑고 서글해보이는 눈, 끝이 조금 쳐들린 매력있는 코, 꼭 다물린 입술... 아름다운 얼굴이어서 그런지 어딘가 낯익어보이는 모습이었다.

《이 처녀는 누구냐?》

나의 물음에 아들녀석은 얼굴이 빨개지며 눈길을 떨어뜨렸다.

《저... 서중에서 알게 된 동무예요.》

더 물어보나마나였다. 대학기간에도, 사회에 나와서도 결눈 한번 팔지 않던 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마 마음에 꼭 들어서일것이다. 하긴 명수가 반할만도 하였다. 지성미가 있어보이는 얼굴이 내 마음에도 들었다. 아들의 가슴에 이미 한 처녀가 자리를 잡은데야 부모가 마다할 리유가 어디 있으랴.

《집에 한번 데려오려무나.》

나는 아들에게 선선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로부터 보름가량 지난 어느날 명수가 그 처녀를 집에 데리고왔다. 고개를 깎듯이 숙여 인사를 하는 그의 얼굴을 보니 초상그림과 신통히 꼭 같았다. 그런데 수집음을 타는듯 발그레하니 물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듯 한 낯익은 인상을 받게 되는것이였다. 나는 처녀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신정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오?》

《서중건설전문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합니다.》

물기를 머금은듯 한 목소리로 맑고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도교육국에 불일이 있어 새벽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하였다.

《음—》

나는 손으로 턱을 어루쓸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처녀가 나무랄데 없어보였다. 인물이 환하고 행동거지도 부드럽고 직업도 마음에 든다. 내가 한평생 설계원으로 일하고 건설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어서인지 건설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정희에게 별로 친근감을 느꼈다.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를 맞고싶은 소원이 성취되는듯 싶어 마음이 흐뭇해졌다.

《거기 편히 앉으라구.》

나는 정희가 우리 식솔이 다되기라도 한듯 허물없이 대하며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몇살인가, 고향이 어디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 지금 스물여덟살이며 서중군에서 태어났고 건설건설대학을 졸업하였다는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안해가 파일을 들여왔다. 안해도 처녀가 마음에 드는듯 얼굴에서 웃음이 가실줄 모른다.

내 마음도 다들바 없었다. 처녀가 집안에 밝고 청신한 기운을 끌어들인듯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나는 처녀가 어려워하지 않도록 배를 한알 집어들며 물었다.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오?》

《서중지질탐사대에서 일하십니다.》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오?》

《신현규라고 합니다.》

(신현규, 신현규라...)

나는 입속으로 되뇌였다. 그 이름이 어딘가 귀에 익어보였다. 어디서 들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하긴 생활에는 비슷한 이름을 듣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헌데 처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이름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정희가 돌아간 다음 책상에 마주앉아 설계도면을 펼쳐놓았으나 왜서인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신현규라는 그 이름만 계속 속으로 되뇌이게 되는 것이었다.

부질없는 상념을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흔들며 참고서적을 뵙으려던 나는 번쩍하는 섬광과도 같은 생각에 흠칫 굳어졌다.

(신현규... 그래, 그의 이름이 바로 신현규였지.)

너무도 뜻밖이어서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그럼 정희가 그 신현규의 딸이란 말인가?)

생활에는 우연한 상봉이 많지만 신현규의 딸을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으랴.

나는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깊은 추억에 잠겼다.

...40여년전 내가 고급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학급에 신현규라는 동무가 있었다. 눈썹이 초생달처럼 휘여들고 얼굴이 곱살하게 생긴데다 성미까지 참하여 동무들속에서 《색시》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별치 않은 말에도 부끄럼을 타며 얼굴을 붉히곤 하는 그에게는 《색시》라는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었다. 그 《색시》와 늘 함께 다니는 나를 보고는 《신랑》이라고 놀려주었다. 사내답게 생기고 주먹이 센탓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정황에서는 《색시》를 늘 보호해주었기때문이었다.

나와 현규는 집이 나란히 이웃에 있어 우리는 늘 함께 다니곤 했다. 허나 그보다 우리를 든든한紐대로 이어준것은 뜻이 통해서였다. 꿈많은 시절이어서 서로가 앞날의 희망을 열렬히 토로하곤 했는데 놀랍게도 현규의 꿈이 내 희망과 꼭같았다.

건축가, 이보다 훌륭한 직업이 어디 있으랴. 인간은 이 땅에 남기는것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설계한 창조물을 이 땅에 남겨놓는것보다 더 보람있고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으랴. 지금부터 부지런히 지식의 탑을 쌓아 미래의 훌륭한 건축가가 되리라. 이것이 나와 현규의 생활의 리상이고 목표였다. 우리는 서로 지지해주고 고무해주며 열심히 공부하였다.

《신랑》과 《색시》는 언제나 붙어살다싶이 하였다. 《신랑》이 있는 곳에는 《색시》가 있었고 《색시》가 가는 곳에는 《신랑》이 따라다니었다.

하루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건축, 설계와 관련된 책은 다치는대로 모조리 읽었다. 책을 읽고나서는 자기의 견해를 내놓으며 열렬히 논쟁하던 그 낮과 밤들... 그 나날에 우리들, 미래의 건축가들의 키는 나날이 자랐다.

어지간히 담이 커진 우리는 그때까지 쌓은 지식을 써먹어볼겸 우리 학교를 새롭게 설계해보기로 하였다. 물론 착상은 내가 하였고 현규도 쌍수를 들어 지지해나섰다.

기본교사와 보조교사, 체육관, 실습장, 교재원... 우리 비록 학생이지만 모교를 멋지게 설계하여 선생님들을 깜짝 놀래우자, 후날 우리의 설계로 모교가 건설되면 영원한 추억의 창조물로 될것이 아닌가. ...

우리는 당장 일에 달라붙었다. 먼저 교정을 돌아보며 구상을 무르익혔고 며칠후부터는 이마를 맞대고 마주앉아 밤늦도록 도면을 펴놓고 자기 의견들을 내놓으며 토론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티각태각하였다. 내가 내놓은 의견은 현규가 마음에 들지 않아하였고 현규가 내놓은 의견은 내가 반대하였다. 하나의 선을 굽는데도 둘이 얼굴을 붉히기가 일쑤였다. 뜻밖이었다. 어찌된 일인가. 하나의 희망으로 꼭같은 생활의 길을 걸어온 우리, 책도 같은 책을 읽고 생각도 같은 생각을 해 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는 한장의 도면도 그려낼것 같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 서로 저마끔 도안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좋은것들을 골라 합치도록 하자.》

나의 의견에 현규도 동의하였다.

나는 형성도안을 한주일만에 완성하였다. 가지고있는 지식을 깡그리 동원하여 작성한 도안을 훑어보고 제판에는 만족하였다. 그런데 현규는 열흘, 보름이 지나도록 내놓지 못하였다.

《여, 뭘하는거야?》

내가 독촉하면 현규는 매번 미안한 어조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끝이 없었다. 나는 속에서 불이 일었다. 역시 《색시》는 할수 없군. 저 소심하고 꿈한 성미에 무슨 일을 칠텐가, 《색시》와 일을 같이 시작한 내가 어리석었지. 나는 현규에 대한 불만을 누를수 없었다.

현규는 근 한달만에야 겨우 형성도안을 내놓았다. 나는 그의 도안을 보고 실망하였다. 나의 도안과 너무도 달랐던것이다.

우선 기본교사의 크기와 형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내가 그린 도면은 덩치가 크고 큼직큼직한것이 남성적이였다면 현규의것은 어딘가 소심하고 체소해보였다. 보조교사, 체육관, 교재원... 모든것이 내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눈에 차지 않았다.

《이 체육관은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교재원이 여기 놓이면 어찌자는거야?...》

나는 도면을 손으로 꼭꼭 짚어가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형성도안에서 현규라는 인간의 전모를 새롭게 보는듯싶어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현규는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내 의견을 다 듣고 나자 또렷이 말하였다.

《또 소총명을 부리누나. 넌 왜 남의것을 무시

하고 제것만 똑 제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오히려 나를 역습하는것이였다. 자기의 창조물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만 곁이 나서 우격다짐으로 나갔다.

《색시같은게, 말하면 들을게지 무슨 말이 많아?!》

《뭐라구?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야?...》

하마터면 싸움이 일변 하였다. 저마다 자기의 주전을 내세우며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도안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보라빛 꿈은 하늘로 날아가버렸다.

그때에야 나는 우리들사이에는 그 무엇인가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성격도 사고도 행동도... 두사람의 차이점을 왜 진작 알지 못했는가. 지향은 같아도 그와 손잡고서는 그 무엇도 해내기 힘들리라는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너자처럼 생긴 그의 곱살한 얼굴에 환멸을 느끼었다. 그의 얼굴에 소심하고 나약하며 구실을 못하는 그의 전모가 다 비껴있는듯 했다.

그때부터 우리들, 《신랑》과 《색시》 사이는 저절로 벌어졌다.

얼마후 나는 전설전재대학에 입학하고 현규는 군대로 나가면서 우리는 서로 헤어졌다. 그때 받은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편지조차 하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나의 머리속에서는 점차 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갔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설계사업소에 배치받았다. 바라던 꿈을 실현한셈이였다. 얼마나 많은 설계들이 내 손에서 태어났던가. 극장, 학생소년궁전, 도급기관들, 살림집들...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생긴것처럼 설계도 〈미남자〉 구만.》

일떠서는 건축물들을 볼 때면 나는 더없는 긍지와 만족감을 느꼈다. 인간은 이 땅에 자기의 창조물을 남겨야 한다던 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있지 않는가.

그 나날에 나도 성장하였다. 몇해후에는 실장으로, 그다음에는 기사장으로...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눈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인간으로서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곤 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년세월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곧바로 걸어왔다. 생활에서 이만큼 성공하는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그런데... 현규는 어떤가. 그의 일은 여의치 못했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건축설계와는 인연이 먼 지질탐사대에 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동무들을 통하여 들었다. 서중군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노상집을 떠나 산발을 타고다닌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한가닥련민의 정을 느꼈다. 학창시절의 꿈을 산속에 물어버리고마는구나, 그도 나와 같은 길에 들어섰더라면... 아니, 그렇

다 해도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것이다. 그의 앞날을 학창시절에 그렸던 그 설계도에서 이미 보지 않았던가. 아마 그도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기에 건축을 버리고 지질탐사부문에 방향전환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쉬움과 동정이 깔린 현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점차 희미해져갔다.

그런데 우리들사이에 뜻밖의 교차점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내가 기사장으로 임명받은 얼마후에 있는 일이었다.

나는 장자강기슭의 서중읍거리를 걷고있었다. 군의 일군들과 함께 읍건설전망을 토론하고나서 산책을 하는 길이었다. 그때 한옆에서 나를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이 반색을 하며 달려왔다.

《지 명국동무 아니야?》

나의 손을 다짜고짜로 잡고 흔들어대는 사나이를 나는 얼떠름하여 바라보았다. 동실한 얼굴, 서늘해보이는 눈... 신현규였다.

《이거 얼마만인가. 자네가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만날줄은...》

세월은 어제날의 《색시》를 몰라보게 변모시켜놓았다. 어렸을 때보다 어깨도 넓어지고 몸도 실박해보였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배낭이 얹혀있었다. 퇴색한 배낭끈이 두어개를 깊숙이 파고들고있었다. 험한 산발을 타고다녀서인지 신발뒤축이 몹시 닳은것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무얼 그렇게 무겁게 짊어졌나?》

《응, 이거... 광석시료일세. 천마산에서 따낸건데 분석을 해보려고...》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게면쩍게 웃는 그의 얼굴은 어쩐지 불깃해졌다.

부끄럼을 타는 얼굴이며 가늘게 울리는 목소리... 그는 여전히 《색시》였다.

《도시설계사업소에서 기사장을 한다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한줄 아나. 축하하네.》

다른 사람도 아닌 현규한테서 이런 인사를 받는것이 어쩐지 거북스러웠다. 나 혼자만이 성공의 문어구에 들어선듯싶어 자신을 될수록 낮추려 했다.

《지질탐사대가 어째서... 그 부문 사업도 중요하지. 도에서 광맥을 찾아야 할게 얼마나 많은가.》

나는 현규가 무안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다. 남이 오른 성공의 언덕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이 어떨할텐가. ...

《자네가 땅우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가고있을 때 우리는 광석을 찾아 땅속을 뒤흔치고있지. 보이지 않는 보물을 찾아내는것이 결코 험치 않아.》

이렇게 말하며 웃음짓는 현규를 보는 나의 마음은 왜선지 허우룩했다. 하긴 쉬운 일이 어디 있으랴. 이왕 그 길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부디 그 길에서 성공의 빛을 보기를 바랄뿐이였다.

문득 현규는 길가에서 나를 붙잡고있는것이 미안쩍은듯 내 손을 잡아끌었다.

《우리 집으로 가세. 여기서 멀지 않다네.》

나는 그의 청을 적당히 물리쳤다. 지금 바쁜 일이 있어 후날에 들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와 헤어졌다.

그러나 그와 약속한 《후날》을 감감 잊어버린 채 세월은 흘렀다. 이제는 신현규라는 이름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그 존재가 희미해졌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 신현규의 딸이 나의 머느리 감으로 내앞에 나타난것이다. 생활은 우리들 사이에 뜻하지 않은 교차점을 마련해놓았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그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나서기 전에 거울앞에서서 몸단장을 하였다. 머리를 빗고 크림을 바르고 향수도 조금 뿌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가꾸어서인지 60이 멀지 않은 오늘에도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진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7~8년은 젊어보인다고 한다. 듣기 싫지 않은 소리이다.

나의 얼굴에는 만족한 웃음이 실려있었다. 무엇인가 큰일을 하고났을 때 절로 떠오르는 웃음이었다. 여러달동안 품을 들인 또 하나의 설계가 내 손에서 태어난것이다.

서중군에 새로 건설할 거리형성안이였다. 서중군에 기계공장이 일떠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 거리의 형성안을 만들 과제가 나선것이였다. 그 과제를 내가 스스로 맡아나선것이였다. 이미 여러개의 거리를 설계한 경험을 가진터여서 별로 어렵게 생각할것도 없었다. 설계는 일사천리로 진척되어나갔다.

그런데 설계가 거의 끝나갈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다. 서중군에서 자체로 몇개 대상을 설계하였는데 도에서 내려와 심의해달라는것이였다.

이건 또 뭔가? 지금 여기서 그곳 설계를 한창 하고있는데 자체로 설계를 내놓다니? 우연이기는 하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설계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도에서 하는것을 모르고 자기나름으로 한 것이겠지, 하긴 군에서 자체로 한것이라니 그 수준이야 뻔한것이겠지.

나는 여기서 바쁜 일을 넘기고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내려가 료해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고는 일에 열중하다나니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다.

오늘이 바로 설계를 심의에 내놓는 날이다. 며칠동안 검토해보았는데 그만하면 무난하게 된듯싶어 마음이 놓였다.

《그 얼굴생김처럼 설계도 〈미남자〉입니다.》

어제날에 들던 그 칭찬을 오늘 다시 듣게 되리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대가 그날로 된서리를 맞고 자신을

심각하게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되게 될줄이야. 바로 그날 저녁에 열린 협의회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졌던것이다.

내가 내놓은 설계안이 그만에야 부결되었던것이다. 리유는 언젠가 내놓은 다른 군의 설계안과 유사하다는것이였다. 아무런 창조성도 없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의것을 답습한다는것이였다.

나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제판에는 자신있다고, 또다시 선망의 눈길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내놓았던 설계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다니...

그날부터 나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셔졌다. 침울한 마음으로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았다.

설계가로서 첫 자국을 떠던 그 시절에는 그래도 설계를 참신하게 해보려는 사색과 탐구,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로 하여 설계들이 《미남자》로 태어나군 했었다. 《재능있는 설계가》,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이런 귀맛좋은 소리를 듣는 사이에 머리에 쏙이 쏘였던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을 제일로 여기게 되였다. 현실을 보는 눈이 무디여지고 일을 적당히 하는 요령이 생기였다. 그러는 사이에 현실은 나를 떨구고 멀리 전진한것이였다.

나는 뻥뻥한 눈으로 서중군거리형성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놀라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끈해 보이던 그 설계가 결함투성이로 보이는것이였다. 《구태의연하다》 느니 《창조성이 없다》 느니 하던 말들이 바로 이 설계를 놓고 한것이였다.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되어가고있는데 나의 사고는 얼마나 뒤떨어져있는가.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은 가꾸어왔지만 마음은 가꾸지 못하였다.

나는 도면을 밀어놓고 고민에 잠겼다. 설계를 다시 시작하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굳어진 나의 머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설계가 갑자기 태어날수야 없지 않은가.

문득 얼마전에 서중군에서 제기되었던 설계가 생각났다. 그때는 그것을 무심히 넘기였지만 이제는 그럴수 없었다. 내가 작성한 거리형성안이 잘 되지 않을걸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듯 군에서 그런 설계가 제기된것은 얼마나 공교로운 일인가.

허나 나는 그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군에 내려가 료해해보아야 알겠지만 한다하는 전문기관에서도 고심하고있는것을 군에서 자체로 설계해뒀다니... 어쩐지 미덥지 않았다.

아무튼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며칠후 서중쪽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풍요한 가을이였다. 차창밖으로는 단풍이 질어가는 높낮은 산밭들과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 엇바꾸어 흘러갔다.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열매

들이 익어가는 구수한 향기가 흘러들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서중군을 가까이할수록 나의 마음은 착잡했다. 현지에서는 어떤 설계가 기다리고있을가, 설계자는 누구일가, 심의를 의뢰했을 때는 그래도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텐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참, 서중군에 신현규가 있지. 얼마전에 만나본 그의 딸 신정희, 그도 건설건재대학을 나왔다고 했지, 아들과 정희의 문제도 인차 매듭을 지어야겠는데... 이래저래 생각이 번거로웠다.

어느덧 열차가 서중역에 도착했다.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중나와있었다. 군인민위원회청사에 이른 나는 2층의 넓다란 방으로 안내되었다.

《우선 좀 쉬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계도면부터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초조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위원장이 두터운 설계도면을 꺼내 펼쳐놓았다.

도면은 여러장이었다. 총계획도와 그것을 세분화한 군문화회관, 학생소년회관, 봉사당, 살림집 등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훑어보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닥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던 설계는 그야말로 새롭고 특색있었다.

넓고 곧게 뻗은 도로의 양옆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모양으로 특색있게 배치된 건물들, 군문화회관과 학생소년회관,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자기나름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배치되어있었다. 건축물의 양상도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미에 의해 서로 구별되면서도 같은 류형의 건축물들을 일정한 범위에서 반복배치하였다. 또한 건설에서 지방자재를 쓰게 한것이라든가 눈이 많이 내리는 이곳의 기후를 고려하여 지붕경사를 급하게 준 것 등도 마음에 들었다.

그중에서도 이채롭게 안겨오는것은 학생소년회관설계였다. 형식과 모양이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한 경쾌감을 주면서 밝고 발랄하게 설계되었다. 도면만 보아도 학생소년회관이 아이들을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는듯싶었다.

도면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나를 지켜보던 부위원장이 기대어린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고난 나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안을 성급히 거닐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적이 태어났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이 산간군에서 이렇게 훌륭한 설계가 태어나다니?! 참으로 놀라왔다.

《이 설계도면을 그린 주인공은 누구니까?》

《예, 여기 건설전문학교 교원입니다. 신정희라고 젊은 녀선생입니다.》

부위원장이 고뿔에 물을 따라주며 대답했다.

《신정희라고요?!》

나는 흠칫 굳어졌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가 우뢰소리처럼 울렸던것이였다. 내가 어지간히 놀라는것을 본 부위원장이 되물었다.

《그 선생을 알고있습니까?》

《예, 그저 좀...》

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선생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부위원장의 눈길이 내속을 꿰뚫어보는듯 했다.

그래, 신현규의 딸 신정희가 이처럼 훌륭한 설계를 했단 말인가? 그러니 신현규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의 딸이 이루었던 말이지. 한시바삐 신정희를 만나고싶었다. 만나서 그를 축하해주고 묻고싶었다. 어떻게 되어 이런 설계를 해낼수 있었는지.

《만나봅시다, 만나봅시다.》

나는 흥분을 견잡지 못하고 성급히 되뇌었다.

《그러지 않아도 정희선생을 불렀습니다.》

부위원장이 방에서 나간지 얼마 안있어 복도에서 가벼운 발걸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신정희임을 느꼈다.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처녀가 조용히 들어섰다. 발그레하게 상기된 이마에 머리카락이 몇오리 내리드리웠다.

《안녕하십니까?》

손으로 내리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올리며 인사를 하는 신정희의 얼굴은 전보다 더 환하고 아름다와보였다. 싱싱한 건강미가 넘치는 몸에서는 생기가 풍기였다. 나는 마주나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다시 만났구만.》

정희는 수집음을 타는듯 얼굴을 붉히었다.

《정희동무, 방금 설계를 보았소. 정말 수고를 했더구만.》

나는 흥분을 누르려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

《그런데... 전번에 집에 왔을 때 왜 설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소?》

《그건... 선생님을 처음 뵈옵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난 정희가 설계에 이렇듯 조예가 깊은 재간둥이인줄은 정말 몰랐소.》

치하의 말에 정희는 더욱 얼굴을 붉히었다.

《그런 말을 듣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설계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은 저의 아버지노력이 더 컸을거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놀랐다. 그럼 신현규가... 이렇듯 훌륭한

설계를 한 주인공이 신정희인줄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는 신현규가 서있다니... 어제날 첫 설계에서 실망을 자아내던 신현규, 그후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기억에서 사라졌던 사람, 지질탐사부문에서 일하면서 학창시절의 꿈을 산속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선뜻 믿을수가 없었다. 신현규가 이런 설계를 내앞에 내놓았다는것이 꿈같이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그의 딸 정희가 내앞에 앉아있고 설계도면이 책상우에 펼쳐져 있지 않는가.

《정희동무, 아버지께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수 없겠소?》

나는 정희의 앞에 다가앉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십년만에 옛친구의 모습을 정희의 얼굴에서 다시 보는듯싶어 감회가 새로왔다.

《뛰 이야기할만 한게 못됩니다.》

처녀는 머리를 수그리며 저어했다. 내가 거듭 말해서야 나직이 입을 뗐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지향하며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전 지질탐사사업이 아버지의 생활의 전부라고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중학교를 졸업할무렵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기의 앞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있었습니다. 무용수가 되어 무대에 설것을 그려보기도 하고 연구사가 될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건 아버지의 오랜 꿈을 풀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사실 나는 어렸을적에 건축가를 꿈꾸어왔었다. 하지만 군사복무를 마치고 지질탐사부문으로 방향전환을 했다. 그때 공업의 척후병인 지질탐사부문에서는 우리 제대군인들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일에 나의 모든 심혈을 바쳐왔고 그 길에서 생의 보람을 찾아왔다.》

사실 아버지는 탐사대 중대장으로서 나라에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광물을 여러개나 찾아 당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공적을 평가하여 나라에서는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산속에 묻혀산다고만 생각했던 그가 그런 큰일을 하다니... 내뻘에는 성공의 언덕우에서 그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했건만 그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서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못다한 일이 있는듯 밤마다 책상우에 도면을 펴놓고 무엇인가 그리며 모대기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 그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난 항상 읍거리를 지날 때면 여기에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해왔다. 자기가 사는 고장을 자기 힘으로 훌륭하게 꾸려놓는게 이 땅에 태를 묻고사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나.

물론 우리 군이 산골군이어서 다른데 비해 조건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건설해주기를 팔짱끼고 앉아 기다릴수야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 짬짬이 좀 그려보곤 한다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도면두루마리를 내놓는것이였습니다. 보풀이 인 그 도면들에는 우리 읍거리형성도안이 그려져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을 보고 잘 알수 없었지만 전 그 도면들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만은 느낄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을 다른 고장 못지 않게 잘 꾸리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되여 아버지의 꿈은 저의 꿈으로 되었고 전 건설전재대학으로 가게 되었던것입니다. 저의 이 도면은 아버지의 그 도면을 완성한것입니다.》

나는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아, 신현규, 그가 그런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던 말인가?!...

정희가 손목시계를 얼핏 들여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왜 무슨 일이 있소?》

《강의가 있어서...》

《그래, 그럼 가보아지.》

나는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신정희와 그의 아버지께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싶었는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희는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나는 그를 배려주며 래일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는 혼자 남아서 설계도면을 다시 검토해보기 시작하였다. 내가 혹 잘못 본것은 아닐가, 부피두터운 도면을 즉흥적으로 보고 서둘러 흥분한것은 아닐가, 나는 자신을 가다듬고 냉정한 눈으로 한장한장 검토해나갔다. 학생소년회관, 문화회관, 살림집...

보면 볼수록 처음의 흥분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아니, 잘못 보지 않았다. 어떤 도면은 그 진가가 새롭게 느껴지며 더 훌륭하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설계의 가치를 느낄수록 이 도면의 주인공들인 신현규와 신정희에 대해 더 깊이 알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이튿날 나는 군당과 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만나 설계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였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제 오늘 받아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색을 정돈하고싶었다.

세월의 흐름속에 잊어버렸던 어제날의 옛친구, 성공의 언덕에서 내려다보인다고만 생각했던 신현규가 새롭게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와 자신을 비교해보게 되었다. 그럴수록 자기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낮이 깃들어있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그 설계도면에 나자신의 《얼굴》을 비추어보았다. 어딘가 구태의연하고 진부하게만 느껴지는 모습… 얼굴은 미끈하게 다스렸으나 마음속에는 자족과 침체의 때가 앉았다. 그러다나니 나의 설계에서는 시대의 숨결도 새것에 대한 지향도 노력도 없지 않는가. 그 낡고 뒤떨어진 설계를 대담하게 버리고 신현규와 정희의 설계를 살려주어야 한다. 그와 함께 나의 사업과 생활에서도 변혁이 있어야 한다. 어제날에는 자기자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해왔다면 이제는 시대의 요구를 기준으로 나자신부터 재평가하여야 한다. …

(저녁에 정희가 오겠다고 했지.)

나는 저녁에스름이 깃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희한테서 다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었다.

얼마 지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왔구나!)

나는 몸을 돌리며 대답하였다.

《들어오시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은 뜻밖에도 아들 명수였다.

《네가 어떻게?...》

《현지창작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명수는 벌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럼 정희부터 만나봐야지.》

《그 동무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명수는 얼굴을 붉히었다. 아마 아버지보다 처녀를 먼저 만났기때문일것이다. 나는 그의 무안감을 덜어주려고 여기 와서 정희의 설계를 보고 정희를 만난 이야기를 하였다.

《정희도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더구나. 내가 여기 와서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훌륭한 설계를 본것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을 새롭게 알게 된것이 더 기쁘구나.》

나는 가슴에 차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더놓았다. 묵묵히 나의 이야기를 듣던 명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정희동무한테서 들은 이야긴데… 말씀드릴까요?》

《그래라.》

내가 머리를 끄덕이자 명수는 자리를 고쳐앉고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희동무가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건설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자 제일 기뻐한것은 그 동무의 아버지였답니다. 이제야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래동안 무르익혀온 거리형성안을 다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늘 산에 나가 살다싶이 하면서도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정희동무의 설계를 보아주고 미숙한 점들을 바로잡아주곤 하였답니다. 지대적특성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들, 새롭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 정말 정희동무의 설계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아버지의 뜻과 숨결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고도 정희동무가 난관앞에 주저앉거나 만족을 느끼려하면 아버지는 채찍질하며 손잡고 이끌어주었다고 합니다. 학생소년회관을 설계할 때 있는 일입니다. …》

…정희는 여러날 품을 들어 그린 설계도면을 아버지앞에 조심스레 내놓았다.

(무어라고 말씀하실가?)

아버지는 안경을 끼고 도면을 이윽히 들여다보고나서 아무 소리없이 담배를 붙여물었다. 담배연기만 피워올리며 말이 없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정희의 가슴은 한껏 조여들었다.

《이 도면을 그리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뜻밖의 물음에 정희는 어리둥절해졌다.

《이 회관에 들어서는 아이들을 그려보았냐?》

정희는 그만 눈길을 떨어뜨리고말았다. 아버지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굴부터 보게 된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야 하느니라. 그것은 그 얼굴에 그의 성격과 마음, 내면세계가 다 비껴있기때문이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이 건물은 아이들을 위한 소년회관이 아니냐. 그러니 아이들을 어서 오라 부르는 밝은 웃음을 띤 그런 모습이 소년회관의 〈얼굴〉로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네가 그린 도면에는… 그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굳고 딱딱하단 말이야.》

정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실망감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

《내가 그만…》

몸돌바를 몰라하는 딸을 보며 현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였다.

《며칠전 신문을 보니 동산군에서 학생소년회관을 새로 멋있게 건설했다는 기사가 실렸더구나. 그것을 그대로 본뜬것은 없겠지만 한번 가보고 참고하는게 좋을것 같구나.》

(동산군에?...)

동산군이라면 여기서 수백리 떨어진 곳이다. 거기까지 갔다오자면 며칠 품을 들여야 할텐데… 하지만 아버지에게 다른 대답을 할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때로부터 여러날이 지났으나 정희는 시간을 내지 못하였다. 수업이 바빠기도 했지만 그 먼 곳에까지 꼭 가봐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어서였다.

아버지는 탐사지에서 드문히 전화를 걸어 설계의 진척여부를 묻곤 하였다. 그때마다 정희는 웅색해서 허아래소리를 하곤 했다.

《아직…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자신을 위안하곤 했다. 아버지도 바빠서 그랬다는걸 이해해주시겠지 하고.

그러던 어느날 비가 억수로 퍼붓는 밤이었다. 누구인가 문을 두드렸다. 달려나가보니 온몸이 함뿍 젖은 아버지가 서있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희는 다급히 아버지의 젖은 옷을 벗겨주며 부산을 피웠다. 허나 아버지의 피로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피어있었다.

《이걸 보아라.》

아버지는 가슴속에서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겹겹이 싸놓은 것을 꺼냈다. 서둘러 펼쳐본 정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동산군 학생소년회관을 그려온 것이었다. 그림 아버지는 이것때문에 수백리 그 먼길을 다녀왔단 말인가. 그것도 비가 억수로 퍼붓는 이 밤중에…

《가보니 정말 참고할게 많더구나.》

《아버지!…》

정희는 목메어 부르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자기때문에 아버지를 고생시킨 죄스러움, 아니 하나의 설계를 위해 그렇듯 심혈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이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듯 했다. …

《아버지가 가져온 그 도면은 정희동무의 설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면에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거리를 일떠세우려는 정희동무의 불같은 지향이 어려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깊은 감동에 잠긴 나는 책상위의 설계도면을 끌어당겼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나서인지 새롭게 안겨오는 설계도… 이것을 어찌 그저 설계도라고만 할수 있으랴.

감회가 깊었다. 나는 어렸을적에 소심하고 참하기만 했던 현규의 성격에 환멸을 느꼈었다. 곱살한 그의 얼굴마저도 역겹게 보았었다. 헌데 오늘은… 설계도면에 비친 현규의 얼굴은 전혀 새롭게 느껴진다. 땅속에 묻혀있는 귀중한 광물들을 찾아낸것만으로도 자기 존재를 뚜렷이 한 사람, 어제날 품었던 소중한 꿈을 시대의 높이에서 꽃피우려는 열렬한 지향을 안고 불같이 사는 사람, 세월의 흐름이 그를 퍼그나 변모시켰을테지만 나는 분명 새로운 모습, 시대를 안고사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고있었다.

이때 문밖에서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신정희가 조용히 들어섰다.

《빨리 온다는게 그만…》

수줍은 얼굴을 한 정희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방금 우리 명수한테서 정희동무 아버지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소.》

《어쩌나…》

활짝 붉어지는 정희의 얼굴.

《정희동무, 아버지를 만나고싶구만.》

현규 그 사람과 헤어진지 까마득한데… 아마 무척 변했을테지?》

《우리 아버지를 알고계셨습니까?!》

정희는 놀란 눈길로 나를 지켜보았다. 명수도 놀랐다. 나는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누를수 없어 방안을 거닐었다.

《그럼 알고말고. 그 시절 우리는 언제나 붙어다니는 짝꿍이었지. 꿈을 꾸어도 하나의 꿈을 꾸고…》

《그렇습니까? 두분이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혼자소리처럼 외우던 정희의 얼굴이 문득 흐려졌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나. 아버지는 며칠전 새 탐사지로 떠나고 안계시는데…》

《그래?》

나도 역시 아쉬웠다. 허나 왜선지 섭섭하지는 않았다. 그의 체취와 숨결이 느껴지는 설계도, 이것만 보아도 그를 만난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나는 책상위의 설계도면을 쓰다듬으며 그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규, 나는 오늘에야 나와 동무의 참모습을 보았소. 오래간만에 만난 자네가 나를 아프게 질책해준셈이지. 수집고 참하기만 하던 어제날의 그 《색시》가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호되게 후려갈길줄이야. … 나는 오늘 정말 기쁘네. 결국 자네덕분에 자신을 깨닫게 되었네그러.)

그렇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가꾸는 마음에 있다.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전진하는 시대에 자신을 따라세우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이끌어올릴 때만이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지닐수 있다. 그것이 곧 그의 인격이며 품격으로 된다는것을 오늘 다시금 깨달았다.

《선생님,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저의 집으로 가십시오. 어머니가 기다리고…》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정희의 모습, 꼭 어제날의 현규를 보는듯싶다. 나는 웃음지며 말했다.

《그래, 가야지. 가서 너희들문제도 락착을 짓구, 응.》

얼굴을 붉히며 서로 마주보는 명수와 정희의 정겨운 모습, 절로 마음이 즐거워났다.

《갑시다.》

나는 아들과 함께 정희를 따라나섰다.

시 초

병사생활의 나날에

박 성 일

첫 자 옥

조국위해 군복입고
처음 여기로 들어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우린 벌써 신병훈련 마치고 떠나간다
구분대들을 향하여 간다

억세여지고 드세차진 날개를 가다듬고
천하를 향해 깃을 편 수리개같이
군인선서를 목숨으로 서약하며
큰 걸음 내짚는다

낮익고 정다운 산발들아
장구류 메고 깎아지른 비탈길 오를 땀
벼랑턱 오솔길이 아득도 하더니
오늘은
벼랑을 굽어보는 병사로 자랐구나

한걸음한걸음을 자서전에 새기고픈 훈련길
나어린 병사도
하늘처럼 높아되던 이 시절
언제면 나도 구대원 될가

짊없이 매달리던 철봉대 평행봉들
정녕 잊을수 없어라

동지의 귀중함
조국의 귀중함
이 나날에 사무치게 깨달으며
사단장도 영웅도 성장했으리

어딜 가나 너를 추억하리라
대렬합창높이 산발 올리던
정든 혁명대학이여

군복을 입어 군인이던가
목숨으로 선서를 지킬줄 아는
그 정신이 군인이여야 함을
온몸에 익혀준 군사복무의 첫자욱이여
조국을 위한 병사의 자세로
내 한생을 곧바로 세워준
혁명가의 첫걸음이여

병사에게는 속사연필이 있다

수백리 행군길 달려온 철참
어깨에 멘 장구류 벗을새없이
병사— 나는 속사연필을 든다

훈련의 땀배인 구리빛얼굴들
풀피리 부는 분대장의 어깨넘어
숨차게 뛰어넘던 무수한 산발
나는 다 그리고싶다

학교미술소조 그 시절에
빨간색 먹이던 고향의 사과알
파란 크레용 칠하던 시내물과
수채화로 색맞추던 누런 이삭도
이 속사연필로 시작했다

허나 오늘은 총잡은 군인
선명한 색조화
빈듯한 화판은 없어도
더없이 아름다워라
가장 훌륭한 그림은
거기에 바쳐진 사랑이 그려내는것 아닌가

고향을 그려가던 그날의 속사연필
오늘은 훈련의 장알배긴 무쇠손에 틀어쥐고
목숨바쳐갈 불타는 사랑으로
조국과 동지를 그려가는 아름다운 화폭

그래서 최고사령관동지
병사들의 연필화를
그리도 내세워준것 아니던가
시대의 명화로 빛내주신것 아니던가

수호자의 값높은 삶도
이 속사연필로 그리며
병사는 위훈에 산다
영웅이 되어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나서는
하늘같은 공상도 펼치며
병사는 속사연필을 달리지니

아, 병사에게겐 총대와 함께
속사연필이 있다

병사의 속도

한겨울 눈송이도 땀으로 녹이며
넘은 령은 아득히 멀어지는데
앞에는 또 천리가 놓인듯
급하게 울려오는 구령소리
—뒤로 전달 속도 빨리!

증기같은 입김을 내뿜으며
나도 복창한다
—뒤로 전달 속도 빨리!

비상소집 나팔신호에 따라
번개처럼 일어서던 새벽
초소생활 시작부터
속도와 인연맺은 병사

속도는 병사의 발걸음
속도는 병사의 명예

속도는 승리이고 때로는 목숨이 되고...

원췌의 화점향해 내닫던 영웅도
온몸으로 철조망을 덮은 병사도
우리에게 웨쳤던 구령은
—속도 빨리!

명령도 속도 빨리
대답도 속도 빨리
대오앞에 기폭도 우릴 불러
—속도 빨리!

달리자 병사여 탄알처럼 날으자
장군님 그어주시는 붉은 화살표
그 맨앞에 내가 있다
병사가 있다

거수경례

기분도 상쾌한 초소의 아침
솟는 해를 마주보며
군인은 아침검사 받는다

분대 소대의 검사를 받고
사관장에게 접근보고하며
씩씩하게 하는 거수경례

군복입고 처음 배운 동작이
경례였던가
거울앞에 군복차림새 바로잡으며
저도 모르게 익힌 경례였던가

아니다
훨씬 이전 유치원 그 시절에
군대대렬 뒤따르며 따라하던 경례법이
오늘은 조국이 자랑하는
나의것이 된것이다

무심치 않노라
병사의 거수경례는
순간에 하는 동작이여도
거수경례에 익숙되듯이
조국의 부름에 목숨내대는
그 한순간에 익숙되기란
복무의 나날이 험치 않았더라

군인의 한생은
결사의 한순간에 총화되듯이
병사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험치 않게 손을 드노라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사열을 받듯이
일당백무죄손 든다
조국의 안녕을 보증하며
병사는 떼떈이 거수경례한다

세계작가일화

1917년 10월혁명전야 마야콥스키는 바야흐로 터질 폭풍우를 안고있는 뻘썩부르그의 뱀스끼거리를 거닐고있었다.

문득 좀 떨어진 앞쪽에서 웬 녀인의 악에 치받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눈여겨보니 자그마한 모자를 빼딱하니 쓰고 손에는 손가방을 든 녀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뭐라고 악담을 퍼붓고있었다.

잠시 귀를 강구던 마야콥스끼의 얼굴이 본격으로 하여 순간에 이그러졌다.

《불셰비크들은 비적이고 날강도들이예요. 그자들은 진종일 살인과 방화, 겁탈을 일삼고있어요.》

지독스런 비방중상이었다. 마야콥스끼는 곧 두손으로 사람들을 헤가르며 곧바로 녀인한테로 다가갔다.

《이 녀자를 잡아주시우. 이 녀자가 어제 나의 돈가방을 훔쳐갔습니다.》 마야콥스끼가 소리쳤다.

뜻밖의 일을 당한 녀인은 당황하여 급히 변명하였다.

《아니,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어요.》

《아니요. 바로 이 녀자요. 자그마한 모자를 쓰고 나한테서 25루블을 훔쳐갔소.》 마야콥스끼는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모여선 사람들이 녀인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는 침을 뱉으며 뽀뽀이 흩어져갔다. 녀인은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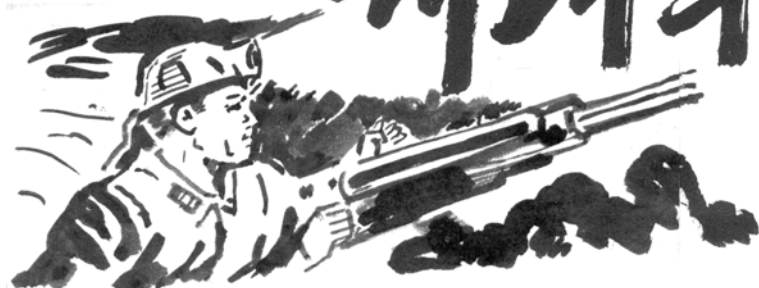
《아이구, 하느님! 나를 좀 자세히 보세요. 난 정말 당신을 처음 봅니다.》

마야콥스끼는 그제야 녀인에게 충고를 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불셰비크를 처음 보면서도 그 무슨 불셰비크의 죄행에 대해 떠들었지요? 이제 집에 돌아가거든 하녀에게 뽀뽀이를 하지 마시오.》

비방자에 대한 공격

제대의룬리



오 운 서

언제인가 나는 어느 문학작품집에서 인생의 계절에 대하여 노래한 시를 읽은적이 있다.

한생을 사계절에 비기어 노래했는데 퍼그나 인상적이었다.

어린시절은 봄이라더라
포근한 요람에 정답게 올리던
어머니의 자장가소리
애기궁전 소년궁전 배움의 꽃대문으로
토끼처럼 뛰어다니던 그 시절
받아안은 행복이 얼마나 큰지
따뜻한 요람이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미처 모르던 그 시절은 봄이라
...

그래! 나에게서는 시의 감정이 인차 공감되었다.
탄부마을의 노동자가정에서 외팔로 태어난 나의
어린시절은 시에서처럼 따뜻했고 포근했다.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물론 가정에서도 일사동
등 떠받들리웠다. 유치원에 가자 교양원들은 총명
하게 반짝이는 눈동자며 맑고 쉿쉿한 목소리에 반
하여 나를 예술소조반에 넣어주었다.

명절이나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때나 탄부아
저씨들의 꽃다발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가.

《우리 집에서 인기가수가 나오려나보다.》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벅글거리며 하는 아버
지의 말이였다. 나의 예술소조생활은 학교때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만사는 시작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실을 맺는것이 아니였다.

변성기에 이르러 나의 성대는 좋게 변하지 않았
던것이다. 하여 나의 무대생활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희망이 찬란했던만큼 번민 또한 큰것이였다.

《내 생각엔 너자에게는 회계일이 맞출하겠더
라.》

처녀시절에는 상점판매원으로 그후에는 탄광
회계과에서 일하고있는 어머니의 말이였다.

나의 앞날에 대한 구상은 차츰 어머니의 지론쪽
으로 기울었고 탄광자재창고에서 일하던 나는 마
침내 회계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내가 탄광에 돌아오니 그새 탄광에서는 《4.25
쟁》을 개발하고있었다. 탄광에 배치된 제대군인
돌격대가 뿜는다고 해서 《4.25쟁》이라고 부
른다는것이였다. 나는 제대군인돌격대에 배치
되었다.

돌격대원들의 생활비를 계산하고 로보물자며 때
에 따라 필요한 공구, 자재들을 타다주는것이 나
의 직능이였다. 말하자면 적당한 자리가 나지 않
아 림시로 마련된 회계일군으로서의 전습기간인셈
이였다.

돌격대! 돌격대는 작업도 생활도 군대처럼 하는
전투적인 대오이다. 흔히 듣게 되는 그 이름이 자
기 생활속에 뛰어들자 나의 머리속에는 돌격대생
활을 담은 화면음악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밤하늘을 불태우며 솟아오르는 우등불, 청년
영웅도로를 건설하는 청년들...

불현듯 인생의 계절에 대한 시구도 되살아났다.

청춘시절은 여름이라더라
아름드리나무처럼 희망은 하늘을 덮고
무성한 잎새처럼 가슴은 설레더라
폭풍이 불고 곳은 비 내려도
번개처럼 내달리더라 우뢰처럼 소리치더라
언제나 약동하는 힘으로 세상 불태우며
생의 자욱 담차게 찍어가더라
...

나의 여름계절은 이 돌격대에서 시작되는가?
희망과 호기심, 야릇한 불안감을 안은 신입통계
원 나는 제대군인돌격대를 찾아갔다.

×

제대군인돌격대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우는것
은 잠자리우에 걸린 병사복들이었다.

대장, 부대장순서로 나란히 걸려있는 군복에
는 똑같은 누런 훈장이 번쩍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광에 진출하는 제대군인
병사들에게 안겨주신 훈장이란다.

복무시절의 군사칭호가 그대로 달려있고 영예의
훈장이 빛나는 군복들은 마치도 그들의 군사복무
가 계속되는듯 한감을 안겨준다.

제대군인들은 그 군복아래서 잠이 들고 그 군복
을 바라보며 일터로 나갔다.

다섯달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탄맥을 잡고야 제
대휴가도 받고 장가도 든다는것이 그들의 결심이
였다. 돌격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몸이 력기선
수처럼 통통한 부대장 정성근이었다.

자기 감정을 물어두지 못하는 성격인지 그가
《우리 돌격대에 유일한 꽃이로군.》하고 중얼거
리는 바람에 숫저운 처녀인 나의 얼굴은 뜨겁
게 달아올랐다. 정성근은 곧바로 침실 옆방인 돌
격대지휘부로 나를 데리고갔다.

검은 탄부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돌격대장 류진
수는 부대장과는 달리 날과람있어보이는 체격에
얼굴생김이 준수한 청년이었다.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하며 친절하게 대
해주는 그를 만나보니 배치장을 받을 때 로동
과 부원이 제자랑하듯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들이 처음 탄광에 왔을 때였다.

제대군인접수소속을 맡은 로동과 부원은 사업상
편리를 위해 제대군인들을 두개 소대로 편성하고
대렬문건의 첫자리에 있는 제대군인을 립시소대장
으로 임명하였다. 어느날 저녁 그들은 소대대항
배구경기를 벌려놓았다. 하루종일 좁은 마당에 갇
혀 부원에게 한사람씩 불려가 나이는 몇이고 고
향은 어디인가 등 묻고 적는 고리타분한 문서
놀음에 갑갑해진 그들은 너도나도 경기에 참가하
려 때를 썼다. 소대장들은 그들의 승벽을 억지로
눌러놓고 선수를 선발하여 경기를 시작했는데 경
기가 고조되고 실점들이 나자 제대군인들속에서는
감정을 건드리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1소대
의 점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소대장이었던
정성근은 등이 달았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선수들을 내보내지 못한게 실
책이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응
원의 열의도 불려일으킬때 경기정황도 살필때 경
황없이 돌아가는데 누군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키가 후리후리한 상사가 인상 좋게 미소를 짓고있
었다.

《소대장동무, 내가 좀 나가볼가요?》

대뜸 믿음이 갔다. 판이 기울어지는데 오밀조밀
재여불새가 있는가. 그중 실수가 많은 선수가 교
체되었다. 그러자 경기정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였
다. 재빠른 순간타격, 상대방의 심리를 혼란시키
는 살짜공... 립기응변하는 그의 경기솜씨는 참 놀
랄만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자기권 선수들의 자그마한 장점과 의도까지도
제때에 살려주는 조직자적능력, 시종 발휘되는 홀
륭한 경기도덕품성은 물불을 모르고 달아오르던
경기승벽을 고상한 체육정신으로 정화시켜주었다.

하기에 《4. 25경》돌격대를 조직할 때 정성
근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 유능한 배구주장을
대장으로 추천하였다. 사람을 보는 그의 눈은 정
확하였다. 류진수대장은 의합이 맞지 않던 배구팀
을 단합된 대오로 묶어세워 승리에로 이끈것처럼
승벽과 자존심으로 충만된 제대군인대오를 능숙하
게 조직동원하여 갱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그는 갱건설을 내미는 한편 본격적인 채탄
전투를 위해 벌써부터 채탄에 대한 기술기능학습
을 조직하군 했는데 때에 따라 탄광의 오랜 기능
공들을 초빙강의에 출연시켰다.

하기에 갱건설현장에 자주 찾아오는 지배인이며
기사장은 그를 훌륭한 갱장감으로 점찍고있다고
한다. ...

나는 지휘부방의 한쪽에 있는 크지 않은 책상과
장부책들을 차지하였다.

모두들 갱에 올라간 뒤 대렬명단부터 료해하
였다.

나이는 어긋비슷했으나 태어난 곳은 모두 달랐
다. 신통히도 탄광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이름있는 도시와 풍요한 농촌, 아름다운 어촌...

군사복무를 마친 그들에게는 정다운 고향이 기
다리고있었다. 끝없이 넓고 보람찬 생활, 따뜻한
품이 어서 오라 부르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것을 밀어놓고 이곳 탄광으
로 왔다. 혼연히 웃고 떠들며 온갖 고난을 박
차고 강성대국에로 도약하는 조국에 석탄이라는
식량을 보내주기 위해 억척으로 일한다.

마음이 후터워졌다. 그들을 위해 립시이기는 하
지만 통계원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끓어올랐
다. 우선 지휘부를 청년집단의 참모부담게 꾸릴것
을 결심했다. 비품들을 질서있게 배치하고 물결레
를 놓았다. 아무렇게나 붙여진 년력도 액틀처럼
테두리장식을 했고 창턱에는 맵시있는 화분을 날
라다놓았다.

《하, 이런... 손이 보배로군.》

저녁때 지휘부에 들어서던 대장이 혼자말로 중
얼거리는 소리였다. 마음이 흥그러워진 나는 소령

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맑은 물을 떠들고 병뚜껑 열린 출입문가에 이르렀을 때 방안에서 즐거운 말 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대단한 미인인데요. 대장동문 어느새 이런 처녀를 낳아냈소?》

살며시 들여다보니 부대장이 손바닥만 한 사진을 들여다보며 감탄의 말을 연발하고있는데 대장이 넋지시 물어본다.

《부대장동문 점찍어둔 처녀가 있겠지?》

《난 뭐 아직...》

부대장은 면구스럽게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니 《잔치국수를 빨리 먹기 위해서라도 탄맥을 잡아야겠군.》 하고는 소리내어 웃는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애인의 사진을 품고다니는 제대군인들, 사랑이란 저렇듯 심혼을 그러잡는것인가. ...

×

제대군인돌격대의 하루생활은 대렬검열로부터 시작된다. 인원을 점검하고 그날 작업에 대한 준비상태를 알아보는 대렬검열을 대장은 매우 중시하였다. 면밀한 준비는 전투승리의 기본담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전날 총화모임에서 다음날의 작업준비품에 대하여 간간하게 과업을 주군 했다. 오늘도 류진수대장은 구체적으로 대렬검열을 한 후에야 작업목표를 알려주었다.

《오늘작업도 역시 굴진이요. 갱도가 깊어지는것만큼 사고에 대해 특별히 류의해야겠소.》

그리고는 대렬의 맨끝에 선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통계원동무는 오늘 이달 로보물자를 타오시오. 그리구 함마와 삼, 지레대들을 해결하시오.》

엿저녁 사업토의때 상정되었던 문제여서 나는 《알았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하였다.

사실 돌격대의 작업도구는 넉넉치 못했다.

광차도 몇대 안되었고 특히 레루가 부족했다.

탄광에서 인차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어 웬간한 구간에서는 참나무로 레루를 만들어 대용하고있었다.

며칠전이었다. 그날 나는 굴진현장에 급직한 물통을 이고 올라갔었다. 굴안에서 줄땀을 흘리는 돌격대원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공급하고싶어서였다. 막장에 들어서자 기관총런발사격소리같은 착암기소리가 귀따갑게 울려왔다.

발과연기가 안개처럼 떠돌고 삽소리, 버럭을 쇠그물삼치에 담은 굵개소리가 소란했다.

돌격대원들은 굴천정에 닿게 쌓인 버럭을 실어내는 작업을 하고있었다.

《여, 함마!》

광차뒤쪽에서 웨치는 소리였다. 바라보니 아

름드리바위가 비죽이 드러나있었다.

그러나 함마는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들고 작업을 하고있는중이었다. 할수 없었던지 구석주변을 말끔히 긁어내고 지레대로 손을 들이밀 자리를 마련한 후 여럿이 달라붙어 광차에 올려실었다. 그러다나니 시간이 많이 낭비되군 했다.

《휴식!》

어딘가 맥빠진 구령소리였다.

《속도를 낼만 하면 굵인돌이라더니 좀 할만 하면 암반이라니까...》

《도구라도 푼푼했으면...》

돌격대원들이 손을 털며 하는 소리였다.

나는 그들 가까이로 물통을 날라갔다.

반짝이는 법랑쟁반이며 투명한 유리고뿌에 찰랑거리는 물을 보자 돌격대원들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기운이 난다는등, 정신이 든다는등 한마디씩 칭찬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물고뿌를 들고있던 정성근이 나를 정답게 바라보며 밥숟가락같은 엄지손가락을 일으켜세웠다.

《우리 통계원이 이거란 말이야. 좀더 일찌기 알았더라면내 색시를 삼는건데...》

누가 들을세라 소곤소곤하는 소리였지만 숫저운 처녀의 잠풍한 가슴을 흔들기에는 넉넉했다.

《어마나, 누가 시집가겠대요?》

큰일이나 난것처럼 내쫓았으나 나의 마음은 즐거웠다. 자그마한 노력이 끝끝한 제대군인들의 가슴을 흔들어주었다는것이 얼마나 기쁘지 몰랐다. 그러나 그 기쁨을 도구생각이 짓눌렀다.

돌격대엔 함마가 필요했다. 절대적으로 공구수량이 부족한데다가 있는것들마저도 모지라졌거나 닳아빠져 변변치 못했다. 현재 자재창고에는 공구가 없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문제가 어제 저녁에 또 상정되었다. 대장과 부대장이 마주앉아 하루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귀동냥하느라니 공구문제였다.

가만 앉아있기가 별스레 면구스러워 나는 내 좀 알아보겠다고 말했었다. 그 청이 오늘 정식 과업으로 떨어진것이였다. 나는 한참이나 서서 갯으로 떠나는 대렬을 바라왔다.

함마며 작업도구를 어떻게 해결할가 하는 걱정이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게 했던것이다.

나는 우선 로동보호물자공급소로 갔다.

장갑이며 마스크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를 한입이여다놓고나서 그길로 공구창고에 찾아갔다. 혹시 그새 무슨 변동이 생기지 않았을가 하는 미련에서였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헛된것이였다. 나 이지숙한 창고원은 딱한듯 두손바닥만 비볐다. 아무리 사정해야 호수에 돌던지기였다. 함마가 없어 큰돌을 힘겹게 들어올리던 모습, 도구가 없어 안타까와하던 돌격대원들의 정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생각끝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빌리기로 하였다.

부모와 면식이 있는 사람들의 일터를 찾아다니면서 《4.25쟁》 개발에 극히 필요하다고, 빌리기도 하자고 호소하니 긴히 보관했던것들을 내주었다. 나는 생기는대로 돌격대창고로 날라갔다.

함마며 곡괭이, 지레대를 메니 어깨가 아파났지만 빙그레 웃을 대장이며 엄지손가락을 내밀 부대장을 생각하니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날듯 한 마음으로 마지막탕의 공구를 창고에 세워놓는데 한 녀인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저, 여기 돌격대에서 일보세요?》

보통키에 몸매 호리호리한 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자기는 강원도에서 오는데 정성근이라는 제대군인을 찾는단다.

《정성근이라구요?!》

내가 반색하자 녀인의 눈에는 기대의 등불이 반짝 켜졌고 그 등불은 급기야 고여오르는 눈물속에 잠겨버렸다. 스물대여섯 되였을가, 려행의 피로가 깃들었음에도 퍼그나 아릿다운 모습이었다.

찾는 사람의 행방을 전혀 몰랐음을 말해주는 녀인의 태도, 큼직한 보집들...

순간 점찍어놓은 처녀가 있느냐는 대장의 물음에 어물쩍 넘기던 정성근의 모습이 머리속에 번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부대장의 안해로구나!

녀인에게 동정이 갔다. 아니, 처녀의 존엄을 잃어버린것 같은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무작정 집 하나를 빼앗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안해가 아니라 해도 사나이들만 가득찬 돌격대침실에 그냥 앉혀둘수야 없지 않는가.

더구나 순란치 않은 뒤생활을 간직하고있음직한 그들임에랴...

×

그날 저녁 아닌게아니라 작업공구들을 본 정성근은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내 대장동무만치 멋쟁이라면 참...》 하고는 자기도 우습다는듯 소리내어 웃는다. 그러나 나에게 그 소리가 전처럼 즐겁게 들리지 않았다.

(아유, 저 너스레에 누가 속을줄 알구?)

저도 모르게 차거운 목소리가 튀어나갔다.

《부대장동지를 찾아온 손님이 우리 집에 있어요. 어서 가자요.》

정성근은 대뜸 눈이 커졌다.

《뭐, 손님, 누구데?》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앞장서 걸었다.

쿵쿵 부대장의 발소리가 뒤를 따랐다. 나는 잔걸음을 놓으며 생각했다. 군대시절에도 그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녹여냈겠지, 제대될 때는 슬그머니 뺄소니를 쳤을거고, 그 언니는 주소도 모르고

허덕지덕 찾아다니고, 이젠 어떡헌담. 래일이면 탄광마을에 짝 소문이 날텐데, 부대장이 구박하러 들면 난 가만 안있을테야. 그 언니편을 들어 몰아줄테야...

어느덧 집이 가까와졌다.

집마당에 들어서자 옷방문이 열리고 내뒤에 서있는 정성근을 알아보자 처녀는 얼굴을 싸쥐었다. 반가움의 걱정인지, 주렸던 그리움의 폭발인지 처녀의 어깨가 세차게 들먹거렸다.

나도 눈곱이 찌릿해져 얼굴을 돌렸다.

《아니, 어떻게 여길 찾아왔소?》

옷방에서 울려오는 더듬거리는 목소리.

《어떻게라니요? 저두 석탄을 캐러 왔지요. 그렇게 몰래 혼자 도망치면 찾아내지 못할줄 알았습니까?》

《도망치기야 뭘... 나야 탄광에 진출한거고...》

《그럼 그렇다고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두 자원진출하겠단 말입니다.》

흐느낌소리가 높아졌다.

《봉숙이, 그만 진정하오. 나라구 마음이 편했겠소? 그래두 난 동무나 동무 어머니를 생각해서...》

《생각?!... 남자들의 생각이란게 고작 그런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평양처녀들도 정다운 수도를 떠나 전연초소군관들을 찾아가는데 저는 장군님의 부름을 받드는 제대병사를 따라서면 안되는가요, 네?》

성근이의 목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는다.

흐느낌소리만이 높아진다. 눈물이 그렇게진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며칠간인지 님을 찾아 헤매며 끼니인들 제대로 이었을텐가. 나는 탄아궁의 바람구멍을 열고 쌀을 씻었다.

그날밤 나와 봉숙이는 한자리에 누웠다.

따뜻한 포단속에서 봉숙이의 이야기가 나란히 놓인 나의 베개로 넘어왔다.

...작년 늦가을이었다. 그날 봉숙이는 가을철 나무심기에 동원된 군안의 각급 단위들에 나가 나무모를 공급했다. 날씨는 배가 아픈 사람처럼 찌뿌둥했는데 해가 넘어가자 바람질을 하면서 땀까지 시작했다. 나머지모들을 얼지 않게 건사해야 하였다. 봉숙은 50포기, 100포기씩 묶은 모단들을 늑가로 날라다가 늑속에 나무모를 담그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깊은 곳으로 떠밀던 봉숙이는 그만 풍덩 물속에 빠지고말았다. 찌르는듯한 랑기가 덮쳐들었다.

팔다리를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점점 감탕속에 잠겨들었다.

《누가 없어요? 사람 살려요—》

애라게 소리쳤으나 누구 하나 열썬하지 않았다.

잠전에 남은 나무모는 자기가 처리하겠으니 추운데 어서 들어가 쉬라고 분장성원들의 등을 떠밀어보냈으니 누가 있을리 없었다. 몇채밖에 안되

는 분장마을 굴뚝들에서 저녁연기가 물물 피어오르는 정경을 눈물속에 바라보며 봉숙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이때였다. 누군가 풍덩 물속에 뛰어들었다.

얼핏 시야에 안겨든것은 머리를 짧게 깎은 군인의 모습이였다. 억센 팔뚝이 몸을 그러안는것을 느끼며 봉숙은 그만 의식을 잃었다.

그후부터 봉숙이네 모녀는 사관장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초봄부터 사관장이 보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탄광으로 갔다는것이였다. 탄광! 자기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간 정성근이 고깝게 생각되였다.

봉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정작 그가 탄광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적한 산골마을에서 나무모만을 키우던 내가 과연 지하막장에서 일할수 있을까?

그러나 다음순간 호수에 뛰어들던 정성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무슨 대가를 바라서였던가. 아니, 그것은 인민에 대한 우리 군대의 도덕이였다. 오늘 그는 나라에서 바라는 석탄문제를 위해 또다시 한몫 내뒀다. 그것도 무슨 평가를 바라서인가. 아니, 그것은 나라를 위한 청춘의 도리라고 생각했을것이다. 참된 도덕과 도리앞에 오밀조밀 재여볼게 무엇이 있단 말이나!...

나는 이불속에서 봉숙이의 따뜻한 손을 꼭 그러쥐었다.

아, 마음이 비단결같은 이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던가. 부대장동지는 참 엉터리야. 이런 언니를 녹여놓고도 색시가 없는체 했다니까...

이번에는 진정이 담긴 속삭임이 봉숙이의 베개로 넘어갔다.

《언닌 참 행복해요!》

×

다음날 나는 출근하자바람에 대장에게서 통을 맞았다.

《동문 돌격대원이요 아니면 부대장네 친척이요?》

제기된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알려주었다는 노여움이였다. 눈이 켜해서 대답을 못하는 나에게 대장은 군대식으로 지시를 주었다.

《오늘 저녁 약혼식상을 준비하시오. 돌격대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것만큼 자금은 어디서라도 전도하시오. 성의가 깃들어야겠소.》

대장은 알만 한가 하는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아득해서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엄청난 식구들, 난생처음으로 주관해야 하는 약혼식...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야속한 생각이 밀려들었다. 미모의 녀자는 대체로 언행이 차다고 한다. 남자 역시 인격자이면 이

처럼 매몰스러운것일가. 생각다못해 어머니를 찾아갔다. 딸의 하소연을 듣고난 어머니는 허허 웃었다.

《너희네 대장두 참 무던하구나. 돌격대에 녀자라곤 혼자이니...》

어머니는 흰 종이를 꺼내놓고는 대사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

그날 저녁, 영양제식당안에는 약혼식상이 차려졌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어머니는 돌격대에서 하는 첫 대사인데 아무런 탄광후방부가 무관심할수 있느냐고 둔장질을 했다.

하여 고기며 과일, 당과류들이 영양제뚝으로 공급되였다. 거기에다 저녁식사로 국수까지 받아놓으니 여간 풍성하지 않았다.

대장을 앞세우고 식당에 들어서서는 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식탁을 돌아본 대장이 만족한듯 한마디 했다.

《공구가 풀리니 오늘 작업실적이 130프로로 쑥 올라갔소!》

그리고는 소리없이 씩 웃는다. 작업실적이 올라갔으니 약혼식상도 만족하다는 평가인지...

어떻게 그 한마디말에 노여움이 풀리고 기쁨이 샘솟는게 이상했다. 이윽고 돌격대원들이 자리를 잡자 대장이 성근이를, 어머니가 봉숙이를 데리고 나와 가운데좌석에 앉히였다. 약혼당사자들이 잔을 나누자 대장이 일어섰다.

《다음은 신랑이 기념품을 주겠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른 정성근이 붉은 천으로 정히 찢주먹만 한 함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어서 받아 열어보라고 눈짓했다. 호기심어린 눈길로 기웃이 넘겨다보던 나는 가슴이 몽클하였다. 그것은 훈장이였다. 침실의 군복에 달려있던 성근이의 훈장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보가 된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함께 보답하자는 마음, 그 길에서 생사를 함께 하자는 뜨거운 언약의 뜻이 보름달처럼 환히 안겨온다.

상상밖의 기념품에 놀랐는지 훈장을 가슴에 품은 봉숙은 뜨거운 눈길로 성근이를 바라보았다.

장내에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내 봉숙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한가지 묻겠네.》

어머니는 회의장에서처럼 손들어 언권을 청했다.

《원래 약혼식에서는 결혼식날자를 정하는게 상례인데 대장동무의 생각은 어떤가?》

《예, 결혼식은 우리 갯에서 석탄이 터지는 날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린 살림집을 한채 마련하겠습시다.》

시원스런 대답에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갯의 조업이자 결혼식, 이야말로 후날 감회깊게 추억될 뜻깊은 생의 자욱으로 될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진수대장은 인차 살림집을 마련 할 조직사업을 했다. 며칠 안 있어 갯부근의 밋밋한 등성이에 살림집의 기초가 파지기 시작 했다.

대장은 어디서 얻어왔는지 살림집설계도를 놓고 기초구멍이의 치수를 꼼꼼하게 검사하였다. 갯에서 나온 무진장한 버럭돌이 벽체로 쌓여지는데 벽면이 씨리카트벽체처럼 미끈한게 기가 막혔다.

한달도 채 안되어 덩실한 《돌집》이 일떠섰다.

야외등이 설치되고 밤늦도록 미장을 한다, 구들을 놓는다 벽적 뚫었다. 《돌집》은 탄광후방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계획에만 머물고있던 제대군인 살림집건설의 점화약에 불을 달아놓았던것이다. 며칠 안 있어 《돌집》을 기준으로 나란히 살림집기초작업이 시작되었다. ...

그무렵 돌격대의 굴진속도는 점차 떨어지고있었다. 레루와 광차의 부족이 가져온 어쩔수 없는 결과였다. 광차길에서 탈선이 생길 때마다 팍홀려 실었던 버럭이 쏟아져 손맥이 풀리게 했고 광차가 몇대 안되니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졌던것이다. 대장의 얼굴색은 좋지 못했다.

하루는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반겨 말을 걸었다.

《네가 한동안 허리를 펴게 됐구나.》

나는 무슨 소리가 해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갱건설물자가 해결될 때까지 제대군인들에게 휴가부터 준다는 말이 있더구나. 괜히 고생할게 있니? 고향에 가서 잔치두 하구 그러느라면 뭔가 좀 해결되겠지.》

일리가 있는 소리였다. 대장의 책상에서 본 얼굴이 환한 처녀의 사진이 번쩍 떠올랐다.

나는 다음날 대장에게 슬며시 물었다.

《휴가신청은 언제쯤으로 할 생각입니까?》

대장은 몹시 의아해하였다. 별수없이 어머니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그럼 다섯달동안에 하겠다고 계획한 굴진은 어떻게 하구?》

나의 말을 심중하게 듣고난 뒤 묻는 소리였다.

《그거야 뭐 휴가기일만큼이야...》

말끝을 얼버무리자 대장은 정색해서 그루를 박았다.

《통계원동무, 우리가 탄맥을 잡겠다고 결의한 날자는 조건에 따라 미루어도 되는 그런 날자가 아니요.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우리 당의 경제전략에 오른 날자이기때문이요. 구분대들의 전투기동이 떠지면 작전이 허물어지듯이 우리가 날자를 어기면 우리 당의 경제전략에 지장을 주게 되오.》

찌르는듯 한 눈길을 감당하기 어려워 나는 시선을 돌리었다. 그러나 마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장의 말은 토 하나 그르데 없다. 그러나 등성으로 갯을 건설할수는 없는것이다. 지금 형편에서 어디 뽕족한 수가 있는가?

그러나 대장은 그 뽕족한 수를 찾아냈다.

아니, 이미전부터 생각을 익혀온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총화모임때 그가 침수된 고굴에서 레루와 탄차를 꺼내자는 제안을 했던것이다. 제안을 한 이튿날에 대장은 탄광의 오랜 교관아바이를 구슬려 몇년동안 누구도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던 위험천만한 고굴을 직접 정찰했다. 온몸이 감탕투성이가 된 그들은 무릎을 맞대고 고굴에 찬물을 그아래에 있는 폐갱으로 빼버릴 방안을 토론했다.

그러자면 수십메터의 물길굴을 뚫어야 했다.

대장은 돌격대를 두개 전투조로 나누었다.

대장의 조가 물길굴을 뚫는 동안 부대장은 현재 있는 광차로 종전의 굴진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물길조는 보름동안 전투를 벌렸다.

현장에서 식사를 하며 줄곧 두더지굴과 흡사한 물길굴과 씨름을 한 결사전의 나날이었다. 나에게는 공구보장과 운반식사로 눈코뜰새없이 뛰어다니는 보름이었다.

썩— 몇년 묵은 감탕이 터져나온 뒤 고굴에 들어가니 엉망진창이었다.

탄광로동안전과에서 어쩌서 그토록 반대했던가가 이해되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조건 해내겠다고 결의해나섰을 때 현장에 나와 료해를 해보고서야 승낙하던 모습이 눈에 선히 뵈혀왔다.

불안어린 눈길들이 대장의 얼굴에 모여들었다.

한순간 류진수의 불편에 경련이 지나갔다.

어떻게 할것인가. 만약 저속에 들어갔을 때 봉락이 온다면...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물러서겠는가. ... 이윽하여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친구들, 덜덜 떠는 우릴 보면 색시될 처녀들이 뭐라겠나. 우리 웃자구. 하하하...》

모두가 따라웃었다.

우선 위험한 구간에 동발부터 들이였다. 한참 일하니 답이 커졌다. 무릎을 치는 감탕속을 더듬질하여 레루장을 뿔아냈고 가슴노리를 치는 물속에서 탄차들을 끌어올렸다.

벌겋게 녹슨 레루무지, 감탕투성이탄차들을 바라보며 진수는 호탕한 웃음을 터치였다.

《이만하면 될가요?》

진수의 환희가 그대로 옮겨진듯 나의 가슴도 부풀어올랐다.

《통계참모가 참 수고 많았소.》

드물게 듣게 되는 대장의 칭찬이었다.

과한 치하에는 말문이 막히는 모양인지... 손 씻는 시간도 아까와 받아들었던 식기에 새까만 손자욱을 찍어놓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따뜻한 잠자

리에서 쉬고 하루 세끼 식사를 날라온 나의 노력이 먼저 인사에 오른것이다. 통계참모라는 귀에 선 부름도 가슴을 후덥게 울려준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나는 안전등빛에 가지런한 이발과 눈빛만이 유표하게 반짝이는 대장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말은 입무앞에서는 추호의 에누리도 모르는 결사관철의 정신, 억척같은 의지와 담력... 아, 혁명적군인정신이란 이런것이구나!...

광차와 레루가 풀리자 돌격대의 굴진속도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 대장의 얼굴엔 웃음이 피어났다. 나의 마음도 자연 흥그러워졌다.

기세종계 오르는 작업실적을 장부에 기입한 나는 지휘부방 창문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살림집 건설장을 바라보았다. 벌써 살림집들엔 지붕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제 갭에서 석탄이 터질 때쯤이면 저 집들에서는 새살림들이 시작될것이었다.

대장동지네는 어느 집을 배정받을가. 인격으로나 사업능력으로나 제대군인들속에서 출중한 대장의 사랑을 받는 처녀는 얼마나 행복할가.

태어나는 귀여운 아기들, 그 애들은 아버지들처럼 동갑또래들이겠지. 동무들이 많아서 참 좋겠네. 호호...

불쑥 인생의 계절에 대한 시구절이 떠올랐다.

번개처럼 내달리더라 우뢰처럼 소리치더라
언제나 약동하는 젊음으로 심장 불태우며
생의 자욱 담차게 찍어가더라...

...

어려움을 이겨내며 건설한 채탄갱, 솟아오르는 석탄더미, 일떠서는 새 마을...

이런것이 담차게 찍히는 인생의 자욱이 아닐가.

나는 돌격대가 찍는 보람찬 자욱속에 나의 몫도 있다는 긍지로 하여 가슴이 흐뭇해지었다.

×

한낮이 되자 벌목지골안은 한증칸처럼 달아올랐다. 키높이 자란 혼성림이 던져준 그늘속의 풀판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한창하고있었다. 퍼그나 늦은 식사였다.

동발목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새벽부터 다그쳐대어 성과를 부쩍 올리였다.

점심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하루 작업량을 다 끝내고 하자는 바람에 식사가 늦어졌던것이다.

땀을 흠뻑 흘린 뒤라 무엇이든 달게 든다.

봉숙이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새 안해들이 부지런히 돌아가며 바닥이 난 접시들에 찬거리들을 덧놓아준다. 남정들이 맛있게 드니 녀인들은 저희들 뉘까지 말짱 들어낸다.

《이 미련한 신랑들아, 색시들은 굶길텐가?》
누군가 힐끔 녀인들쪽을 바라보며 속삭이자 돌격대원들은 게면쩍은 눈길을 감추지 못한다.

시원한 샘물을 길어온 나는 그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생활이었다. 벌써 한달전에 탄맥을 잡은 돌격대는 모두 고향에 다녀왔다. 적지 않은 돌격대원들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오늘 작업에는 그 안해들까지 따라나섰던것이다.

이제 돌격대는 두개의 채탄중대로 개편된단다.

누구는 중대장이요, 누구는 소대장 하고 쉬쉬말이 돌아가는판이다. 오늘 동발목생산은 본격적으로 벌어질 채탄전투를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오락회가 벌어졌다. 생김새가 제각기이듯 노래 또한 갖가지였다. 혁명가극의 노래, 군대노래, 민요타령도 있다.

불쑥 키가 꺾두룩한 익살군이 일어섰다.

《에, 이제는 2중창을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으로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2중창!》

익살군은 숟가락마이크를 쥐고 방송원흥내를 낸다.

《출연에 찰병이 아버지와 미소 어머니!》

좋다고 짹짹 박수를 치던 제대군인들이 서로 마주보며 눈을 슴뻑거렸다. 찰병이 아버지와 미소 어머니가 대체 누구냐는 눈치들이었다.

기다렸다는듯 익살군은 인차 독연으로 넘어갔다.

《휘영청 달이 밝은 어제 저녁, 공원 버드나무 아래에서 다정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녀자가 소곤거렸습니다.》

〈애기이름은 어떻게 짓겠어요?〉

〈아들이면 찰병이, 딸이면 미소라고 부르지요.〉

〈아이, 딸이름은 좋은것 같은데 아들이름은 좀 별나보여요.〉

〈별나긴, 찰병이가 어드래서. 우리 그렇게 짓지요. 오누이쌍둥이가 태어나면 그건 아주 만점이고.〉

아, 이렇게 되여 이제 태어날 제대군인의 첫 자식의 이름은 찰병이와 미소가 되었습니다.》

독연을 끝낸 익살군의 눈길이 당사자를 찾아 두루 선회를 한다. 호기심어린 눈들이 그 눈길을 열심히 쫓는데 허리를 구부정한 익살군이 부대장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들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부대장동지!》

그가 정성군이와 봉숙이를 일컫세우자 대원들은 제각 아들딸의 이름을 부대장의 성과 련결시켜보고는 배를 그러안고 웃어대었다.

정찰병, 정미소!

《하하... 정찰병! 아들이름은 선군시대맛이 나

는데 오히려 딸의 이름이 좀 이례적이지 않아? 정미소, 정미소라는거야 쌀찜는 곳이 아닌가?)

《아니 딸이름도 시대맞이 나오. 이제 미소는 군량미, 원호미, 애국미를 산더미처럼 찜어놓을거란 말이요. 그게 강성대국이지.》

《아니요. 우리네 미소는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높이높이 쌓아놓을거요.》

산판이 죽가마처럼 뿔자 봉숙이는 얼굴을 찌르고 주저앉고 부대장은 이젠 생판 날조요 하는 듯 익살군의 잔등에 떡메를 안겼다. 급해난 익살군이 길다란 허리를 새우처럼 꼬부리고 죽는다고 아부재기를 치는데 그 모양이 가관이어서 산판에는 또다시 웃음바다가 펼쳐졌다.

어쩔수없이 봉숙이네는 노래를 불렀다.

아들딸의 이름이 러뜨린 폭소의 여파가 있는지라 나란히 선 뚱뚱한 남편과 가냘픈 안해의 외모에서조차 돌격대원들은 웃음집이 넘실거려 야단이였다. 대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좋은 오누이처럼 나란히 선 그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즐거움에 잠긴 대장을 보니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돌격대원들이 휴가를 갈 때였다. 그때 돌격대원들은 너도나도 한시가 급하게 고향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대장만은 박아놓은 말뚝이었다. 갱건설과며 로동안전과 등 탄광의 여러 부서에 드나들었다. 탄맥은 잡았지만 온전한 채탄갱으로 만들자면 아직 공정이 많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아무렴 할일이 없을 때가 있을라구. 애인의 사진을 가지고다니는것을 봐선 그리 무정할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 부대장처럼 처녀의 마음을 흔들어놓고는 모르쇠를 하는게 아닐까?

나는 어느날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혹시 그 처녀를 잊은게 아십니까?》

《영, 어느 처녀?》

《어유, 늘 수첩에 간직하고 다니면서도... 그러다 다른데로 훌 날아가버리면 어쩔려구...》

그제야 리해가 간듯 대장은 웃었다.

《그 처녀는 우리 어머니가 불들고있다고. 그러니 넘려할게 없지.》

그때를 생각하며 나는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이 자리에 그 처녀까지 있다면 대장은 물론 오락회분위기가 얼마나 더 화락해졌으랴.

부대장의 노래가 언제 끝났는지 대장이 일어섰다.

《난 아직 로동의 노래를 영원히 함께 부를 짝배가 없소. 그래서 난 갱건설 전기간 우리와 고틱을 함께 나눈 통계원 진향동무와 노래를 부르겠소.》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웬일인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갱건설기간 고틱을 함께 한 통계원!

대장의 말이 다시 곱씹어졌다. 그는 분명 나의 소환문제를 알고있는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인차 탄광후방부로 가게 되어있음을 알고있었다. 그러니 이제 얼마후면 대장과 헤어지게 될 것이었다. 생각이 많아졌다.

대장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는 사소한 톱담도 갱늑은 미소도 없었다. 필요한 과업을 주고는 공식적인 총화를 받아내곤 하였다. 그 엄정한 사업태도아래서 나는 돌격대의 영석받이가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나 해내는 《통계참모》가 될수 있었다. 그랬던 그가 오늘은 오락회짜페로 찍어준 것이다. 머리속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토막들을 거두며 나는 암전하게 대장옆에 섰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틱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

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중음이었다. 노래의 서정속에 잠긴 대장을 훑쳐보며 나는 두손을 포개쥐고 노래를 불렀다. 학창시절 무대를 통해 터득한 경험을 살려 대장의 중음을 받쳐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렁우렁한 대장의 목청과 나의 청아한 음성은 마치 통소와 가야금의 2중주처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노래의 감정세계를 풍만하게 장식해갔다. 떠들썩하던 산판은 삼시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

순탄하게 한절을 끝내자 나는 대장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러나 대장의 눈길은 돌격대원들과 그 안해들의 얼굴에 가있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눈길이었다. 2절이 시작되었다. 대장은 열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나는 대장과 감정을 맞추기 위해 애썼다. 2중창이 사격이라면 두 사수는 하나의 과녁, 감정의 통일을 명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장의 눈길은 여전히 돌격대원들에게 가있었다. 곁에 선 나의 존재는 잊은듯 했다. 교감대상을 잃은 나는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알수 없었다. ...

해가 기울자 선기를 품은 골안바람이 좌 산림을 흔든다. 돌격대원들은 산판정리작업을 시작했고 봉숙이네 패는 빈그릇들을 이고들고 산을 내렸다. 기사장과 사업토의를 해야 한다며 그들과 섞인 대장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새 주부들이 까르르 웃어제긴다. 제대군인마을어구에서 녀인들이 갈라지고 돌이 호젓이 걷게 되자 나는 속에 품었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대장동진 됩니까? 2중창이라면 서로 감정을 나누어야지. 뒤틀린 사람들처럼 따로따로 불렀으니...》

뜻밖이었는지 대장의 눈이 커졌다.

《영, 내 그랬던가?》

대장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찌됐소. 그들이 나를 뵈히 바라보는데... 그 친근한 눈길을 떼어버릴수는 없구. 그들이야 평생 함께 탄을 켤 동지들이 아니요. 미안하게 됐소.》

할말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호 내쉬고는 탄광 행정청사가 있는 길로 접어드는 대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돌격대지휘부에 들어선 내가 한참 통제철을 뒤적이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가에는 몸매가 쭉 빠진 처녀가 서있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분명 사진에서 본 그 처녀였다.

기다리다못해 찾아왔구나!

나는 얼른 지휘부에 들어다 앉히고 물을 권했다. 그리고는 대장에게 편락을 띄운다,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다 하며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내가 정성이 고인 쟁반을 들고 숨이 차서 지휘부에 당도하니 그들은 다정히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대장이라는게 남 잘 때 다 자고 남 휴가갈 때 같이 가서야 새 켩에서 언제 석탄이 나오겠니. 이젠 거의 됐다. 석탄이 쏟아지면 그땐 가봐야지.》

《어유, 그러는새 처녀들이 다 늙겠네.》

《원 걱정두, 늙은 처녀만 있겠니. 꽃피는 처녀들두 많지.》

《아유, 오빠나이는 그새 고장난 시계처럼 멎어있겠대요? 어머니가 오죽 맘 썩이게...》

처녀의 그 소리가 세차게 나를 후려했다.

아, 그러니 저 처녀는 대장의 녀동생이었던 말인가? 그가 대장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섭섭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분간이 오지 않고 눈물만이 쿵 솟구쳤다. 그 순간 발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화채가 담겼던 접시와 단물병이 박살나고 과일알들은 사방으로 공처럼 굴러갔다. 진수와 녀동생이 뛰어나왔다. 처녀는 쟁반에 과일들을 주어담고는 언제 봐두었던지 방비를 찾아 죽탕이 된 화채며 병조각을 쓸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거 참, 오래간만에 맞다든 화채였는데...》

진수는 별스럽지 않은듯 웃어넘겼다. 보통때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를 정황이었지만 나는 곧바르게 서있었다. 조국이 기다리는 석탄을 위해 온넛을 바치는 인간, 조국앞에 청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한몸을 불태우는 열정의 인간이 내앞에 서있는것이였다. 나는 넛을 잃고 대장을 바라보았다. 대장에게서 뿜어져나오는 열정의 빛

발이 나의 깨끗치 못한 모습을 날날이 비쳐주는것만 같았다. 그앞에 죄를 지은 심정이였다.

체대군인들처럼 부강조국건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에 편리한 직업을 얻기 위해 몇달동안 돌격대원이 되었던 처녀, 이처럼 삶의 지향이 다르니 2중창에서조차 교감을 이룰수 없지 않았던가. 그러니 다른 목표를 쏘는 사수는 그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불명의를 품은듯 숨쉬기가 가뻤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간 나는 어머니에게 탄광후방부로 가게 된 내 문제를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어안이 병병해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고있던 어머니가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저 애도 무슨 속궁양이 있길래 그러겠지 무턱대고 반대하면 안된다는 아버지의 지지로 결국 내가 돌격대에 남는 문제가 가정적인 락착을 보았다.

한결 개운해진 마음으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나는 돌격대로 출근했다. 그 며칠동안에 나는 류진수대장이 나에게 함께 계속 일하지 않겠는가고 물어주기를 마음속으로 고대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무관심》하였다. 그 《무관심》이 나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드디어 나는 나의 마음속에 끓고있던 불덩어리를 쏟아놓고야말았다.

《대장동지, 대장동지는 웅졸합니다. 전 돌격대원이 아닙니까. 중대에는 처녀들의 일감이 얼마든지 있는데 저에게는 왜 채탄중대에 함께 있자는 권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항변에 어지간히 놀랐는지 대장은 한동안 멍청히 서있었다.

《동무야 자격을 가진 회계일군이 아니요?》

하지만 논리적인 그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가슴속에는 어쩔수 없는 뜨거운것이 끓고있었다.

《대장동지, 전 체대군인동지들처럼 땀흘려 일하면 안되는가 말입니다.》

두눈길이 마주쳤다. 의아함이 어렸던 대장의 눈에 공감과 기쁨의 환희가 끓어오름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 어떤 감정의 폭발을 예감하는 짜릿한 전율이 흘러갔다.

그러나 대장은 묵묵히 돌아섰다. 뒤집을 진채 조용히 창가에 다가섰다. 그의 어깨가 서서히 오르내린다.

무엇을 생각할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생각할가. 아니다. 그는 경박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땀과 열정으로 부강해질 나의 조국을 그려보고있을것이다.

나는 벼락이 쳐도 끄떡하지 않을듯싶은 대장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어둠이 깃들었는지 대장이 마주한 창가엔 체대군인마을의 전등불들이 환히 웃고있었다. ...

우리 나라 《동반자》문학에 대한 이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이밖에도 일제시기에 진보적인 작품을 창작한 신채호, 한용운, 김억, 김소월, 정지용과 〈카프〉의 〈동반자〉라고 불리운 소설가 심훈, 리효석, 근대아동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작가 방정환, 〈노들강변〉을 비롯하여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작한 문호월, 〈아리랑〉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경향이 좋은 예술영화를 만든 라운규와 같은 작가, 예술인들을 문학사와 예술사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벌써 《카프》의 《동반자》와 그들의 문학에 대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재평가하고 문학사에서 취급하여왔다.

원래 《동반자》라는 말은 로씨야에서 《라프》(로씨야프로레타리아문필가동맹)문학이 출현하여 발전하던 10월혁명전후시기부터 1920년대에 때를 같이하여 나타난 자유주의적작가들의 문학에 붙였던 《동반자문학》이라는 호칭에 그 어원을 두고있다.

당시 로씨야문학에서 《동반자》들은 처음부터 혁명과 사회주의문학의 길로 적극 나선 작가들이나 반대로 반혁명의 길로 나간 작가들과 달리 대체로 중간파, 동요분자들로서 혁명은 찬성하지만 사회주의사상과 사회주의문학에 동조하지 않은 작가들이었다. 물론 그후 쏘련공산당의 지도밑에 《동반자문학》에 속했던 대다수사람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접수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로 자라나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우리 문학에서 《동반자》 혹은 《동반작가》라는 용어는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1930년대초에 바로 로씨야의 이 《동반자문학》이라는 용어를 받아들하면서 산생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문단에서는 로씨야의 이 개념을 그대로 답습한것이 아니라 초기기부터 《동반자》문제가 치열한 논점으로 되면서 의미상에서 차이를 가지고 쓰여왔다.

《평범하고도 긴급한 문제》〔주체19(1930)년〕, 《하리코브대회 성과에서 조선프로예술가가 얻은 교훈》〔주체20(1931)년〕등 권환의 평론들에서 다소 좌경적인 색채를 띠고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우리 나라 《동반자》작가문제는

《카프작가와 그 수반자의 문학적활동》〔주체19(1930)년 9월 18일~26일〕, 《문단촌침》〔주체21(1932)년〕, 《약간의 준비적질문》, 《방랑적작가에게—〈약간의 준비적질문〉에 답함—》〔주체21(1932)년〕, 《동반작가의 제문제》〔주체21(1932)년〕, 《동반작가문제》〔주체21(1932)년〕, 《문예시평》〔주체21(1932)년〕, 《동반작가문제를 청산함》〔주체21(1932)년〕, 《동반자작가의 인도문제》〔주체22(1933)년〕를 비롯한 당시의 문예비평들을 통해서 보는바와 같이 각이한 주장과 견해들이 엇갈리는 속에서 발전하였다. 여기서는 후날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박영희와 같은 《카프》내 불순세력들의 배타적이고 좌경적인 견해와 《동반작가》규정의 정치적수준을 낮출것을 요구한 백철 등의 우경적견해에 반하여 안함광과 같은 비평가들이 제기한 비교적 정당한 주장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동반자》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리해하기 위한데로 논쟁이 지향되여가게 되었다. 하지만 《동반작가》문제는 논의의 해결을 보지 못한채 일제에 의한 《카프》의 강제해산과 함께 자연히 사라지고말았다.

여기로부터 그후 《카프》의 《동반자》에 대한 리해와 이에 포함시킬 작가들에 대한 규정에서 계선을 명백히 긋지 못하는 편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동반작가》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주체적립장에서 재평가하여볼 때 문학사적용어로서의 《동반자》의 의미는 현재 《카프》조직의 성원은 아니면서 그와 같은 경향의 작품을 쓴 작가라는 의미로 생각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카프》의 활동시기에 그에 망라되지 않고 그 조직밖에서 활동하면서 무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작가들을 《동반작가》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동반작가》에 속하는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당시 〈카프〉는 소위 〈동반작가〉로 심훈과 리효석, 유진오를 지목하고있다.》〔김학렬,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연구》 주체85(1996)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라든가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동반작가〉는 강경애, 심훈, 리효석 등이다.》〔조성근, 《현대조선문학선집》 23권, 주체89(2000)년 문학예술종합출판사〕와 같은 서술외에 최근에 리무영, 채만식, 너류작가 박화성 등을 더 포함시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계급적

내 나라 끝점에 한 공민이 있다

정 동 찬

내 나라의 끝지점 우암바다가에서
이끼오른 방파제를 지킨다는 한사람
해풍에 절은 옷자락 날리며 서있음을
나는 본다

내려내리는 두만강물결이
달려달려오는 파도와 마주치는 곳
예서는 하나도 잃어서는 아니될 국경대안
나라의 시작도 끝도 다 있는 곳

여기 방파제에
한생을 두고 사는 사람
벼랑턱에서 캐어낸 돌 한아름 한아름씩
바다가모래턱에 돌웃을 입히며 살고있다

한밤중의 내리쏟는 폭우와
들이닥치는 성난 파도가 불안고 싸울 때면
소스라쳐 방파제로 내닫는 사람
그런 때면 후두둑 뛰는 마음
진정 못한다는 사람

조국의 한줄한줄 살불이같은 흙이
바다 멀리 다시 못 돌아올 길을 가는
아츠러운 소리만 갈아
그것이 자꾸만 맘속에 감돌아쳐
밤이 새도록 방파제를 지켜 걷는다

그 한줄 흙이

조국을 찾는 투사들품에서 살았다고
그 한줄 흙이
국제무대에서 공화국기를 띄운
애어린 처녀선수들에게는
조국의 살결이 되었다고

제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하나하나 돌들의 앓음새를 짚어본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머리를 쓰다듬듯
방파제를 쓸어보고 또 쓸어본다

그대는 정녕 바다속의 한줄 모래마저도
가슴에 떠안아 울리고울리며
나라의 끝도 되고 시작도 되는
이 땅에 차곡차곡 얹어놓는 사람

땅을 지키는 싸움
전쟁만이 하는것이라
평범한 보통날에도
전호에 선 병사마냥
수호자의 근무시간으로 살고있거니

내 조국의 시작과 끝이 영원히 지켜질 때
이 땅에서 사는 공화국공민의 생도
영원히 지켜짐을 잘 알기에
한몫 그대로 방파제가 되어
조국의 최북단 검푸른 파도앞에
그는 한생을 세워두고 산다

및 시대적제한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난 창작에서의 과동때문에 이들의 작품전부를 《동반자》문학이라고 말할수 없는 조건으로부터 이 문제는 보다 심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동반자》문학작품들로서는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 중편소설 《소금》, 심훈의 장편소설들인 《동방의 애인》, 《불사조》, 《영원의 미소》, 《직녀성》, 《상록수》, 단편소설 《황공의 최후》, 리효석의 단편소설들인 《도시와 유령》, 《행진곡》, 《로령근해》, 《프레류드》, 《북국점령》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내용상 비판적사실주의경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으나 주로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을 구현하여 무산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적리상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선진사상에

공명하여 계급문학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적리상을 반영한 《동반자》문학도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없었으며 형상창조에서도 일련의 결함들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개중에는 리효석을 비롯하여 개별적작가들의 사상적변질로 인하여 《동반자가》가 쓴 작품이지만 《동반자》문학안에서 고찰하지 못하고 엄격히 경계하고 구별하여보아야 할 작품들도 있다.

이러한 부분적제한성은 있으나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반자》문학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속에서 양양되는 대중투쟁현실과 선진사상에 고무되면서 무산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카프》문학과 더불어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김 청 송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공동사설에서 —

수 필

젊 어 진 고 향 별 에 서

박 경 철

봄이다.

맑게 개인 저 하늘 가득히 따스한 해빛이 자글 자글 내려쬐인다.

긴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대지는 파릇파릇 새싹을 움틔우고 아물아물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며 한껏 무르녹는 꽃계절을 향해 기쁜 걸음을 재촉하는듯싶다.

이 땅도 부풀고 마음도 부푸는 이 봄, 선군조국의 희망찬 하늘가에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환희로운 봄이다.

나는 지금 봄날의 정취를 폐속깊이 들이키며 토지정리로 젊어진 고향별에 서있다.

나의 앞뒤와 량옆을 따라 바둑무늬모양으로 아득히 펼쳐져있는 넓고 시원한 별!

바라볼수록 가슴이 탁 트이고 두팔 높이 추켜들고 만세라도 부르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별이다.

이 덧쟁이별 한복판에 봄바람에 가볍게 펄럭이는 붉은기가 보인다.

지금 별에서는 새해공동사설을 심장에 새긴 농장원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벼랑상모판 씨뿌리기를 다그치고있다. 그들속에는 갓 중학교를 졸업한 애리나는 처녀농장원도 있고 웃웃을 벗어놓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는 제대군인도 있으며 나이지속한 아바이농장원도 보인다.

나이와 얼굴생김, 옷차림까지 서로 다르지만 나에게는 그들모두가 한결같이 젊고 아름답고 멋있는 청춘남녀들처럼 안겨온다.

왜 그렇지 않으랴. 이렇게 젊고 아름다워진 별에서 이제는 더 많은 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었으니 절로 나는 노래와 웃음속에 너도나도 젊어질수밖에 더 있겠는가.

분명 내 고향별은 사람도 땅도 젊음이 약동하는 청춘기에 살고있는것이다.

문득 나는 감회깊은 눈길을 돌려 어느 한 곳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평평한 논판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벼랑상모판이 펼쳐졌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아무런 표적이 놓여있지 않아도 할아버지가 해방후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받고 《박영보 4 000평》이란 주먹같은 먹글이 씌여진 표밭목을 박았던 자리임을 알아볼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늙은 몸에도 자주 그곳에 나가 별의 전경을 바라보며 점도록 서있거나 앉아있곤 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아래 난생처음 제 땅을 반아안고 해종일 춤추고 노래부르다 논두렁을 베고 한밤을 지새우던 못 잊을 그날을 그려보는지 아니면 그 소중한 땅에 애국의 더운 땀 아낌없이 뿌려 해마다 풍년날가리를 높이 쌓던 그 행복하고 보람찼던 나날들을 추억해보는지...

세상을 떠나기 며칠전 할아버지는 나의 손목을 이끌고 그 표밭자리로 나왔었다. 그리고는 둘째의 논판들을 가리키며 절절한 어조로 이렇게 당부했다.

《이 땅이 바로 해방후 수령님께서 이 할아버지에게 주시였던 땅이란단다. 이 땅이 없었던탓에 이 할아버진 지난날 머슴살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왔단다.

땅이자 곧 농사군이고 농사군이냐 곧 땅이느니라. 그러니 어버이수령님께선 이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집에 아니, 우리 농민모두에게 목숨을 주신거나 다름없다. 너도 크거들랑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땅을 더 잘 지키고 가꿔가야 한다.》

아, 그때는 그 깊고깊은 뜻을 미처 다 몰랐던 그날의 당부, 그것을 심장에 새겼기에 나는 자라면서 이 땅을 남달리 사랑하게 되었고 오늘은 고향별에 영원한 뿌리를 내린것이 아닌가.

정녕 해방된 이듬해 온 나라 강산을 감격과 환희의 바다로 들끓게 했던 토지개혁은 반만년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자주적인 생명을 준 위대한 혁명이였다.

그런데 선군시대에 와서 우리 농민들은 그 자주적인 생명을 더욱 빛내여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을 맞이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이 땅을 오늘처럼 몰라보게 전면시킨 토지정리가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은 저도 모르게 《고난의 행군》의 그 날에로 이어져갔다.

강원땅에 이어 우리 평북땅에서도 토지정리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한입, 두입 건너 퍼지기 시작했다. 했으나 나는 불도젤군단이 우렁우렁 고향별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에 대해 잘 믿어지지 않았었다.

명 정

정 호 남

아침기상으로부터
전투훈련의 구슬땀 뿌려가는
분과 초들을
명령속에 살던
나는 어제날 병사

이제는 제대와 함께
그 명령도
나의 곁에서 멀어졌건만

첫 출근길에 오른 그날
공장연혁소개실에 들어서니
공장이 낳은 영웅들이
제대병사 나를 보며
금시라도 명령하는듯싶구나

-제대병사
군복을 벗었어도
조국의 명령앞에 충실했던
그때처럼 살라

그 눈빛은
어제날의 엄격한
나의 사단장의 눈빛인듯
나에게 말없이 구령치고있었나니

하루일 끝난 저녁이면
내 그들앞에 또다시 선다
명령받은 병사의 하루로
내 살았는가를
병사의 량심으로 돌이켜본다

아, 우리 공장 영웅들
하나와 같이 그들은
어제날 병사들이었거니
조국의 명령앞에 충실했던 량심이
영웅의 위훈을 낳은것 아니랴

명령앞에 오직
《알았습니다》
그 부름에 습관된 병사시절처럼
내 순간순간을
영웅들이 지녔던 녀을 안고살려니

오늘도 나는
우리 공장 영웅들이 내리는
량심의 명령을 받으며 산다
오, 혁명적군인정신을
마음속 명령으로 안고산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고난
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던 것처럼 어려운 나
날에 것처럼 크나큰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린다는게
인차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정리는 드디어 막을 올렸고 밤낮을
이은 불도젤들의 우렁찬 동음속에 고향별은 쪽쪽
허리를 펴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갔다.

한밤 자고나면 뱀꼬리처럼 오불꼬불하던 높낮은
논둑들이 형체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또 한
밤 자고나면 손바닥갈던 뽕기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 자리에 자를 대고 금을 그
은듯 쪽쪽 펼쳐지는 넓고 시원한 규격포전, 기계
화포전들...

그것은 정녕 선군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난 거대
한 지각변동이였으며 우리 농민들의 운명을 또 한
번 크게 변화시킨 위대한 토지혁명이였다.

하기에 전세계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장엄한 토
지정리전투를 경탄어린 눈길로 주시하며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
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 땅우
에 꽃피우시려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 조국애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에 의해 기적같은 천지개벽은
현실로 펼쳐진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의 토지를
모두 사회주의맛이 나게 새롭게 변모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전선길에서도 자주 토지정리정형에 대해
알아보시며 걸린 고리도 풀어주시고 때로는 찬바
람에 야전복을 날리시며 몸소 전투현장에까지 찾
아오시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오늘은 평
안북도에 이어 평안남도과 황해남도 아니, 온 나
라의 벌들이 이런 멋쟁이 《청춘별》로 새로 태어
난것이 아닌가!

《청춘별》과 더불어 영원한 청춘으로 새로 태
어난 우리 농민들.

해방의 그날 반만년 내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은덕아래 목숨같은 땅을
받아안고 감격에 겨워 울고웃던 그 농민들의 후
대들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청
춘처럼 젊어진 새땅을 받아안고 쌀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앞당겨올 신심도 드높이 새해 영농전
투에 펼쳐나선것이다.

그렇다. 은덕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세대를 이어 안겨지는 위인들의 파사로운 사랑
을 안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복받은 대지에 자
기들의 깨끗한 량심과 구슬땀을 다 바쳐갈것이다.

곽말약과 그의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어떤 견해와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대하며 어떻게 예술적형상으로 일반화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의 세계관에 달려있다.》

진보적인 세계관을 지니였던 중국의 작가 곽말약(1892—1978년)은 다방면적인 작가로서 시, 소설, 희곡, 번역들에 다 손을 댔으며 처녀작인 시집 《너신》(1921년)이후 《별하늘》(1923년)과 《새 중국에 대한 찬가》(1953년) 등의 시집을 내놓았으며 《나의 유년시절》(1929년)을 비롯한 소설, 《굴원》(1942년), 《촉전무후》(1960년)를 비롯한 희곡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또한 력사학자로서 《중국고대사회연구》(1930년)를 비롯한 여러권의 책을 집필하였다. 1982년에 인민문학출판사에서 1959년에 출판한 《곽말약문집》(17권)을 보충하여 전 38권으로 된 《곽말약전집》을 간행하였다.

곽말약의 처녀작이며 대표작인 시집 《너신》에는 총 56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너신》은 시인이 심혼을 바쳐 사랑한 조국을 의미한다. 시집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낡은 봉건중국의 멸망을 확인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중국의 탄생을 격조높이 노래한것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죽지 않는 봉황》, 《태양폐찬》, 《폭도찬가》, 《지구의 한 끝에 서서 나팔을 부노라》, 《너신의 재생》, 《난로속의 석탄》, 《상해의 인상》 등을 들수 있다. 특히 시곡 《죽지 않는 봉황》은 환상적인 새 봉황이 향나무불무지에 뛰어들어 타죽기 전에 부른 노래를 통하여 낡은 중국에 대한 저주와 항의를 표현하였다.

망망한 우주는 쇠처럼 차갑구나!
망망한 우주는 옷처럼 캄캄하구나!
망망한 우주는 피처럼 비린내나누나!

...

아! 음산한 이 세상에선
금강석으로 버린 검도 녹이 쏠리!
우주여, 우주
내 마음껏 너를 저주하노라
그대 피고름에 더러워진 도살장이여!

슬픔이 가득찬 감옥이여!
귀신들이 떼지어 통곡하는 무덤이여!
악마들이 욕실거리는 지옥이여!
너는 대체 무엇때문에 존재하느냐?
서쪽으로 날아가보아도 도살장
동쪽으로 날아가보아도
그 역시 감옥
남쪽으로 날아가보아도
그 역시 무덤
북쪽으로 날아가보아도
그 역시 지옥이거니
이런 세상에 태어난 우리
오직 바다를 본받아 슬피 울뿐

여기서 노래되는 피비린내나는 《우주》, 《피고름에 더러워진 도살장》, 《무덤》, 《지옥》, 《감옥》은 다름아닌 죄악에 찬 낡은 중국이다. 봉황은 이 모든것을 불태우는 불길속에 뛰어들어 재생할 비장한 결심을 다진다.

아아!
불길이 타오르고
향기가 코를 찌르누나
죽음의 때는 왔다
몸밖의 모든것!
몸안의 모든것!
모든것의 모든것!
어서 오라 부르누나!

시는 봉황의 형상을 통하여 중국사회를 엿어매 놓은 봉건적철쇄를 쳐부시려는 반항정신, 자유롭고 평화스러우며 행복한 중국을 건설하려는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표현하고있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그 형식과 창작수법에서도 낡은 시형식의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형식과 수법을 대담하게 도입한 혁신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있다. 시집 《너신》은 일련의 사상예술적미숙성을 가지고있으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신민주주의혁명에로 넘어가던 시기 중국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중국의 현대시가, 특히 《신시》의 발생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서 현대중국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의종을 질질케 한 풍자시

개경에서 사신이 도착하던 날 룡만(고려시기 평안북도 의주)땅은 초상난 집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뻥질나게 드나드는 별공사(세금외에 추가공물을 거두는 관리)들때문에 온 고을이 결단날 지경인데 이번엔 임금이 직접 궁성관리까지 파했다는 틀림없이 또 굉장한 봉물진상때문이 뻥했기때문이었다.

또 한차례 들볶일 걱정으로 모두가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뜻밖에도 사신이 가지고온 조정의 어지란 5일내로 객사와 역참에 붙어있는 시들을 모두 적어올리라는것이 아닌가.

《에— 모아들인 시가운데서 백성들의 생활에 폐단으로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문장으로 잘된것은 특별히 골라 전하께 상주하기로 하였으니 여기 룡만에서도 빈틈없이 조처할것이다.》

사신이 다시 기한을 강조하고나서 이웃고을로 떠나가자 관청에 모여있던 고을관리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시 진상하는 법도 있다. 걸핏하면 너잘 내라, 고기를 내라 하더니 아마 요새는 대궐에 연주할 노래까지 떨어진가보이.》

《아따, 이런 령이라면야 죽은 나지 께듯 하겠는걸. 좌우간 이번판은 무사히 넘기게 됐네.》

귀가를 스치는 횡설에 룡만진사 김신윤(12세기 중엽)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숙하라. 조정에서 필시 아래실정을 헤아리려고 내린 어지일텐데 무슨 상서롭지 못한 언행들인고.》

그러건말건 관리들은 그들대로 이번 령이 봉물진상이나 부역징발이 아니라는 한가지만으로도 만족해하는 기색이었다.

김신윤 역시 숨이 저절로 나가는것을 느꼈지만 어쩐지 마음에 납덩이가 매달린듯 무거웠다.

다음날부터 김신윤의 탁자에는 수집된 시들이 무드기 쌓였는데 대개가 《태평성대》에 대한 칭송 아니면 목가적인 풍월뿐이었다. 아마 임금의 비위를 거슬리는 글을 썼다가 화를 입을가봐 예리한것들은 미리 빼버린 모양이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임금이 자기 정사의 폐단을 알수 있게 한단 말인가.)

시편들을 뒤적여볼수록 김신윤은 치미는 불만을 누를수 없었다.

저 멀리 개경의 통상에 앉아있는 의종(고려 18대 왕 1147—1170)은 등극직후부터 전국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개경과 여러곳에 새 궁궐공사를 벌리는 한편 날마다 호화로운 술놀이를 벌리고 자기의 장수를 위한 불교행사를 요란히 진행하고있었다.

거기에 드는 엄청난 비용으로 국가가 거덜나자 의종은 《기은색》이라는 기구를 새로 내오고 지방토산물과 민간의 미녀들을 닥치는대로 뽑아올리

게 하였는데 여기서 솜씨를 보인자들은 하루밤사이에 벼락감투를 얻어쓰곤 하였다.

원래 개경출신이었던 김신윤은 이로 인한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두고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룡만의 변경관리로 밀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의종의 변태적인 향락이 빚어낸 사회적혼란을 외면하고 어찌 태평성대를 운운한단 말인가.

김신윤은 저도 모르게 연적우에 놓인 붓을 손에 짊 들어쥐었다.

백성을 짜내여 아부하는 풍 오래더니
나라안에 온통 선과 악이 뒤바뀌었네
신하들을 후히 대함은 홀륭하다 하겠건만
청천백일이야 어찌 속일수 있단 말인가

홍분한김에 여기까지 써내려간 김신윤은 붓대를 멈추고 잠시 생각을 굴렸다. 옷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아첨군이나 없앤다고 임금의 습벽이 달라지는것은 아니었다.

문득 전날 관청에서 관리들이 주고받던 룡담이 뇌리를 쳤다.

(그렇지. 에둘지 말고 주색을 즐기는 임금의 병통을 면바로 찌르자.)

왕의 질병이야 능히 고치겠건만
주색이야 어찌 마다할수 있으랴
친구분네 부디 웃지들일랑 마소
웁아도 못 따르는 이 바로 남아라오

마감을 짓고나니 어쩐지 마음이 한결 개운해난 김신윤은 곧 자기의 시를 다른 시들과 함께 밀봉한 다음 개경으로 올려보냈다.

며칠후 개경에서 김신윤의 시를 받아보던 의종은 가슴이 그만 싸늘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뭘, 병은 약으로 고쳐도 주색은 사내의 기질이라 어쩔수 없다구? 네가 감히 나를...)

민심을 살피자고 지시하여 뽑은 시이기는 하나 참고 보기만 하자니 그 기지있는 조소에 막 미칠것만 같았다.

갑자기 오한이 나듯 몸이 떨려난 의종은 자기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내리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의종 못지 않게 조롱당한 다른 대신들도 《그 김신윤이 개경에 있을적부터 걸핏하면 미친 소리를 하던자이니 아예 징계하여 뒤말을 없애야 하오.》라고 떠들어댔다.

한참만에야 입을 연 의종은 《이번 어지는 시를 통해 민심을 보자는것이였거늘 시글이 좀 과하기로서니 어찌 벌을 내릴고.》하며 마지못해 맥빠진 소리를 질렀다.

리 성

지도작성과 지리지편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지난해 1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력사자료전시마당, 민속오락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력사문화유산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살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금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은 지도작성과 지리지편찬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고구려는 7세기초에 전국적인 지도를 가지고있었고 백제에도 《백제지리지》와 지도책 《도적》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기 980년대에는 전국적인 일반지도인 《고려도》(또는 《고려지리도》)가 널리 리용되고있었다.

고려 말기의 이름있는 지도제작자였던 라흥유가 《본국지도》(우리 나라 지도) 등을 편찬하였다.

리조시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8권)

는 1454년에 완성된 종합적인 조선지리책으로서 우리 나라 지리를 력사, 정치, 경제 및 군사의 측면에서 도별, 고을별로 상세히 연구분석한 책이며 그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정확한 책이다.

1478년에 시작하여 1481년 4월에 완성한 《동국여지승람》(50권)은 우리 나라 지리학의 백과전서적인 책으로서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리학발전력사에서 크게 자랑할만 한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집체적힘을 모아 만든 이 책에는 《팔도지리지》(1432년), 《고려사》지리지(1451년),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편찬하는데서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하고 전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한 새로운 자료들이 도별, 군별, 고을별로 매우 자세하게 정리되어있다.

1434년부터 시작하여 여러해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나가 지형을 현지답사하고 측량한 자료들을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조선팔도도》를 만들어냈다.

1528—1530년에는 이미 편찬되였던 《동국여지승람》을 다시 수정보충한 《신증동국여지승람》(55권)이 나왔다.

또한 1770년에는 1책 10폭으로 된 《동국여지도》가 완성되였다.

19세기초 중엽에는 특히 우리 나라의 지형과 세계지리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한 지향과 노력이 커지면서 여러가지 특색있는 지도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김정호의 《청구도》와 《대동여지도》는 뛰어나게 우수한 지도들이였다.

김 학 주

주제97(2008)년 《조선문학》축전상 당선결과

△단편소설부문

- 《칠보산의 봄우뢰》 김도환
- 《을사년 이듬해》 리성덕
- 《숲에 깃든 녀》 백명길

△시부문

- 시초 《고향길》 최준경
- 현시 《김정일장군찬가》 류동호
- 련시 《아들아, 이것이 언제란다》 고남철

△평론부문

- 《우리 혁명의 건군사에 바쳐진 불멸의 화폭》 김순림
- 《선군시대와 조국애》 김덕선

△예술산문부문

- 수필 《조국과 나의 가정》 최남순

세 연 지 의 유 래

이 이야기는 을지문덕이 석다산에서 무술공부를 마치고 평양의 통악산부근에 와있을 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어느날 석다산 무술선생이 을지문덕을 앞에 앉혀놓고 신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제는 네가 나에게서 배울것을 다 배웠다. 이제부터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찾아서 하여라. 명심할것은 너도 농사군의 자식이니 백성이 곧 하늘이고 나라의 근본이라는 사실이다. 어서 떠나거라.》

이리하여 몇해동안 정이 들었던 석다산의 석굴을 뒤에 남기고 곧바로 평양에 들어왔다. 그러나 농사군의 자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통악산부근의 한 마을에 자리잡고 대장간일을 도와주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여기서는 석다산에서처럼 온 하루 무술련마와 글공부만 하고있을수 없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대장간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고는 풍구질, 벼립질로 날을 보낸 다음 밤부터 아침까지 통악산으로 말을 몰아 달리면서 무술련습도 하고 또 책을 읽고 글씨공부도 부지런히 하였다.

특히 그는 이른새벽 말을 몰아 통악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아담한 못가로 나가는것을 어김없는 첫 일과로 삼았다. 그 못가에는 오목하게 생긴 것이 벼루비슷한 바위돌이 하나 있었다.

을지문덕은 그 바위돌에 못물을 움켜두고 먹을 썩씩 갈아서 붓글씨련습을 하였다. 종이가 생기면 종이에 쓰고 종이가 없으면 큼직한 나무잎을 모아다가 거기에 썼다. 그것마저 없을 때는 매끈한 돌을 모아다가 돌면에 썼다. 이런데다 글을 써도 애국의 뜻을 안고 쓰는 글씨련습이니 글씨솜씨가 빨리 늘었다. 읽어온 병서구질, 좋은 시구를 뜯금으로 외우면서 한자한자 정성껏 쓰니 글씨솜씨뿐아

니라 글의 내용과악도 더 잘되었다. 을지문덕은 이럴수록 글씨련습이 재미났고 자랑스러웠다.

(부자집 자식들이 좋은 종이, 좋은 비단을 놓고 뜨뜻한 방안에서 글씨공부를 하는것과 내가 하는 이런 글씨공부중에서 어느것이 더 떼떽하고 보람찬지 어디 두고보자.)

이런 강심을 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글씨공부를 하루도 드리지 않고 계속하였다. 을지문덕은 궁지가 클수록 지나온 시절을 자주 돌이켜보곤 하였다. 어렸을 때 부모님슬하에서 모래우에 나무꼬챙이로 글씨공부를 시작하였고 석다산동굴의 칠패벽에 책읽고 글씨공부를 계속하던 자기가 이제는 무술공부를 완성한것처럼 글씨공부도 이만하면 성공한것 같다고 자부심을 가지었다. 말하자면 나라 위한 일에 자기의 글씨를 부끄럽지 않게 바칠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었다.

을지문덕이 하도 직심스레 글씨공부를 하였더니 그것이 어느덧 름근마을들까지 소문이 났다. 자식있는 부모들은 아들 훈계를 해도 《석다산 젊은이처럼 해야 되느니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또한 을지문덕이 글씨공부를 하던 이름없던 못을 《세연지》(벼루젓은 못)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못물이 가까이에서 보면 을지문덕의 마음처럼 맑고 파랗지만 좀 떨어져서 보면 을지문덕이 매일 붓글씨를 련습하였던 먹물이 흘러들어 검푸른색을 띠고있다는것이다.

이 마을사람들은 을지문덕이 자기 고장에 와서 대장간일을 도와주면서 무술공부, 글공부를 직심스럽게 하더니 어느해 봄날 사냥경기에서 우승하고 평양성안으로 뺏혀갔다는니, 마을어른들의 추천으로 군사를 거느린 무관으로 들어갔다는니 하고 대를 물려가며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작가일화

갈 날 갈 은 비 평 가

리조 전기 성균관 학자들속에서는 앞선 시기의 문学家들의 글을 덮어놓고 숭상하면서 그 본을 따려는 풍이 돌고있었다.

성균관에서 교수를 담당하고있던 윤상은 학문탐구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지만 글을 쓰는데서는 재간이 크게 없었고 김말은 문장이 바르나 고무하고 협소하였다.

이들은 또한 옛문学家들에 대해서도 이편이 낫다느니 저편이 낫다느니 하면서 입씨름만 하였다.

《문장에선 리제현이 으뜸이요. 그를 본보기로 가르쳐야 글의 명암을 깨달을수 있고 다듬은 문체도 쓸수 있소.》

김말이 이렇게 주장해나서면 이번에는 윤상이

지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리제현도 좋지만 정도전이 으뜸이요. 그야말로 우리 문인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가 아니겠소. ...》

서로 내가 옳다거니 내가 옳다거니 하면서 입씨름으로 달을 보냈다.

어느날 이들의 싱갱이질을 일찍부터 알고있던 성현(1439—1504년)은 《문학과 문学家들의 수법》이라는 제목을 내고 이들의 모방적인 태도를 깨우쳐주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최치원은... 비록 시를 잘한다고 하나 뜻이 정확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비록 사록문체에 능란하

다고 하나 사연이 정세(정확하고 구체적이다.) 하지 못하다.

...김부식은 풍부하나 화려하지 못하고 정지상은 명량하나 기운이 썩지 못하고 리규보는 역지가 세나 수습을 잘하지 못하고 리인로는 능히 가다듬을 줄을 아나 펴서 나가지 못하고 림춘은 능히 정밀하나 통속적이지 못하고 리곡은 진실하나 영롱치 못하고 리제현은 전장하나 고운 맛이 없고 리송인은 압전하나 즐기치지 못하고 정몽주는 순수하나 아담하지 못하고 정도전은 부풀기만 하지 단속할 줄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이르기를 리색이 능히 집대성으로 되어서 시와 문이 모두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비속하고 소루한 태도를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변계량은 비록 문학행정을 책임지고있었으

나 리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중에서 더구나 떨어진다.

...김영산은 글을 읽으면 반드시 외우기때문에 글짓는 체제를 알아서 그의 글이 웅장하고 호방하여 누가 그와 더불어 겨루어 덤비지를 못하였다. 단지 성질이 꼼꼼하지 않기때문에 시의 운을 다는데 착오가 많아서 통용하는 격식에 맞지 않았다.》

성현의 글을 본 윤상과 김말은 저들의 학식을 부끄러이 여기며 다시는 다투질을 하지 않았다.

모든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창발적으로 대하면서 그 우단점을 명백하게 갈라내곤 하는 성현의 남다른 학식과 탐구심에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다 한다.

《성현은 역시 칼날같은 비평가일세. 잘못했던 큰코를 다치겠네. 괜히 나설것 없네.》

유 모 아

해 학 적 인 강 연

시인 마야콥스끼(1893. 7—1930. 4)가 한 모임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의 연설은 날카롭고도 해학적이어서 이따금씩 청중속에서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한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전적으로 소리쳤다.

《난 당신의 유모아를 알아듣지 못하겠소》

마야콥스끼는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은 기린이군요. 기린은 월요일에 발이 젖은것을 토요일에 감촉한다던데...》

이번에는 마야콥스끼앞으로 종이쪽지가 날아들었다.

《마야콥스끼씨, 당신은 왜 제자랑을 좋아합니까.》

마야콥스끼는 곧 그에 대답하였다.

《나의 한 친구가 권고하기를 <자네는 자신의 우점에 대해서만 말하게. 결함은 친구들이

말하도록 하라구.> 하였지요.》

질문은 런던아 제기되었다.

《당신은 때가 앓은 낡은 전통과 관습을 씻어버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럼 매일 세면을 하는 당신도 결국은 어지러운 사람이라는 결론에 떨어지지요?》

《당신은 세면을 하지 않는 모양인데 그럼 당신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야콥스끼씨, 당신은 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닙니까?》

《반지는 손가락에 끼지 않고 그럼 발가락에 끼라는겁니까?》

《마야콥스끼씨, 당신 오늘 저녁 돈을 얼마나 받으니까?》

《그건 당신이 흥미를 가질 일이 아니겠는데요. 당신은 돈을 한푼도 내지 않을것이고 나는 돈을 당신과 나누어가질 생각이 없으니까요.》